

고전문학 작품의
교과서 표기 유형 연구
- 7차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신 영 산

고전문학 작품의
교과서 표기 유형 연구
- 7차 문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지도 허 경 진 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6월 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신 영 산

신 영 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년 6월 일

차 례

한 글 초 록

I. 들 머 리	1
1. 고전문학 교육의 패러다임	1
2. 연구사 검토	8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14
II. 표기 유형을 찾기 위한 분류 기준의 설정	21
1. 글의 성격에 따른 분류	21
가. 국문학사상의 갈래에 따른 분류	22
나.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의 분류	26
2. 표기 유형에 따른 분류	30
가. 한자 원문을 들고 있는가	33
나. 문장과 문단을 나누고 있는가	37
다. 행과 연을 나누고 있는가	39
라. 옛 문자(고어)를 쓰고 있는가	41
마. 한자어의 한자음을 나란히 쓰고 있는가	43
바. 옛 단어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는가	46
사. 따로 뜻풀이를 하고 있는가	48
III.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양상	52
1. 노래문학	52

가. 한 시	52
나. 한역 가요	54
다. 향 가	55
라. 고려가요(경기체가)	60
마. 시 조(사설시조)	62
바. 가 사(잡가)	65
사. 언해(두시언해)와 악장(용비어천가)	68
아. 창 가	70
2. 이야기문학	73
가. 한문산문(설·소설·설화·비평·전)	73
나. 한글수필(서간·일기·기행)	74
다. 고소설	76
라. 판소리	79
마. 신소설	81
3.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특징	84
가. 한자문학에서 원문 보이기	84
나. 문장과 문단의 구분하기	85
다. 연과 행의 구분하기	85
라. 옛 문자로 표기하기	85
마. 한자어에 한자를 나란히 쓰기	86
바. 현대적인 낱말로 바꾸기	87
사. 단어와 어구의 풀이 보이기	87
IV.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는 규칙	88
1. 표기에 대한 기존의 규칙들	88

2. 관습적인 표기 규칙 1 - 시간에 따라	94
가. 자연적인 시간	95
나. 인위적인 시간	96
3. 관습적인 표기 규칙 2 - 갈래에 따라	98
가. 갈래의 정형성	98
나. 갈래의 특수성	99
V. 바람직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위한 제언	102
1. 고전문학 교육과 전통성	103
2. 국가 수준에서 학교 · 학급별 표기 유형의 선정	111
3. 수용과 소통을 위한 번역과 현대어역	117
4. 살아있는 고전문학 텍스트의 지향	123
VI. 마 무 리	131
1. 글의 요약과 정리	131
2. 남은 문제 및 전망	135
참 고 문 헌	138
부록1. 교육과정별 고전문학(문학) 교과서의 서지 일람	143
부록2. 교과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153
ABSTRACT	179

< 인용글 차례 >

본문에서

<p><글1-1, ‘서동요’> 15</p> <p><글2-1, 사설시조(‘나모도-’)> 27</p> <p><글2-2, 사설시조(‘두터비-’)> 27</p> <p><글2-3-1·2, ‘차마설’> 34</p> <p><글2-4-1·2, ‘제망매가’> 36</p> <p><글2-5-1·2, ‘구운몽’> 37</p> <p><글2-6-1·2, ‘관동별곡’> 39</p> <p><글2-7-1·2, ‘금수회의록’> 41</p> <p><글2-8-1·2, ‘홍길동전’> 43</p> <p><글2-9-1·2, ‘유산가’> 44</p> <p><글2-10-1·2, ‘동명일기’> 46</p> <p><글2-11-1·2, ‘춘향전’> 48</p> <p><글3-1, 한시(‘푸른 바닷물이’)> 53</p> <p><글3-2, ‘사리화’> 55</p> <p><글3-3-1·2·3, ‘제망매가’> 57</p> <p><글3-4, ‘정석가’> 61</p> <p><글3-5, ‘한림별곡’> 62</p> <p><글3-6-1·2, 시조(‘채너머-’)> 64</p>	<p><글3-7-1·2·3, 시조(‘동짓달-’)> 64</p> <p><글3-8-1·2, ‘사미인곡’> 67</p> <p><글3-9-1·2, 두시언해(‘강촌’)> 69</p> <p><글3-10-1·2, ‘동심가’> 71</p> <p><글3-11-1·2, ‘한중록’> 75</p> <p><글3-12-1·2·3, ‘홍길동전’> 77</p> <p><글3-13, ‘수궁가’> 80</p> <p><글3-14, ‘박타령’> 81</p> <p><글3-15, ‘혈의누’> 82</p> <p><글5-1, ‘사미인곡’> 113</p> <p><글5-2, ‘규원가’> 114</p> <p><글5-3-1·2, 한시(‘송인’)> 117</p> <p><글5-4, ‘진달래꽃’> 124</p> <p><글5-5, ‘빈처’> 125</p>
--	--

각주에서

<p>42) 시조(‘이고 진-’), ‘토끼전’ 14</p> <p>105) ‘해에게서 소년에게’ 127</p>
--

< 표 차례 >

<p><틀2, 국어교과서(4-7차) 서지> 18</p> <p><틀2, 11종 문학교과서(7차) 서지> 19</p> <p><틀3, 이야기문학의 표기유형> 50</p> <p><틀4, 노래문학의 표기유형> 50</p> <p><틀5, 한시의 수록양상> 52</p> <p><틀6, 한시의 표기> 53</p> <p><틀7, 한역가요의 수록양상> 54</p> <p><틀8, 한역가요의 표기> 55</p> <p><틀9, 향가의 수록 양상> 56</p> <p><틀10, 향가의 표기 1> 57</p> <p><틀11, 향가의 표기 2> 60</p> <p><틀12, 고려가요의 수록양상> 60</p> <p><틀13, 고려가요의 표기> 61</p> <p><틀14, 시조의 수록양상> 63</p> <p><틀15, 시조의 표기> 63</p> <p><틀16, 가사의 수록양상 > 66</p> <p><틀17, 가사의 표기> 66</p> <p><틀18, 언해와 악장의 수록양상> ... 68</p> <p><틀19, 언해와 악장의 표기> 69</p> <p><틀20, 창가의 수록양상> 70</p> <p><틀21, 창가의 표기> 71</p>	<p><틀22, 한문산문류의 수록양상> 73</p> <p><틀23, 한문산문류의 표기> 74</p> <p><틀24, 한글수필의 수록양상> 74</p> <p><틀25, 한글수필의 표기> 75</p> <p><틀26, 고소설의 수록양상> 77</p> <p><틀27, 고소설의 표기> 77</p> <p><틀28, 판소리의 수록양상> 80</p> <p><틀29, 판소리의 표기> 80</p> <p><틀30, 신소설의 수록양상> 82</p> <p><틀31, 신소설의 표기> 82</p> <p><틀32, 관습적인 규칙 ① - 자연적인 시간> 96</p> <p><틀33, 관습적인 규칙 ② - 인위적인 시간> 97</p> <p><틀34, 관습적인 규칙 ③ - 갈래의 정형성 > 99</p> <p><틀35, 관습적인 규칙 ④ - 갈래의 특수성 > 101</p> <p><틀36,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문학의 기점> 126</p>
---	--

< 한글초록 >

고전문학 작품의 교과서 표기 유형 연구

- 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신영산

우리 문화 유산으로서의 고전문학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또 교육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에 국어교과서나 문학교과서에 적지 않은 작품이 실려 있다. 그러나 정작 학습자들에게는 외면 받고 있다. 그것은 학습자들의 현재적 정서와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고전문학 작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전문학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는 고전문학의 표기 자체가 낯설은 것이고, 이 점이 고전문학이 학습자들에게 외면당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 따라서 고전문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문제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가 없었다. 고전문학 학습의 당위성과 전통의 계승만을 강조했을 뿐, 텍스트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모습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진행하였다. 7차 문학교과서 11종과 4차부터 7차까지의 국어교과서에서 모든 고전문학 작품을 뽑았다. 그리고 표기 문자와 갈래, 교과서에서의 역할로 분류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 기준에 따라 작

품의 표기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전문학 작품은 다음처럼 표기되어 있었다. 노래문학에서는 대부분 한자 원문을 들었으나, 이야기문학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문학에서 문장과 문단의 나누어 쓰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도 행과 연을 구분하여 쓰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는 고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야기문학은 갈래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따로 한자를 덧붙여 쓰는 것은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것은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모두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문학에서는 낱말과 어구를 풀어 보여주었지만, 보조문학은 그렇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고전문학 작품이 표기되는 원칙을 찾아보았다. 7차 문학 교과서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습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이 표기되고 있었다.

- ① 작품을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옛표기와는 멀어진다.
- ② 편저자들이 작품 이해에 많은 시간을 제공한 작품은 옛표기에 가깝다.
- ③ 갈래가 정형화될수록 옛표기에 가까워진다.
- ④ 작품 또는 갈래가 문학 외적인 특수성을 가질 때 옛표기에 가깝다.

이와 같은 표기 관습에는 일관된 혹은 의식적인 원칙을 찾을 수는 없었다. 고전문학의 표기는 기존의 관습과 편저자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고전문학 작품은 표기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상의 무원칙을 고전문학 교육의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언어적 전통을 이유로 옛표기를 고집한다. 그러나 전통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안에 담긴 삶의 정서여야 한다. 따라서 고전

문학 텍스트에서 옛표기를 하는 목적이 문학적인 접근인지, 국어학적인 접근인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교과서에 실리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국가 수준에서 통일해야 한다. 현재처럼 편저자들의 개인적인 관습에 의존하는 표기는 자칫 상업적으로 왜곡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작품을 표준화하는 일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셋째, 한문학에서 한자 원문을 드는 것이나, 고전문학은 한자나 고어를 써야 한다는 집착은 극복되어야 한다. 교육적이고 문학적인 소용 여부가 표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고전문학은 옛것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에 맞추어 고전문학의 텍스트도 시대와 학습자에 맞게 변해야 한다. 고전문학 교육도 문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표기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

고전문학은 현재의 시점에서든 학습자들에게도 당연히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에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일차적인 장애인 표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글은 이 관점에서 표기 문제를 다루었다.

I. 들 머 리

1. 고전문학 교육의 패러다임

이 글은 고전문학의 바람직한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교과서 11종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방법을 따져 보려 한다. 그런데 교과서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바람직한 표기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미리 밝혀두어야 한다.

첫째는 고전문학이라는 고유의 패러다임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재 고전문학을 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교육이 교사나 학생들에게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며, 넷째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표기 문제에 있다는 점이다.

먼저 고전문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존재하는가를 살펴본다. 고전문학이란 말 그대로 고전(古典)¹⁾의 문학을 뜻한다. 고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뜻을 갖고 있다.

- ① 예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현대와는 시대적으로 다르다.
- ② ①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 ③ ①②를 만족하는 양식으로, 대개 예술 작품을 가리키나 특별한 수식어가 없을 때는 문학작품을 의미한다.

1) 고전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오래 전부터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온 글, 또는 예술 작품 ②옛 책. ③ (주로 ‘~의 고전’의 꼴로 쓰이어) 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저서 매우 중요하고 사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 저서.

『연세한국어사전』, 2002, 139쪽.

이들 중 ②의 내용, 곧 고전이란 현대에도 가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지금까지 전하는 여러 문화유산 중 가장 모범이 되고, 규범이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전해 오기 때문²⁾이다. ③도 당연한 말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이나 국어나 문학교과서에서의 고전이란 일반적인 예술이 아닌 문학으로 범위를 좁혀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따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①의 경우이다. 과연 고전문학이 현대의 문학이 아니라면, 어느 시대의 문학을 말하는 것이며, 그것이 현대의 문학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한 선의 대척점에 있는 서로 상대적인 개념인지, 함께 한 방향을 지향하지만 단지 위치만이 다른 것인지도 분명하지도 않다. 여기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이 시간에 따른 것인지, 거기에 문학 본래의 내용과 양식의 심각한 변화까지 안고 있는 것인지도 생각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³⁾ 이렇듯 분명하지 않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가름인데 여기에 근대문학이라는 개념까지 끼여들어 고전문학의 범위 규정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⁴⁾

2) 여기에도 다른 생각은 있다. 과연 우리에게 참다운 고전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다. 김수업은 우리가 오늘날 고전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가장 손쉽고 틀림없는 잣대인 ‘오랜 시간의 흐름을 견뎌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수업, 「교육정책과 국문학교육」,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455쪽,

3) 사실 우리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양분한 것은 임화의 전통단절론 내지 이식문학론에 기인한 바 크다. 임화는 현대문학(신문학)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이러한 특징을 담고 있는 최초의 문학은 육당의 시와 춘원의 소설에서 비롯하였다고 보고 있다. ①언문일치의 문장, ②예술을 기교로 보지 않고 엄숙하고 신성한 사업으로 여겼는가 하는 작가의 태도, ③교훈적인 내용이 아니라 순수 예술적인 내용, ④고대문학의 이상성에 비해 현실성을 갖는 내용, ⑤신사상의 맹아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 본다.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 장학출판사, 1986, 43-51쪽.

다만 여러 연구 결과나 일반적인 통념을 막론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고전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문학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개념이 아니고, 단지 현대문학의 상대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곧 지금 현대의 문학이 아닌 예전의 문학을 고전문학이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이었기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 시도도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문학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이 안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하나로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4차 교육과정까지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엄격하게 나뉘어 있었고,⁵⁾ 국어II에서는 아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각각 독립된 교과로 분리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던 것이 5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대단원을 두고 그 아래에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문학 작품을 함께 싣기도 했다. 또 국어 과목을 심화시킨

4) 김윤식·김현의 『한국문학사』(민음사, 1978)에서는 영·정조 시대까지 근대문학의 기점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 1988)에서는 1919년 이후를 근대문학으로 보고 있다.

5) 4차 교육과정에 따른 대부분의 현대문학 교과서에서는 현대문학의 기점을 시가는 19세기 말엽의 ‘창가’로, 소설은 20세기 초의 ‘신소설’로 보고 있다.

6)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의 위상의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1955) : 국어I, 국어II(한자·한문)

2차(1963) : 국어I, 국어II(고전·한문)

3차(1974) : 국어I, 국어II(고전·작문), 한문은 독립교과로 신설

4차(1981) : 국어I(표현이해·언어·문학), 국어II(현대문학·작문·고전문학·문법)

5차(1988) : 국어-필수, 문학·작문·문법-선택 및 필수

6차(1992) : 국어-공통필수,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과정별 필수 또는 선택

7차(1997, 2002년 시행) : 국어-국민공통기본교과, 국어생활-일반선택, 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심화선택

문학교과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이런 변화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통합 의의를 담은 5차 교육과정에서 읽어낼 수 있다.

제5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제4차와 크게 달라진 점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구분하던 것을 '문학'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는 한국 문학은 일관된 논리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겠다.

문학사를 고전과 현대로 양분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한국 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나눌 경우 우리 문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나의 문학을 이질적인 두개의 논리로 파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전통 단절론과 이식 문학(화)론이 대두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고전의 가치가 현대에도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문학의 항구성을 몰각하기 쉬운 것은 물론, 한국 문학의 독자성을 잃기 쉽다. 이를 극복하고 한국 문학을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여 전통의 당대성을 확인하는 방법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어 왔던 터이다.⁷⁾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하나라는 인식은 6차 교육과정⁸⁾에서도 그대로 계승⁹⁾되어 더 이상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는 고전문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사

7) 문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5차)』, 1988, 194쪽.

8) 6차 이후의 문학교과서에서는 문학(상)과 문학(하)의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개 (상)은 고전문학 부분을 (하)는 현대문학 부분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학교과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보다는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구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9) 여기에서 참고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에서는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어떻게 가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양분하여 인식하는 방법이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19세기 말까지의 문학을 고전문학으로, 20세기 이후의 문학은 현대문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편의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은 관습적인 차원을 넘어 양자를 별개의 존재로 인식하는 이분법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즉,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이 창조해낸 민족 문학을 서로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넘

라졌던 것이다. 더욱이 7차 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막론하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가름에 대한 설명조차 빠져 있어, 이들을 하나로 보는 것이 이미 당연한 일이 되었다. 그렇기에 지금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현대문학은 고전문학의 발전적 계승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는 고전문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진보된 시각¹⁰⁾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국문학이라는 큰 줄기의 한 부분으로 고전문학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전문학이라는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대학 강의실에서 또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고전문학이라는 용어는 아직도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전히 고전문학을 인정하려는 ‘해묵은 관습’¹¹⁾일 터이다.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는 여럿으로 나누는 일에 익숙한 터이기에, 또 그 나눔에 따라 자신의 공부와 영역 관심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고전문학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고전문학에는 현대문학, 곧 오늘날의 문학과 다른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다른가? 우선 갈래의 차이를 들 것이다. 고려가요나 경기체가 등의 갈래는 오늘날에는 없는 옛날의 노래들이다. 이들은 이미 사라진 갈래들이어서 오늘날의 문학 갈래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차이는 형식으로부터 비롯한다. 연이나 행, 운율과 같은 걸음으로 드러난 여러 형식들이 오늘날의 문학과 다르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루려는 표기의 문제도 여기에 속한다.

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에서, 현대문학은 고전문학의 발전적 계승이 아니라 서구문학의 이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잠복해 있는 것이다.”

김윤식·김종철, 『문학(하)』, 한샘출판사, 1995, 19쪽.

10) 김윤식·김현, 앞의 책, 16쪽.

11) 김홍규, 「한국문학의 위상」,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8, 194쪽.

내용도 다르지 않다. 고전문학을 형성하는 개체의 내용과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여러 요소들은 지금과 다르다. 그 문학이 만들어진 시대를 알지 못하고, 만든 이들을 알지 못한다. 작품에 배어 있는 정취¹²⁾의 아래 깔려있는 사상은 가깝게 다가서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차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전문학은 더욱 낯선 것이 된다. 학생들은 ‘지금’ ‘여기’의 문학에 대해서는 비교적 익숙하지만 ‘그때’ ‘거기’¹³⁾에는 심각한 문학적인 거리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고전문학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것이고, 계승해야 하는 것이라는 판단¹⁴⁾도 고전문학을 더 멀게 만들었다. 고전문학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가 녹아 있는 것인 바 이를 숙연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상¹⁵⁾하도록 유도한 지금까지의 통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교육의 대상과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제화된 전통은 학생들을 고전문학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한 것이다.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문학작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한 역설적으로 오늘날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고 있는 바, 이 역시 고전문학을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비록 문학이라는 큰 영역으로 고전문학을 안기는 하였으나, 이는 문학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문학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다만 현대문학-서구의 문학

12) 박영주,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과 방향정립」, 『국어교육연구』 9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5. 3쪽.

13) 김승호, 『고전의 문학교육적 이해』, 이회, 2000, 66쪽.

14) “한국 문학에 나타난 민족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며, 이를 토대로 세계 문학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바른 위상과 방향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6차)』, 1995, 330쪽.

15) 노진한, 「민족문화의 계승·창조로서의 국문학 교육」, 『국문학과 문학』, 월인, 2001, 331쪽.

이론에 고전문학을 께어 맞추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다르게 보여주면서도 그것을 애써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이론적인 태도였다. 이는 당연히 학습에서 무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고전문학을 대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암호처럼 쓰여진 문자로 만나는 첫 인상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다르기 때문에 꺼렸고, 꺼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이다.

고전문학은 단순히 과거의 문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당연히 수용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럴 때 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고전문학 교육이 감동의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고전문학을 만나는 통로인 고전문학 교과서의 역할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문제를 다루었다.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에 다가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일차적인 장애가 표기 문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기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며, 그 표기의 문제점을 찾아보려는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고민해보려는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고전문학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진 고전문학도 아니고, 관습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고전문학도 아니다. 다만 현대적인 표기가 아닌 옛표기로 이루어진 문학작품을 뜻한다. 곧 절대적인 의미의 고전문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로 쓰는 고전문학인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어떤 형태이든 혹은 위상이든 고전문학 교육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전문학 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고전문학의 패러다임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인식이 당연하게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전문학 교육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뿐만이 아니라 고전문학을 ‘왜’, ‘무엇을’ 교육해야 하느냐로 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는 고전문학 교육을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안주적인 질문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질문으로 나아간 것이다. 곧 예전의 연구는 단순한 교육현상의 기술이었는데, 오늘날의 연구는 고전문학의 이론적 체계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⁶⁾ 대부분의 학문 연구가 먼저 이론의 체계화를 이론 후에 그 이론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한데 반해, 고전문학 연구는 그 순서가 거꾸로 나아간 셈이다. 물론 지금도 ‘어떻게’에 대한 고민이 고전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을 이루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전문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이다. 이 ‘왜’에 대한 답변이 고전문학 교육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왜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근거를 고전문학의 특수성에서 찾았다. 곧 불행했던 한국 현대사는 현실의 질곡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민족주의를 더 드러내야 했다. 그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충·효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고전문학 교육을 통해 충·효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16) 고전문학교육연구회, 「고전문학교육의 연구성과」,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75쪽.

때문이었다.¹⁷⁾

물론 이런 견해는 비판¹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고전문학 교육의 의의를 전통 문화의 창조와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찾으려는 연구는 여전히 큰 힘을 지니고 있다. 이지호는 고전문학이 한국문학의 정통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고전문학 당시의 사유방식과 오늘날의 사유방식을 기교 통합해 거기에서 한국문학의 전통을 규명하고자 했다.¹⁹⁾ 김대행도 고정된 역사적 실체로 존재하는 고전문학이 현재에 어떤 효용을 주는가에 대한 이용후생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한 방법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²⁰⁾

여기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김홍규의 연구가 등장한다. 김홍규는 고전문학의 이해를 ‘역사적 원근법’이라 명명하고, “고전문학 교육을 메마른 고증학과 지식주의의 압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러면서도 고전문학의 역사성이 학습자의 문학 이해와 성장에 의미 있는 요소로서 체험되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 요구 사이에 고전문학의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²¹⁾ 고 하여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변화를 통해 역사적 연계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²²⁾

17) 앞의 글, 77쪽.

18) 문학교육연구회에서는 고전문학의 이러한 경향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고전문학 교육은 군사정권의 이데올로기 주입수단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민주화선언 등 급변하던 교육적인 사건을 앞두고 나왔던 극단적인 선택이었다.

문학교육연구회, 『삶을 위한 문학교육』, 연구사, 1987, 210쪽.

19) 이지호, 「고전문학의 자리매김을 위한 시론」, 『함께여는국어교육』 19호, 전국국어교사모임, 1994.

20) 김대행, 「고시조와 문학교육」, 『열르나 이응호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1987.

21) 김홍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한신문화사, 1992.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대출판부, 2002), 309쪽에 재수록됨.

고전문학의 패러다임이 정해지고, 그것을 교육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여러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전문학교육연구는 필연적으로 교재나 교수-학습에 관련한 연구가 될 것이다. 고전문학 교육의 ‘무엇을’과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때 ‘무엇을’은 고전문학 교육에서 쓰이는 교재 혹은 그 교재에 실린 개별 작품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문학사 연구나 갈래 연구, 또는 고전문학작품에 대한 해석방법론의 연구로 이어진다.

고전문학 작품의 해석과 관련된 초기의 연구로는 이상익을 들 수 있다. 이상익은 고전의 전통성과 현대화 문제와 관련하여 고전의 해석의 기준을 설정²³⁾하였다. 신희숙도 문학이론을 기저로 하여 고전문학 교육의 내용은 문학이론으로부터 주요 개념과 원리들을 선정하고 조직한 후, 이러한 바탕 위에서 문학교육의 내용이해에 가장 적절한 문학작품을 선정해야 한다²⁴⁾고 하였다.

한편 염은열은 효용론적인 관점에서 고려속요를 분석하여 고려속요가 갖는 현재적·교육적 의미를 모색²⁵⁾하려 하였다. 이경숙은 전통극과 현대극을 아울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안하여, 주체자의 개념과 등장인물의 언어를 해석의 개념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맥락으로 문학작품의 해석방법론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논의도 있었는데 고전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작품의 구조를 이해 분석한 박삼서²⁶⁾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별로 고전문학교과서를 분류한 조대현²⁷⁾이나 조선 시대에서, 개화기, 일제 시대

22) 김홍규의 연구는 고전문학 교육의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23) 이상익, 「고전해석의 이론」,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71.

24) 신희숙, 「심청전의 문학교육적 가치분석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0.

25) 염은열, 「고려속요의 미적 구조에 관한 연구-내적 형식의 ‘이야기성’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3.

26) 박삼서, 「문학교육의 도교사상적 배경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에 실린 소설 제재를 다뤄 통시성을 이룩한 소설 교육사를 지향한 최현섭²⁸⁾도 ‘무엇을’을 탐구한 결과였다.²⁹⁾

고전문학 교육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일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과 관련한 문제이다. 앞서 말한 대로 고전문학 교육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진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금도 교육대학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고전문학 교육 연구는 이 ‘어떻게’에 관련된 연구라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런 연구는 그 동안의 고전문학 교육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가나 산문인 갈래에 따른 수업 방법뿐 아니라, 감상이나 창작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진정한 고시조 학습방안을 모색한 심혜숙³⁰⁾, 고시조 감상을 통해 길러진 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분석한 유부귀³¹⁾, 고전소설의 교육방법론 구안을 목적으로 <남원고사>의 작중 인물 간의 대화 양상을 분석한 이지호³²⁾, 설화의 수

27) 조대현, 「고전문학교과서의 흐름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1989.

28) 최현섭, 「소설 교육의 사적 고찰-국어과 교과서의 소설 교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8.

29) 이외에도 고전문학교과서의 작품 수록 양상을 분석한 글들은 많다. 몇 편의 글을 더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장계근, 「고등학교 고전문학교과서 연구」, 강원대 석사논문, 1988.

전동수, 「고전 교과서 분석을 통해 본 문제점」, 부산대 석사논문, 1977.

조연희, 「현행고전문학교과서 분석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6.

30) 심혜숙, 「고시조 학습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 - 고등학교 국어I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8.

31) 유부귀, 「고시조 감상을 통해 본 중학생들의 의식 구조 연구 - 바람직한 고시조 지도 방안」, 숙명여대 석사논문, 1988.

32) 이지호, 「고전소설의 대화유형 연구 - <남원고사>의 대화 유형과 내적 형식의

록 현황을 분석한 정인관³³⁾,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상구³⁴⁾,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한 토의식 수업모형을 제시한 강현주³⁵⁾, 읽기 중심의 교수-학습을 지양하고 텍스트의 재구를 통해 보고 듣는 고소설의 학습방안을 찾은 김동환³⁶⁾, 소집단 토의활동으로 소설 교육 모형을 제시한 전병화³⁷⁾, ICT를 이용한 협동학습을 제기한 박기혁³⁸⁾ 등을 그 성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다루려는 고전문학 교육에서 텍스트로 사용되는 작품의 표기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여러 글이나 연구에서 잠깐씩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표기만을 연구한 결과는 찾기가 힘들다.

다만 다행하게도 박성종의 연구³⁹⁾가 있어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관심을 갖는 이들의 숨을 틔워준다. 박성종은 현재 고전문학의 작품 표기의 여러 문제점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곧 첫째, 고전작품을 현대어로 옮기더라도 원전과 함께 신고, 음운과 어법에 관련된 사항을 학습목표에 포함할 것이며, 둘째, 영인본을 통한 원전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고어의 표기와 문법에 대해서도 학습이 필요하겠으며, 셋째, 한문의 원문을 보여주되 토를 달아 학생들의 지적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관련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4.

33) 정인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수용 제재의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87.

34)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7.

35) 강현주,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의 지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6.

36) 김동환, 「춘향전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37) 전병화, 「협동학습을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38)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문학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1.

39) 박성종,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것이다.

하지만 박성종의 고전문학 표기 연구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국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때문에 표기에 따라 학습자들의 문학 이해와 감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표기가 가장 교육적으로 올바른지를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따른다.

3.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 글은 고전문학 교육에서 쓰이는 작품의 교과서 표기를 살피기 위한 글이다. 그렇기에 제일 먼저 살필 문제는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정규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는 다양하다.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고, 이들 교과서는 각각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다르다. 1946년 교수요목기부터 시작하여 현재 7차 교육과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데, 교과서도 이런 교육과정을 그에 따른다. 또 고등학교에서는 1종 교과서인 국어교과서 이외에 2종 교과서인 문학교과서가 따로 있다. 물론 문학교과서는 검인정⁴⁰⁾이기 때문에 저자별로 출판사별로 여러 종의 다른 교과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뉘어진 교과서들은 학교급에 따라 가로, 과목에 따라 세로, 교육과정에 따라 높이가 되어 하나의 육면체를 이루고, 그 상자 안에는 무수히 많은 교과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들 중 이 글에서 다루려는 교과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급별 교과서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중학교의 경우 국어과에 2종 검인정 교과서가 없이 학기별로 짜여진 여섯 권의 국정 국어교과서만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교과서들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의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대어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문학만의 정체성을

40) 여기에서 교과서의 이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1종이란 교과서가 한 종류만이 있다는 것이고, 2종이란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이란 국가에서 저작하는 교과서이고, 검인정이란 국가가 발행하지는 않고 다만 심의하는 교과서를 뜻한다. 대개 1종과 국정, 2종과 검인정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다만 문법교과서는 예외가 될 것이다. 이 교과서는 1종이지만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이다.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⁴¹⁾ 아래는 이를 잘 보여준다.

< 글 1-1, '서동요' >⁴²⁾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 가 두고
맛둥(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네

- 『7차중학국어 2-1』, 99쪽.

따로 원문을 보이지 않는 이 작품은 거의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만 가지고 볼 때는 고전문학 작품임을 알기 힘들다. 다른 고전문학 작품⁴³⁾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

41)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고어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다. 곧 “[8-국-(2)] 언어의 역사성을 안다.”라는 항목 아래, 【기본】에서 “옛말과 현재 말을 비교하여 옛말과 다른 현재의 말을 조사하여 발표한다.”와 【심화】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에서 옛말의 흔적을 찾는다.”라고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1999, 80-81쪽) 그러나 이는 국어지식(언어)의 영역에서 접근한 것이지, 문학 영역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

42) 이 글에서 작품을 나타내기 위해 < 글 0-0 >으로 표시한 숫자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숫자는 이 글의 장을 말한다. 두 번째 숫자는 그 장에서 몇 번째로 제시한 작품인가를 보인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숫자는 같은 작품이라도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곧 “2-3-1”의 의미는 II장의 셋째 작품이며 첫째 표기임을 뜻한다. 아울러 작품의 제목이나 출전은 모두 한글로 적었음을 여기에서 밝혀둔다.

43) 몇 작품을 더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
늙기도 설워라커늘 짐을조차 지실까 『7차중학국어 2-1』

거북이가 돌아와 용왕에게 아뢰니, 용왕이 불쌍히 여겨 후하게 장사를 지내 주었다. 그러나 용왕에게는 산중의 하찮은 토끼가 수궁의 군신을 속인 죄를 묻기

들은 거의 현대어와 다름없는 표기를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고등학교 교과서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느 시기의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 이 글은 바람직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어떻게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예전에 어떻게 표기했는가는 그리 크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현재 7차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정에는 국어, 국어생활, 문학, 화법, 문법, 독서 등 모두 6가지 과목이 있다. 이들 중 우리가 관심을 갖는 고전문학 작품은 주로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고, 국어교과서와 독서교과서에 일부 실려 있다. 그런데 독서 교과서의 글은 다양한 갈래의 글이 섞여 있는 글이어서, 문학 작품이 많지 않다.

그래서 주로 국어교과서와 문학교과서⁴⁴⁾를 중심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국어교과서의 경우 (상) (하) 두 권뿐이고, 실린

위해서 토끼를 잡아들여야 한다는 여러 신하들의 상소가 올라왔다. 하지만 용왕이 이르기를,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다. 과인이 하늘의 명을 모르고 무고한 토끼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으니 어찌 현명하다 하겠소? 그대들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고는 태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죽으니, 그때 용왕의 나이 일천 팔백 세였다. 태자와 여러 신하들은 애통해 하며 성대하게 장사를 치르니 그 광경이 매우 엄숙하였다. 『7차중학국어 2-1』

- 44) 문학교과서는 모두 (상) (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하 교과서를 보일 때는 약호 뒤에 (상) 또는 (하)를 붙여 출전을 나타낸다. 이를테면 ‘금성출판사 『문학(상)』 교과서 12쪽’은 ‘금성(상), 12쪽.’으로 표시한다.

고전문학의 작품수가 적어 통계로 이용하기에는 부족하다.⁴⁵⁾ 다만 국어교과서가 교육부 저작인 국정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이거나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표기의 원칙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어교과서의 범위를 더 확대하였다. 곧 4차 교육과정 이후의 모든 국어교과서를 기본 틀로 삼았다.⁴⁶⁾ 그리고 그 틀에서 나온 기준으로 하고, 따라서 이 글은 4차 교육과정 이후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를 기본 틀로 하고, 김인정 문학교과서 11종⁴⁷⁾의 대상으로 하여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살펴보기로 하였다.⁴⁸⁾

45) 현행 국어교과서 (상), (하)에는 모두 28편의 고전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중 ‘훈민정음’이나 ‘동국신속삼강행실도’처럼 본격적인 문학 작품으로 보기 어려운 작품이 4편이고, ‘시집살이요’나 ‘봉산탈춤’등 명백히 구비문학이어서 표기 문제를 따질 수 없는 작품도 4편이어서, 실질적인 고전문학 작품은 20편에 불과하다.

46) 이 때부터 교과서가 하나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4차 이후의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전까지는 인문계용 교과서와 실업계용 교과서로 나뉘어 있었다.

47)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따르면 현재 심의를 통과한 문학교과서는 모두 18종이다. 1차로 2002년 7월 20일 11종의 교과서가 교과서 검정에 합격하였고, (59-bbs2_7-0-2002-12-06.hwp) 2차로 7종의 교과서가 2002년 12월 12일 검정에 합격하였다. (63-bbs2_7-0-2003-01-29.hwp) 이 글에서는 1차로 합격한 11종의 교과서만 다루었다. 2차로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경우에는 아직 시중에 출간되지 않은 관계로 교과서의 수집이 어려워 부득이 이 연구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로 2차 7종의 교과서 서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는 편저자명.

도서출판 태성(김상태·송현호·김혜니·김유중·황도경·조혜란), (주)교학사(김대행·김중신·김동환), 형설출판사(박호영·한승주), 도서출판 지학사(박갑수·김진영·이종덕·이승원·박기호), (주)지학사(권영민), 청문각출판사(최웅·유태수·김용구·이대범), 대한교과서(주)(오세영·최래옥·유학영·남궁환·남기혁·유순태·송규각·정일형)

48) 하지만, 이 두 과목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국어는 ‘국민 기본 공통 과목’으로 언어 사용 능력이 강조된 과목이고, 문학은 ‘심화 선택 과목’이다. 따라서 이 두 과목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국어’의 문학작품은 아무래도 문학의 독자성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국어자료’로서의 면이 강조되고, ‘문학’의

대상이 된 4차 이후의 국어교과서와 7차 11종의 문학교과서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들 교과서를 아래와 같은 약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 표 3, 국어교과서(4-7차) 서지 >

번호	교육과정	구분	간행연도	펴낸 곳	약호
1	4차	1	1984	한국교육개발원	4차국어(1)
2	4차	2	1985	"	4차국어(2)
3	4차	3	1986	"	4차국어(3)
4	5차	(상)	1990	서울대학교 1종도서 개발위원회	5차국어(상)
5	5차	(하)	1990	"	5차국어(하)
6	6차	(상)	1996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 연구소	6차국어(상)
7	6차	(하)	1996	"	6차국어(상)
8	7차	(상)	200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7차국어(상)
9	7차	(하)	2002	"	7차국어(하)

문학 작품은 문학의 독자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서인석, 「고전산문 연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39쪽.

< 틀 4, 11종 문학교과서(7차) 서지 >

번호	교과서	출판사	편저자	간행연도	약호
1	문학(상)	교학사	구인환, 구자송, 정충권, 임경순, 하희정, 왕동원	2002	교학(상)
2	문학(하)	"	"	"	교학(하)
3	문학(상)	금성출판사	박경신, 김성수, 이용두, 안학서,	2002	금성(상)
4	문학(하)	"	"	"	금성(하)
5	문학(상)	두산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이대욱, 경종록	2002	두산(상)
6	문학(하)	"	"	"	두산(하)
7	문학(상)	디딤돌	김윤식, 김종철, 맹요재, 진중섭, 허익	2002	디딤(상)
8	문학(하)	"	"	"	디딤(하)
9	문학(상)	문원각	한철우, 김명순, 김충식, 남상기, 박영민, 박진용, 염성섭, 오택환	2002	문원(상)
10	문학(하)	"	"	"	문원(하)
11	문학(상)	민중서림	김창원, 권오현, 신재홍, 장동찬	2002	민중(상)
12	문학(하)	"	"	"	민중(하)
13	문학(상)	블랙박스	한계진, 신범순, 박운우, 김종환, 노진한	2002	블랙(상)
14	문학(하)	"	"	"	블랙(하)
15	문학(상)	상문연구사	강황구, 권형중, 김대용, 박정곤, 이준	2002	상문(상)
16	문학(하)	"	"	"	상문(하)
17	문학(상)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조남현, 정성배, 조세형, 장수익, 배성환	2002	중앙(상)
18	문학(하)	"	"	"	중앙(하)
19	문학(상)	천재교육	홍신성, 박종성, 김강태	2002	천재(상)
20	문학(하)	"	"	"	천재(하)
21	문학(상)	한국 교육미디어	김병국, 윤여탁, 김민수, 조용기, 최영환	2002	한국(상)
22	문학(하)	"	"	"	한국(하)

이들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글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교과서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모두 뽑아내고, 이를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으로 나누었다. 그 뒤 III장에서는 원문의 실림 여부, 문장과 문단(연과 행)의 나뉘임 여부, 고어의 쓰임 여부, 한자를 나란히 쓰는가의 여부, 현대어로 바꾸어 쓰고 있는가의 여부, 낱말 및 구절 풀이 여부 등을 판단하여 통계를 내었다. IV에서 그 통계를 기초로 하여 현재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보았다. V에서는 이 규칙을 바탕으로 하여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II. 표기 유형을 찾기 위한 분류 기준의 설정

II장에서는 문학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유형을 찾기 위해 작품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글의 갈래와 위상에 따라 나눈 것이고, 또 하나는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다. 이들 기준에 따라 한문학의 번역과 고전문학의 현대어역⁴⁹⁾에 대한 여러 표기 유형을 살펴 보았다.

1. 글의 성격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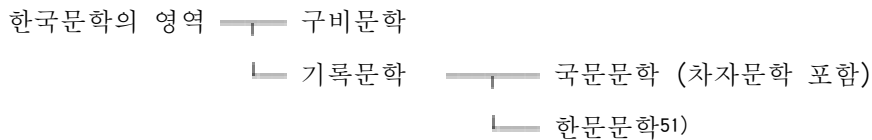
고전문학 작품은 표기는 작품의 성격이나 갈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시가 문학과 산문 문학의 표기가 같을 수 없으며, 한문문학과 한글문학이 같을 수 없다. 또한 각 단원에서 소단원으로 제시된 중심 작품과 단원의 길잡이

49) 한자문학을 한글문학으로 옮기는 것은 당연히 번역이다. 그러면 고어를 현대어로 옮기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여러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본다. 번역(翻譯) - 어떤 나라의 말이나 글을 다른 나라의 말이나 글로 바꾸어 옮기는 것. 주석(註釋) - (날말이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는 것, 또는 그 풀이나 글. 주해(註解) -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주를 달아 풀이하는 것, 또는 그 글이나 그 주석. 해석(解釋) - (다른 나라말을 자기 나라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 또는 그 설명. 해독(解讀) - 뜻을 풀어서 읽는 것. 해설(解說) - 사물이나 사건 등의 뜻을 풀이한 설명. 풀이 -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상 『연세 한국어 사전』) 이 중 어떤 것을 쓰더라도 시원하지가 않다. 번역이나 해석이란 다른 나라의 말을 우리말로 옮기는 말임을 뜻하는데, 옛말은 다른 나라 말이 아니다. 해독이나 해설, 풀이는 단순히 단어나 구절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석의 뜻 이상은 아닌 듯하다. 그렇기에 대개 ‘옮긴다’는 동사를 사용할 뿐이다. 이처럼 고전을 현대어로 옮기는 작업을 뜻하는 단어도 변변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아쉬운 대로 이 글에서는 ‘현대어역’이라고만 했다.

나 마무리에서 맛보기용이나 정비용으로 제시된 작품에서 표기 기준이 같지는 않을 것이다.

가. 국문학사상의 갈래⁵⁰⁾에 따른 분류

먼저 국문학사상의 갈래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을 분류해 본다. 일반적으로 한국문학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한국문학은 표현 수단이 입말이나 글말이나에 따라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으로 나누고, 다시 기록문학은 표기 수단이 한글이나 한자나에 따라 국문문학과 한문문학⁵²⁾으로 나누고 있다.

50) 갈래는 장르의 다른 표현이다. 처음 갈래란 말은 1978년 김수업이 시작했으며, 1980년 조동일에 의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진 후 일반화되었다.[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1982, 27쪽] 하지만 모든 유의어들의 관계에서 그러하듯 장르와 갈래의 용어에서는 어감의 차이를 넘어서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대개 장르는 문학이론이나 서구의 문학을 말할 때 주로 쓰이는 듯 하고, 갈래는 고전문학의 개념을 포함한 국문학(사) 분야를 말할 때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갈래라 는 말을 쓰기로 한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갈래는 개별갈래인 작은 갈래(장르중)를 뜻한다.

51)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8, 22쪽.

52) ‘국문’ 또는 ‘한문’은 주로 문장 또는 문체의 뜻을 안고 있다. 반면 ‘한글’ 또는 ‘한자’는 문자의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표기의 문제를 따지는 이 글에서는 ‘한글’ 또는 ‘한자’가 더 어울려 보인다. 그래서 이후로는 ‘한글문학’ ‘한자문학’으로 통일한다.

그런데 이 분류에서 표기의 문제만을 따질 때에는 구비문학⁵³⁾을 제외할 수 밖에 없다. 글로 기록된 문학이 아니라 말로 전해지는 문학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교과서에는 적지 않은 구비문학 작품이 실려 있고⁵⁴⁾, 이들 작품들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는 현재가 아니라 분명히 과거이다. 그러나 이들 구비문학 작품들은 구연과 채록이라는 과정을 거쳐 문자로 표기된 것이다. 그렇기에 처음이 언제였든지 간에, 문자로 기록된 구비문학은 항상 현재형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

이런 까닭으로 이 글에서는 구비문학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구비문학 작품 중 설화와 판소리의 표기는 살펴보았다. 설화는 『삼국유사』 이래 오랜 표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것을 중시했으며, 판소리는 소설로의 전환이 있었기에 의미 있는 표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은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문학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다시 국문학의 갈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⁵⁵⁾

서정 - 고대가요, 향가, 고려속요, 시조, 잡가, 신체시, 현대시, 한시
 교술 - 경기체가, 약장, 가사, 창가, 가전체, 몽유록, 수필, 서간, 일기, 기행, 비평

53) 구비문학에는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수수께끼 등이 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7, 9쪽] 이들 중 이 글에서는 민요와 무가, 민속극, 수수께끼를 구비문학의 영역으로 보고 다루지 않았다. 민요는 구연되지 않으면 존재 의의가 없을 뿐더러[앞의 책, 221쪽] 현재도 진행형인 갈래이기 때문이며, 무가와 민속극은 최근에서야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옛표기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54) 11종의 문학교과서에는 22편의 가면극(인형극)과 25편의 민요, 5편의 무가가 실려 있고, 수수께끼류는 실려 있지 않다.

55) [김문기, 「한국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8, 23쪽.]에서 구비문학 갈래를 뺀 것이다.

서사 - 판소리, 신화, 전설, 민담, 소설

희곡 - 가면극, 인형극, 창극, 탈춤, 신과극, 현대극⁵⁶⁾

이상과 같이 갈래를 나눈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작품의 표기 유형만을 따지는 이 글에서 위와 같은 세밀한 갈래 구분은 필요하지 않다. 표기 유형이 비슷한 갈래들을 묶어 몇 개의 갈래군으로 살펴보아도 충분하다.

이에 이 글에서는 표기 유형과 갈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개의 갈래군으로 작품들을 나누었다. 곧 표기 문자에 따라 한글표기와 한자표기를 하나의 기준으로 두었고, 언어 요소들의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고 가창되었던 노래(시가)문학과 그것이 없는 이야기(산문)문학⁵⁷⁾을 또 다른 기준으로 두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표기 유형을 설정하였다.

	한자표기	한글표기
노래문학	①	③
이야기문학	②	④

①은 한자로 표기한 노래문학이다. 대표적인 갈래로는 한자문학인 한시가 있다. 또 본래 구비문학이었지만 기록할 우리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기록한 황조가와 같은 고대가요, 민요를 한역한 소악부(악부시)⁵⁸⁾ 등이 여기에

56) 가면극이나 인형극, 탈춤 역시 다루지 않았다. 구비문학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57) 김수업은 큰갈래인 ‘서정’을 ‘노래문학’으로 ‘서사’를 ‘이야기문학’으로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 말하는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은 김수업과 같은 큰갈래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시가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한 것이다.

김수업, 『배달문학의 갈래와 흐름』, 현암사, 1992.

58) 몇 편 되지 않는 소악부이지만 국문학사상 의의는 크다. 곧, 소악부는 “신라 향가

속한다⁵⁹⁾. 향찰로 기록된 향가도 넓게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큰갈래로는 ‘서정’ 문학에 속하는 것들이다.

②는 한자로 표기한 이야기문학이다. 『삼국유사』의 여러 설화들과 김시습과 박지원의 한문 소설, 설(說)·전(傳)·기(記)와 같은 다양한 한문 문류들이 여기에 속한다. 큰갈래로는 ‘서사’와 ‘교술’에 속하는 것들이다.

③은 한글로 표기한 노래문학이다. 국문학사상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시가 문학이 여기에 속한다. 곧, 고려가요, 경기체가, 시조, 사설시조, 가사, 창가 등의 갈래로 대부분 ‘서정’ 문학과 일부 ‘교술’ 문학⁶⁰⁾이 여기에 속한다.

④는 한글로 표기한 이야기문학이다. 일기와 서간, 기행, 수필 등의 ‘교술’ 문학과 소설, 판소리, 신소설⁶¹⁾ 등의 ‘서사’ 문학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①~④ 중 어느 곳에도 넣기 곤란한 갈래도 있다. 한글과 한자의

와 접목되지 못했던 한문학이 이제 고려속요와의 접목을 통해서 우리나라 문학으로서의 한문학의 토착화라는 전통적 명제의 성취과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던 것[이우성, 「고려말기 소악부-고려속요와 사대부문학」,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 9-10쪽]이다.

59) 이들 노래를 고대가요나 소악부라는 별도의 갈래로 보지 않고, 한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병주, 『한국한시의 이해』, 민음사, 1987]. 갈래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곧, 별도의 국문학 갈래로 보는 것은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이나 발생 과정을 중시한 것이고, 한시로 보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일체성만을 따지는 것이다.

60) 노래문학에서 특히 갈래 시비가 이는 것은 경기체가와 가사이다. 조동일은 이들을 교술 갈래로 보았고[조동일, 『한국문학통사1』, 27쪽], 김홍규는 중간·혼합적인 갈래로 보았다[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8, 115-125쪽]. 이 글에서는 노래문학으로 함께 처리했다.

61) 이 글에서는 신소설은 표기분석에 포함하였으나 신체시는 포함하지 않았다. 교과서마다 신체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체시라고 할 만한 작품으로 오직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만 실려 있을 뿐이어서 통계를 잡기에는 무리가 있다.

겹표기가 이루어진 문학이다. 향가는 차자 표기 방법인 향찰과 양주동 등에 의한 옛표기가 함께 존재하다. 한자 표기라 하더라도 한문 문법에 따른 표기도 아니어서 본격적인 한자문학으로 보기도 어렵다. 악장인 용비어천가는 우리말 옛표기 외에 4언시로 된 한시 원전이 나란히 실려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글 표기와 한시 원문과의 관계는 내용이나 짜임에서 다른 한자문학의 그것과는 다르다⁶²⁾.

두시언해도 마찬가지이다. 한시 원전이 있고 여기에 대한 한글 표기가 따로 존재한다. 이 둘의 관계 역시 한시에 대해 일반적인 한글 번역의 의미가 아니어서 위의 네 경우 중 어느 하나로 둘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이 글에서는 이들 갈래들, 곧 향가와 악장 언해류들은 모두 노래문학으로 분류하고 다루었다.

나.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의 분류

이 글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든 고전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고 교과서에 실린 모든 작품의 역할과 위상이 같은 것은 아니다. 곧 교과서에서 소단원으로 제시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단원의 앞부분(단원의 길잡이 등)이나 뒷부분(학습활동이나 단원의 마무리, 읽어보기)에서 제시되는 작품도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작품들은 뒤엎 것들이다. 분명히 교과서에서 텍스트로 제시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독립된 작품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문학 텍스트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⁶³⁾.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

62) 김수업, 「<용비어천가> 가락이 지닌 뜻」,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307-308쪽.

63) 이들 작품들은 글 전체가 실린 경우는 거의 없고, 일부만이 실려 있다.

구에서 이들 작품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하지만 표기 유형을 따지는 이 글에서는 이들 작품들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이들 작품에 대한 표기가 저자에 따라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단원으로 든 작품은 주요작품, 그 밖의 작품은 보조작품으로 따로 명명하였다. 다음은 교과서에서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이 제시된 한 예를 보인 것이다.

< 글 2-1 >

(4) 사설시조

▣ **미리생각(학습목표)** - ……(생략)……

나모도 돌도 바히 업슨 뫼헤 매게 췌 가토리 안과

大川(대천) 바다 한 가운데 一千石(일천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돛대도 짓고 치도 빠지고 브람 부러 물결치고 안개
 뒤섯게 즈자진 날에 갈길은 千里 萬里(천리만리) 나쁜디 四面(사면)이
 거머어득 저뫼 天地 寂寞(천지 적막) 가치노을 췌논디 水賊(수적) 만
 난 都沙工(도사공)의 안과

엇그제 님 여훤 내 안이야 엇다가 ㄱ을훤리오.

▣ **도움자료(시어, 시구연구)** - ……(생략)……

▣ **학습의 길잡이**

- 작품수용 - ……(생략)……
- 심화학습 - ……(생략)……

▣ **참고자료** - ……(생략)……

- 『금성(하)』, 134쪽.

< 글 2-2 >

▣ **학습활동**

2.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을 비교하여 형식상의 공통점과 표현상의 차이점을 말해보자.

두터비 프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드라 안자

것년 山(산) 바라보니 白松骨(백송골)이 써 잇거늘 가슴이 금즉호여 풀덕
 뛰여 내뎡다가 두협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센 널식만정 예혈질 번호패라.

- 『금성(하)』, 135쪽.

< 글 2-1 >에서는 하나의 작품에 대해, 학습목표, 시어 및 시구연구, 작품의 수용, 심화학습(사설시조의 문학사적 특징), 참고자료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 글 2-2 >에서는 작품에 대해 하나의 학습활동만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 글 2-1 >에 포함된 작품을 주요문학으로, < 글 2-2 >에 포함된 작품을 보조문학으로 본 것이다.

아래는 문학교과서에서 주요작품과 보조문학의 위치를 살펴보기 위해 11종의 문학교과서의 짜임을 보인 것이다.

- * 교학사 : 단원의 길잡이 - 학습목표 - 미리 해보기 - **활동** - 학습 활동 - 작품 안으로(작품해설) - 작품 밖으로(작품해설) - 단원의 마무리
- * 금성출판사 : 단원의 길잡이 - 들어가기 전에 - 학습목표 - 수행과제 - **작품** - 학습의 길잡이 - 학습활동 - 단원의 마무리 - 보충·심화 활동 - 대단원을 마치며 - 쉬어가는 터
- * 두산 : 대단원 길잡이 - 준비 활동 - 원리 학습 - **작품** - 작품 속으로 - 수용의 내면화 - 창작 연습하기 - 마무리 하기(단원 종합 평가 활동, 생각 나누기, 수행 평가, 실전 창작교실) - 한 걸음 더(튼튼 다지기, 더 해보기)
- * 디딤돌 : 단원의 길잡이 - 단원 도입글 - 단원 학습을 통해 - 준비 학습 - 소단원 도입 - **작품과 참고자료** - 학습활동 - 창작의 실제 - 정리 학습 - 단원의 마무리
- * 문원각 : 단원을 열며 - 감상하기 전에 - **작품** - 학습 활동(감상과 반응, 감상 넓히기) - 창작하기 - 단원의 마무리
- * 민중서림 : 단원의 길잡이(단원안내, 단원목표, 생각열기) - 원리학습(학습 목표, 미리 살펴보기, 원리학습, 익히기/다지기) - 수용창작활동(길라잡이, **작**

- 품 읽기, 익히기) - 단원의 마무리(되돌아보기, 자기 진단, 더 나아가기)
- * 블랙박스 : 이 단원을 열며 - 생각 열기 - 준비 학습 - 작품 읽기 - 정리하기 - 더 생각해 보기 - 단원의 마무리(스스로 평가하기, 되짚어 보기, 생각 넓히기)
 - * 상문연구사 : 단원의 길잡이 - 준비학습 - 실마리 찾기 - 미리 생각하기 - 소단원 - 학습활동 - 매듭짓기 - 스스로 평가하기 - 단원의 마무리
 - * 중앙교육 : 대단원 길잡이 - 들머리 학습 - 본문 전개 - 작품 감상 - 중단원 학습 활동 - 대단원 마무리(대단원 정리, 자기 점검, 도움닫기, 멀리 뛰기)
 - * 천재교육 : 미리 떠올려보기 - 이론 학습 - 본문 - 작품 수용의 길잡이 - 참고자료 - 더 읽고 생각하기 - 내용학습 - 적용학습 - 창작활동 - 정리 및 평가 - 보충학습 - 심화학습
 - * 한국교육미디어 : 단원 들어가기 - 앞서보기 - 학습 목표 - 작품 - 이해하기 - 확장하기

여기에서 밑줄 그은 부분이 교과서의 소단원으로 주요작품이 들어 있는 부분이다. 그 밖의 부분에 실린 작품들은 모두 보조작품으로 보았다.

2. 표기 유형에 따른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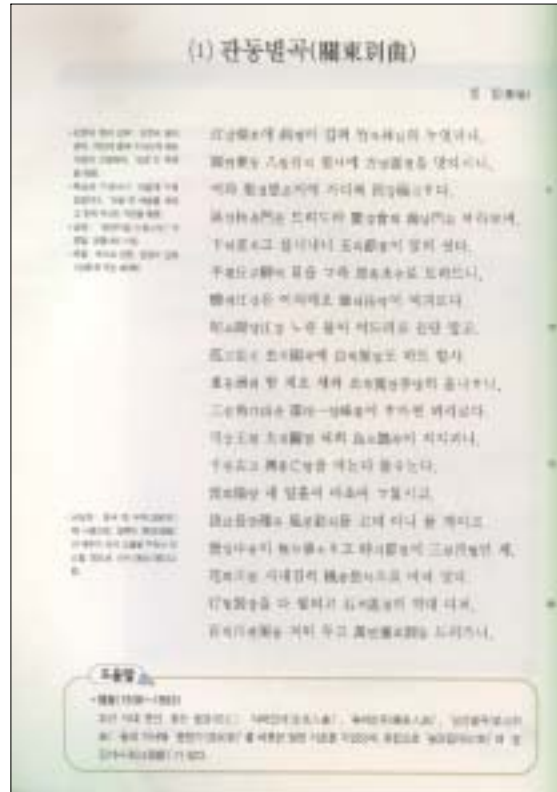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유형을 살필 때, 먼저 살펴볼 것은 예전 책과 오늘날 책의 체제의 차이이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관동별곡’이 실려 있는 두 책의 모습을 시각화하여 들어 보인 것이다.

< 그림 1, 관동별곡(『송강집』) >



64)

< 그림 2, 관동별곡(국어교과서) >



< 그림 1 >은 『송강집』을 옮긴 것이고 < 그림 2 >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어교과서(『7차국어(하)』, 228쪽)를 든 것이다. 이 둘에서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⁶⁵⁾의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64) <http://kr.encycl.yahoo.com>

65) 이 글에서 말하는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표기 방법이나 유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고어나, 한자, 어휘 등을 모두 고려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옛 체제에 가까운 것을 ‘옛표기’라 하였고, 그 반대의 개념이 ‘현대적 표기’이다. 다음에 언급되는 ‘고어 표기’는 말 그대로 ‘ㅁ’ 등의 옛문자를 사용한 표기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옛표기’와는 구별된다.

보이는 것처럼 『송강집』은 오른쪽을 묶고 세로쓰기를 하는 반면에, 교과서는 왼쪽을 묶고 가로쓰기를 하고 있다. 또한 옛 책에서는 띄어쓰기가 없고⁶⁶⁾, 문장부호도 없는 반면에, 현대 교과서에서는 맞춤법 통일안에 근거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있으며, 문장부호를 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유형을 살필 때에는 이런 차이까지 깊게 따질 필요는 없다. < 그림 2 >와 같은 현대적 표기는 20세기 이후 굳어진 것⁶⁷⁾으로, 표기의 유형에서 더 이상 고려할 것들이 아니다. 현재 출간되는 모든 책⁶⁸⁾들은 당연히 왼쪽을 묶는 가로쓰기를 하고 있고, 맞춤법에서 규정한 대로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들도 당연히 이런 체제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이런 문제, 곧 오른쪽 묶기와 세로쓰기, 띄어쓰기와 문장부호의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지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것들 이외에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의 다름⁶⁹⁾은 다른 곳에서 나타난

66) 다만, 용비어천가에는 다음과 같이 현대맞춤법의 띄어쓰기 공간에 어느 정도 일치하는 일정한 부호가 사용되어 있기도 하였다. “불휘기픈남곤。브르매아니뫼썩。꽃도코。여름하느니”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16-17쪽.

67) 이희승은 1937년 쓰여진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에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처럼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하여 역설하고 있다. “종래의 작대기글로 쓴 것은 누구나 보기 어려워하고, 더구나 현대인은 그런 문장을 대할 때에, 눈살부터 찌푸리고, 골머리를 앓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중략)…… 띄어 쓰는 것이 지면경제(紙面經濟)에는 다소 불리할지는 모르나, 글 읽는 능률에는, 이만한 불경제(不經濟)쯤은 희생하기에 주저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새로 고친 판)』, 신구문화사, 1983, 45쪽.

68) 우리 출판계는 1980년대 초반부터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이 무렵부터 본문에서 한자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가로짜기 곧 가로쓰기가 일반화되었다.

이중환 외, 『우리출판 100년』, 현암사, 2001, 151쪽.

69) 박성중은 이 과정을 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를 수평선의 양끝으로 보았을 때, 다양한 중간 지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한자 원문을 나란히 드는 문제, 문장과 문단(연과 행)으로 나누는 문제, 옛 문자를 사용하는 문제, 한자음을 나란히 드는 문제, 낱말을 현대어로 바꾸는 문제, 낱말을 따로 풀이해 주는 문제 등으로 중간 지점의 위치는 달라진다. 또 이들 지점은 서로 겹치고 얹혀 더욱 다양한 표기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복잡한 여러 표기 유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유형을 용어를 사용하여 나타내려 한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표기의 유형을 기호를 사용하여 단순하게 나타내었다. 표기 유형에 따라 ‘+’와 ‘-’, ‘a·b·c·d·e·f’ 기호를 설정하였다. 여기에서 ‘+’는 현대적 표기와 가까워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쉬움을 나타낸 것이고, ‘-’로 나타낸 것은 옛표기와 가까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나타낸 것이다.⁷⁰⁾ 또 ‘a·b·c·d·e·f’는 표기의 여러 수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은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할 때 나타나는 여러 표기 유형을 위의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가. 한자 원문을 들고 있는가

이는 주로 한문학을 표기할 때 나타나는 문제이다. 한문학의 표기 수단은 당연히 한문(한자)이다. 그런데 한문학의 문학적인 가치는 별개로 학습자들이 한문학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다. 한자문학을

1단계 : 원전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수록한다. ⇒ 2단계 : 원전을 일부 수정하여 수록한다. ⇒ 3단계 : 원전대로 수록한다.

박성중, 앞의 글, 57-58쪽.

70) 다만 한문 원문을 드는 경우는 ‘+’로 나타냈다. 원문 자체는 옛표기에 가까운 것이지만, 자료의 다양한 제시가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문학은 현대적인 한글로 번역하여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문과 한글은 단순히 표기 수단만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선 어순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서도 다르며, 그 안에 담겨 있는 생각까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학을 읽는 것은 외국문학을 대할 때 경험하는 낯설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를 현대어로 번역한다 하더라도 한문학 본래의 맛은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진정한 문학 이해를 위해서 일부 교과서에서는 원문과 번역문을 나란히 들어준다.

반면, 일부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으로 한문을 가르칠 수 없음을 들어 한자 원문을 생략하기도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표기 유형이 되는 것이다.

< 글 2-3-1, '차마설' >

余家貧無馬. 或借以乘之. 得駑且瘦者. 事雖急. 不敢加策. 兢兢然將蹶躓. 值溝塹則下. 故鮮有悔. 得蹄高耳銳駿且駛者. 陽陽然肆志. 着鞭縱鞭. 平時稔谷. 甚可快也. 然或未免危墮之患. 噫. 人情之移易一至此邪. 借物以備一朝之用. 尚猶如此. 況其真有者乎. 然人之所有. 孰爲不借者. 君借力於民而尊富. 臣借勢於君而寵貴. 子之於父. 婦之於夫. 婢僕之於主. 其所借亦深且多. 率以爲己有. 而終莫之省. 豈非惑也. 苟或須臾之頃. 還其所借. 則萬邦之君爲獨夫. 百乘之家爲孤臣. 況微者邪. 孟子曰. 久假而不歸惡知其非有也. 余於此有感焉. 作借馬說以廣其意云.

- 『가정집』 71)

< 글 2-3-2, '차마설' >

71) 이 글에서 든 한문 원문이나 고전 원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았다.

21세기 세종기획(<http://www.sejong.or.kr>),
국립국어연구원(<http://www.korean.go.kr>),
국어사자료학회(<http://vod.jeonju.ac.kr/~hiskdt>)
한말연구학회(<http://www.hanmal.or.kr>)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으나,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의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을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 『6차국어(상)』, 33쪽.

< 글 2-3-1 >은 '차마설'의 한자 원문을 보인 것이다. 물론 이 정도의 원문을 읽고, 이해할 만한 고급스런 지적 능력을 가진 교사나 학습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도 작품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한자 원문을 나란히 들어주는 것이 분명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 원문을 들어주는가에 대해 기호 'a'를 사용한다. 그리고 <

글 2-3-1 >처럼 한자 원문과 < 글 2-3-2 >처럼 현대어로 번역한 글을 드는 경우에는 '+a', < 글 2-3-2 >처럼 현대어로 번역한 글만을 쓸 때에는 '-a'로 설정한다.

한자 원문을 드는 문제는 노래문학에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이야기문학에서는 한문학에서만 한자 원문의 유무를 살펴보았지만, 노래문학에서는 한문학인 한시 뿐 아니라 고대가요 등의 한역가요나 한글문학인 향가까지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글 2-4-1, '제망매가' >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 兮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
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
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삼국유사』

< 글 2-4-2, '제망매가' >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5차국어(하)』, 75쪽.

< 글 2-4-1 >과 같이 한자 원문을 함께 보이는 경우를 '+a'로, < 글 2-4-2 >처럼 한글로 풀이한 번역문만을 보이는 경우를 '-a'로 나타낸다.

나. 문장과 문단을 나누고 있는가

옛표기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문장부호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현대어에서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는 단순한 표기 이상의 구실을 한다. 곧 띄어 쓴다는 것은 단어나 어절을 구분하는 것이고, 문장부호 특히 종결부호는 문장의 표지이다. 하지만 옛표기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글 자체에서 문장과 문단을 구분할 수 없었다.

아래의 < 글 2-5-1 >은 문장과 문단이 나누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옛표기를 보여준다. 반면 < 글 2-5-2 >는 현대의 어법에 맞게 문장과 문단을 나누어 쓴 것이다.

< 글 2-5-1, '구운몽' >

팔선네 물너가 늦 우희 연지분을 빼서 버리고 각각 스매로서 금전도를 내어
흑운갓툰 마리를 짚고 드러와 술오더 데즈등이 임의 얼굴을 변호야시니 밍세호
야 스부 교령을 태만티 아니 호리이다 대신 곶오더 선지 선지라 너희 팔인이
능히 이러토헌니 진실노 모든 일이로다 드디어 법좌의 올라 경문을 강논호니
빅호 빗티 세계의 빼이고 하늘 쫓치 비갓티 누리더라 설법호물 당춧 므츠매 네
귀 진언을 송호야 곶오더 일절유의법 염모환도영 여디역여전 응작여시관 이리
니르니 성진과 여덥 니괴 일시의 씨도라 불심불멸호 정과롤 어드니 대신 성진
의 계행이 높고 순슈호물 보고 이에 대등을 모호고 곶오더 내 본디 던도호물
위호야 둥국의 드러왔더니 이제 청법을 던호물 곳이 이시니 나는 도라가노라 호
고 염주와 바리와 정병과 석장과 금강경 일권을 성진을 주고 셔천으로 가니라
이후에 성진이 연화도장 대등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프니 신선과 농신과 사
롭과 귀신이 혼가지로 존송호물 늑관대스와 갓티호고 여덥 니괴 인호야 성진을
승심으로 섬겨 곱히 보살대도를 어더 아홉 사롭이 혼가지로 극낙세계로 가니

라.

- 『구운몽 필사본』

< 글 2-5-2, ‘구운몽’ >

팔 선녀가 물러가 낮 위의 연지분(臙脂粉)을 씻어 버리고 각각 소매로서 금전도(金剪刀)를 내어 흑운(黑雲) 같은 머리를 깎고 들어와 사퇴되,

“제자 등이 이미 얼굴을 변하였으니 맹서(盟誓)하여 사부 교령(敎令)을 태만(怠慢)치 아니하리이다.”

대사 가로되,

“선재(善哉), 선재라. 너희 팔 인이 능히 이렇듯 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다.”

드디어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白毫)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 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설법함을 장차 마치매 네 귀 진언(眞言)을 송(誦)하여 가로되,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이라 이르니, 성진과 여덩 이고(尼姑)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不生不滅)할 정과(正果)를 얻으니, 대사 성진의 계행(戒行)이 높고 순숙(純熟)함을 보고, 이에 대중을 모으고 가로되,

“내 본디 전도(傳道)함을 위하여 중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정법(政法)을 전할 곳이 있으니 나는 돌아가노라.”

하고 염주와 바리와 정병(淨瓶)과 석장과 금강경 일 권을 성진을 주고 서천(西天)으로 가니라.

이후에 성진이 연화 도량 대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敎化)를 베푸니, 신선과 용신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숭(尊崇)함을 육관대사와 같이하고 여덩 이고가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 대도를 얻어 아홉 사람이 한 가지로 극락(極樂) 세계로 가니라.

- 『7차(상)』, 212-214쪽.

이들 중, 보기 쉽고 이해하기 편한 글은 당연히 < 글 2-5-2 >와 같은 글이다. 문단과 문장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는데 문장과 문단을 나누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기호로 'b'를 쓰기로 한다. 곧, < 글 2-5-2 >처럼 문장과 문단을 나누어 쓴 것을 '+b'로, < 글 2-5-1 >처럼 나누어 쓰지 않은 것을 '-b'로 쓴다.

다. 행과 연을 나누고 있는가

이야기문학에서는 문장과 문단이 나누어졌는가에 대해 기호 'b'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노래문학에서는 문장과 문단의 구분이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행과 연의 구분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행과 연과 구분하여 쓰는 것을 '+b'로,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을 '-b'로 나타낸다.

< 글 2-6-1, '관동별곡' >

江江湖호애 病병이 김피 竹죽林림의 누엇더니, 關關東東동 八팔百백리니에 方
 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秋추門門문 드
 리드라 慶경會회 南남門門문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옥節절이 알피섯
 다. 平평丘丘구驛역 물을 그라 黑흑水水수로 도라드니, 蟾섬江江강은 어디메오 稚티岳
 악이 여기로다. 昭쇼陽陽陽江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고臣臣신 去거國
 國에 白백髮髮발도 하도 할샤. 東東州州주 밤 게오 새와 北북寬寬寬亭亭亭의 올라흐니,
 三삼角각山山산 第데一일峰봉이 흐마면 岬岬岬로다. 弓궁王王왕 大대闕闕闊 터희 烏오
 鵲작이 지지피니, 千천古古古 興興興亡亡亡을 아난다, 물으는다. 淮淮淮陽陽陽 네 일홈이
 마초아 그틀시고. 汲汲汲長長長孺유 風風風彩彩彩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營營營中中中이
 無無無事事事스흐고 時時時節節節이 三삼月월월인 제, 花花花川川川 시내길히 楓楓楓岳岳岳악으로 버
 더 있다. 行행行裝裝裝을 다 썰티고 石石石徑徑徑의 막대 디피, 百百百川川川洞洞洞 겨터 두고
 萬萬萬瀑瀑瀑洞洞洞 드러가니, 銀은 그튼 무지계, 玉玉玉玉玉 그튼 龍龍龍의 초리, 셋돌며 썸난
 소리 十十十里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6차국어(상)』, 244쪽.

< 글 2-6-2, '관동별곡' >

江江湖호애 病병이 겁피 竹죽林林님의 누엇더니,
關關東동 八팔百百릭리니에 方方面면을 맞디시니,
어와 聖성恩은이야 가디록 罔망極극하다.
延연秋秋츄門문 드리드라 慶慶會會 회 南남門문 바라보며,
下하直직고 물너나니 玉玉節절이 알피섯다.
平평丘丘구驛역 물을 그라 黑黑水水슈로 도라드니,
蟾蟾섬江江강은 어디메오 稚稚티岳岳악이 여기로다.
昭昭陽陽양江江강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孤孤고臣臣신 去去거國國에 白白鬚鬚발도 하도 할샤.
東東州州쥬 밤 게오 새와 北北북寬寬관亭亭亭의 올라흐니,
三三삼角角각山山산 第第데一일峰峰봉이 흐마면 뇌리로다.
弓弓궁王王왕 大대闕闕궐 터희 烏烏오鵲鵲작이 지지괴니,
千千千천古古古 興興흥亡亡망을 아는다, 물으는다.
淮淮淮회陽陽양 네 일흠이 마초야 그틀시고.
汲汲汲汲汲長長長당孺孺유 風風風풍彩彩치를 고터 아니 볼 게이고.
營營營營營中中中이 無無無無無事事事스흐고 時時時時時節節절이 三三삼月月월인 제,
花花花花花川川川천 시내길히 楓楓楓楓楓岳岳岳악으로 버더 잇다.
行行行行行躡躡躡裝裝裝장을 다 썰티고 石石石石石逕逕逕경의 막대 디피,
百百百百百百百百百川川川천洞洞洞洞洞 동 겨터 두고 萬萬萬萬萬瀑瀑瀑瀑瀑 동 드러가니,
銀銀銀銀銀은 그튼 무지게, 玉玉玉玉玉玉玉 그튼 龍龍龍龍龍의 초리,
섯돌며 썸난 소리 十十十十十里里리의 즈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 『7차국어(하)』, 228쪽.

< 글 2-6-1 >처럼 행구분이 없는 경우는 '-b'로, < 글 2-6-2 >처럼 행을

구분한 것은 '+b'로 표시한다.

라. 옛 문자(고어)를 쓰고 있는가

사라진 옛 문자(고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옛 문자 대신에 현대어로 바꾸어 쓰고 살펴보는 것도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를 나누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옛 문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문자들을 가리킨다. 곧 ‘ㄱ, ㆁ, ㆏, ㆑, ㆓’와 같은 문자에서부터 ‘ㄴ’와 같은 순경음 계열의 문자, ‘ㅁ’과 같은 합용병서 계열의 문자, ‘ㄷ’와 같이 구개음화 이전의 표기, ‘중’과 같은 단모음화 이전의 문자, ‘남곤, 브르매’와 같이 이어적기를 한 단어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 글 2-7-1, ‘금수회의록’ >

테일석 반포의 효 (가마귀) (反哺之孝)

#후록고투를 입어서 전신이 식가마코 쑹구란 눈이 말동말동헌데 물 혼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가마귀올시다 지금 인류에 더햐 소회를 진술할 터인디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간 말삼하겠소

사람들은 만물 중에 제가 제일이라 하지마는 그 형실을 살펴 볼 디경이면 다 텃리에 어긋여져서 하나도 가취할 거시 업소 사람들의 올치 못한 일을 모도 다 들러 말삼하려면 너무 지리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거슬 가지고 말삼할 터인디 넷날 동양 성인들이 말삼하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 퍽 형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텃하를 다사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스니 효도라 하는 거슨 즈식된 자가 고연한 직분으로 당연히 형실 일이올시다 우리 가마귀에 족속은 먹을 거슬 물고 도라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 햐야 망극한 은혜를 갑하셔 하나님이 덩하신 본분을 직히여 자자손손이 천만대를 내려가도록 가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넷적에 『백락턴』이라 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라쳐 새 중에 『증조』라 하였고 본초강목에는

즈도라 일카릿스니 『증즈』라 호는 양반은 부모의게 효도 잘 호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 호는 뜻은 사랑호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의게 효도함이 하늘의 법이라.

- 『금수회의록』

< 글 2-7-2, ‘금수회의록’ >

제1석, 반포의 효(反哺之孝 : 까마귀)

프록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뚱그란 눈이 말뚱말뚱한데, 물 한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까마귀올시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만물 중에 제가 제일이라 하지 마는, 그 행실을 살펴볼 지경이면 다 천리(天理)에 어기어져서 하나도 그 취할 것이 없소.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모두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리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효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동양 성인들이 말씀하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 행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 하는 것은 자식 된 자가 고연(固然)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우리 까마귀의 족속은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아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히 하여 망극한 은혜를 갚아서 하느님이 정하신 본분을 지키어 자자손손이 천만 대를 내려가도록 가법(家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옛적에 백낙천이라 하는 분이 우리를 가리켜 새 중의 증자(曾子)라 하였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자조(慈鳥)라 일컬었으니, 증자라 하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 하는 뜻은 사랑하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늘의 법이라.

- 『교학(하)』, 173쪽.

현대의 학습자들에게는 고전문학 작품에 나타난 옛 문자들이 낯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옛 문자의 사용 여부에 대해 기호 ‘c’를 쓰고, < 글 2-7-1 >처럼 옛 문자를 사용한 표기를 ‘-c’로, < 글 2-7-2 >처럼 옛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표기를 '+c'로 나타낸다.

마. 한자어의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는가

옛표기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문장과 문단이 나누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옛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때로는 표기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어 독해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테면 < 글 2-8-1 >의 '부성모육지은'와 같은 경우, 그것이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를 쓴 것임을 현대의 독자들은 얼른 알 수가 없다. 고전문학 작품에서는 이런 단어나 어구가 많이 발견된다.

< 글 2-8-1, '홍길동전' >

길동이 복지 대 왈 쇼인이 일즉 부성모육지은을 만분지일이나 갑흘가 호여 더니 가너의 불의지인이 잇스와 상공기 춤쇼호고 쇼인을 죽이려 호오미 계오 목숨은 보전호여스오나 상공을 피실 길 업습기로 금일 상공기 하직을 고희노이다 호거늘 공이 더경 왈 네 무슴 변괴 잇관디 어린 으히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려 호는다 길동이 더 왈 날이 붉으면 즈연 아르지런이와 쇼인의 신세는 부운과 갓스오니 상공의 바린 조식이 엇지 방쇼를 두리잇고 호며 쌍누 종횡호여 말을 일우지 못호거늘 공이 그 형상을 보고 측은이 녀여 기유 왈 니 너의 품은 한을 짐작호느니 금일노붓혀 호부호형호물 허호노라 길동이 지비 왈 쇼조의 일편지한을 야애 푸러쥬옵시니 죽어도 한이 업도쇼이다 복망 야야는 " 만슈무강호옵쇼셔 호고 지비 하직호니 공이 붓드지 못호고 다만 무스호물 당부호더라

- 『홍길동전 24장본』

< 글 2-8-2, '홍길동전' >

길동이 따해 앞대여 대답해 가로되,

“쇼인이 일즉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을 만분지 일(萬分之一)이나 갓을 까 하였삽더니, 잠안에 불의지인(不義之人)이 잇사와 상공께 참소하고 쇼인을

죽이려 하오매 겨오 목숨은 보전(保全)하였사오나 상공을 모실 길 없삽기로 금일(今日) 상공께 하직을 고하나이다.”

하거늘, 공이 대경하여 가로되,

“네 무삼 변괴(變故) 있관디 어린 아해 집을 바리고 어대로 가려 하는다?”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날이 밝으면 자연 알으시려니와, 소인의 신체는 부운(浮雲)과 같사오니, 상공의 바린 자식(子息)이 어찌 방소(方所)를 두리잇고.”

하며 쌍궤(雙淚) 중횡(縱橫)하여 말을 이루지 못하거늘, 공이 그 형상(形狀)을 보고 측은(惻隱)이 여겨 개유(開諭)하여 가로되,

“내 너의 품은 한(恨)을 짐작하나니, 금일로부터 호부 호형 함을 허(許)하노라.”

길동이 재배하고 가로되,

“소자의 일편지한(一片至恨)을 아버님이 풀어주옵시니 죽사와도 한이 없도 소이다. 바라옵건대, 아버님은 만수무강(萬壽無疆)하옵소서.”

하고 재배 하직(再拜 下直)하니 공이 붙들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를 당부 하더라

- 『4차국어(1)』, 199-200쪽.

이렇게 한자어에 한자를 덧붙여 쓰는 것을 기호 'd'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또 < 글 2-8-2 >처럼 한자를 덧붙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표기를 '+d'로, < 글 2-8-2 >처럼 한자 없이 원문 그대로 쓰는 표기를 '-d'로 나타낸다.

< 글 2-9-1, '유산가' >

화란춘성호고 만화방창이라 씨 조타 벗님네야 산천경기를 구경을 가세 죽장 망혜 단표즈로 천이강산을 드러를 가니 만산홍록드른 일년일도 다시 꺾여 춘식을 자랑노라 식식이 불것는디 창송취죽은 창창울울 호고 기화요초 란만중의 솟속에 잠든 나뉜 즈취 업시 나라 든다 유상잉비는 편편금이오 화간접무는 분분 설이라 삼춘가절이 조홀시고 도화만발 점점홍이로구나 어쥬축슈의 삼춘이여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스스록 하니 황산곡리 당춘절에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력이 무리져서 거지중천에 높히 써서 두 날리 월신
 펴고 필필 빅운간에 높히 써서 천리강산 머남은 길에 어이갈꼬 슬피운다 원산
 은 첩첩 티산은 주춤하여 괴암은 층층 장송은 낙낙 에이구 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 쌀쌀 슈정림 드리온 듯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디 합수하여 천방저 디방저
 소코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쌀쌀 흐르는
 물결이 은옥갓치 흐터지니 소부허유 문답하던 괴산영수가 예 아니냐 주각제금
 은 천고절이오 적다정조는 일년풍이라 일출낙도가 눈압혜 버러나 경지무궁이
 도홀시고

- 『증보신구잡가』

< 글 2-9-2, '유산가' >

제비는 물을 차고 기력이 물이져서 거지 중턴(中天)에 높피 써서 두 나리 월신
 펴고
 필필 빅운간(白雲間)에 높히 써 천리강산(千里江山) 머나먼 길에 어이 갈고 슬
 히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괴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
 (長松)은 낙락(落落)
 에이구 부러져 광풍(狂風)에 흥(興)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層巖絕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쌀쌀 슈정림(水晶簾) 드리온 듯
 이 골 물이 주루룩저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디 합수(合水)하여
 천방(天方)저 디방(地方)저 소코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쌀쌀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갓치
 흐터지니
 소부허유(巢夫許由)가 문답(問答)하던 괴산영수(箕山潁水)가 이 아니냐.
 주각제금(奏鼓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오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豐)
 이라.
 일출락도(日出落照)가 눈 압혜 버러나 경지무궁(景概無窮) 도홀시고.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中天)에 높이 떠 두 나래 월신

퍼고, 펄펄 백운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강산 머나먼 길에 어이 갈꼬 슬
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巖)은 층층(層層) 장송
(長松)은 낙락(落落)에 - 허리 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層巖絶壁上)에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룩주룩 저 골 물이 살살,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天方)저 지방(地方)저 소쿠라저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건너 병풍석
(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허
유(巢夫許由)가 문답(問答)하던 기산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계금(奏鼓啼禽)은 천고절(千古節)이오, 적다정조(積多鼎鳥)는 일년풍(一年
豊)이라.

일출낙조(日出落照)가 눈앞에 어려나 경개무궁(景概無窮) 좋을시고.

- 『5차국어(하)』, 91-92쪽.

노래문학도 이야기문학과 같다. < 글 2-9-1 >처럼 한자를 나란히 들지 않
은 것을 '-d'로, < 글 2-9-2 >처럼 한자를 들어준 것을 '+d'로 나타낸다.

바. 옛 단어를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고 있는가

옛 글에서는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옛
문자를 버리고, 한자를 나란히 들었어도 이런 낱말들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부 글에서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버리고, 아예 현대적
인 단어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 글 2-10-1, '동명일기' >

그 붉은 우흐로 훌훌 움죽여 도논더 처엄 낮던 붉은 괴운이 빅지 반 장 너
비만치 반드시 비취며 밤 굶던 괴운이 희 되야 츄츄 커 가며 큰 징반만 흥여

붉웃붉웃 번듯번듯 쭈늘며 적색이 온 바다회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츠츠 가
 식며 헉 흔들며 쭈늘기 더욱 즈로 하며 향 긋고 독 긋힌 것이 좌우로 쭈늘며
 황홀이 번득여 냥목이 어즐하며 붉은 기운이 명낭하야 첫 홍색을 헤앗고 턴둥
 의 쟁반 긋힌 것이 수레박회 긋하야 물속으로서 치미러 밧치드시 올라 붓호며
 향독 긋힌 기운이 스러디고 처음 붉어 것출 빗최던 거손 모혀 소혀터로 드리워
 물속의 풍덩 빠디는듯 시브더라 일식이 묘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츠츠 가
 식며 일광이 청낭하니 만고 턴하의 그런 장관은 디두할디 업슬듯 하더라

- 『의유당관북유람일기』

< 글 2-10-2, ‘동명일기’ >

그 붉은 우호로 홀홀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白紙) 반
 장(半張) 너비만큼 반듯이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 되어 차차 커 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듯번듯 뛰놀며, 적색(赤色)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없어지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향 같고 독 같
 은 것이 좌우(左右)로 뛰놀며, 황홀(恍惚)히 번득여 두 눈이 어즐하며, 붉은 기
 운이 명랑(明朗)하여 첫 홍색을 헤치고, 하늘 한가운데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
 퀴 같아서 물 속으로 치밀어 받치 듯이 올라붙으며, 향, 독 같은 기운이 없어지
 고,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의 혀처럼 드리워 물 속에 풍덩 빠지
 는 듯 싶더라. 일색(日色)이 조요(照耀)하며 물결에 붉은 기운이 차차 없어지며,
 일광(日光)이 청량(淸朗)하니, 만고천하(萬古天下)에 그런 장관은 견줄 데 없을
 듯하더라.

- 『7차국어(하)』, 39쪽.

< 글 2-8-2 >에서 ‘없어지며’는 ‘가시며’를 바꿔 쓴 것이며, ‘자주’는 ‘즈로’
 를, ‘두 눈이’는 ‘냥목이’를, ‘하늘 가운데’는 ‘턴둥’을, ‘견줄’은 ‘디두할디’를 현대
 적인 단어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런 경우에 기호 ‘e’를 쓴다. 이에 < 글
 2-10-1 >처럼 낱말을 바꾸지 않고 쓴 것은 ‘-e’로, 글 < 글 2-10-3 >처럼 바
 꾸어 쓴 경우에는 ‘+e’를 사용한다.

사. 따로 뜻풀이를 하고 있는가

단어에 따로 뜻풀이를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낯선 단어나 어려운 단어 또는 어구의 뜻을 따로 풀어 준다면, 옛 표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을 수 있을 것이다.

< 글 2-11-1, '춘향전' >

근읍수령이 모와든다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옥과 진안 장수 원임이 차례로 모와든다 좌편의 횡수 군관 우편의 청영사령 한가운데 본관은 주인이 되어 하인 불너 분부하되 관청식 불너 다담을 올리라 육고자 불너 큰 소을 잡고 예방 불너 고인을 대령하고 승발 불너 차일을 대령하라 사령 불너 잡인을 금하라 이렇타 요란할 제 기치 군물이며 육각풍류 반공의 찌고 녹의 홍상 기생들은 백수 나삼 높피 드러 춤을 추고 지야자 두덩실 하난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 드라 네의 원전의 여주워라 먼 데 잇난 거련이 조흔 잔치의 당하여스니 주회춤 어더 먹자고 여주어라

- 『완판 열녀수절춘향가』

< 글 2-10-2, '춘향전' >

근읍(近邑) 수령이 모여든다. 운봉 영장(營將), 구례, 곡성, 순창, 옥과, 진안, 장수 원님이 차례로 모여든다. 좌편에 행수 군관(行首軍官), 우편에 청령 사령(聽令使令), 한가운데 본관(本管)은 주인이 되어 하인 불너 분부하되,

“관청색(官廳色) 불너 다담(茶淡)을 올리라. 육고자(肉庫子) 불너 큰 소를 잡고, 예방(禮訪)을 불너 고인(鼓人)을 대령하고, 승발(承發) 불너 차일(遮日) 대령하라. 사령 불너 잡인(雜人)을 금하라.”

이렇듯 요란할 제, 기치(旗幟) 군물(軍物)이며, 육각 풍류(六角風流) 반공에 떠 있고, 녹의 홍상(綠衣紅裳) 기생들은 백수 나삼(白手羅衫)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야자 두덩실’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여봐라 사령들아, 네의 원 전에 여주어라. 먼 데 잇는 걸인이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酒肴) 좀 얻어 먹자고 여주어라.”

- 영장 : ‘진영장(鎭營將)의 준말’, ‘진영장’은 각 진영의 군사를 통솔하던 무관.
- 관청색 : 조선 시대에 수령의 음식물을 맡아 보던 사령.
- 다담 : 손님 대접을 위하여내 놓은 다과 따위.
- 육고자 : 관청에 육류를 바치던 육고 소속의 관노.
- 승달 : 지방 관아의 구실아치 밑에서 잡무에 종사하던 사람.
- 육각풍류 : ‘육각’은 북, 장구, 해금, 피리와 태평소 한 쌍의 여섯 악기를 가리키며, ‘풍류’는 피리, 대금 등의 관악 합주나 거문고와 같은 현악기가 중심이 되는 관현 합주를 이르는 말.
- 백수나삼 : ‘백수’는 하얀 손. ‘나삼’은 얇고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적삼. 혹은 白袖로 표기하면 흰 소매가 달린 비단 적삼이란 뜻이 됨.

- 『7차국어(하)』, 300-301쪽.

이처럼 뜻풀이를 따로 하는 경우에 기호 ‘f’를 쓰고, < 글 2-10-1 >처럼 뜻풀이가 없는 경우에는 ‘-f’를, < 글 2-10-2 >처럼 따로 뜻풀이를 한 경우에는 ‘+f’를 사용한다.

이상과 같은 표기의 여러 유형을 정리하여 기호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이야기문학과 노래문학의 표기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같다. 다만 문장·문단의 표기와 행과 연의 차이만 다르다.

< 틀 3, 이야기문학의 표기 유형 >

유형	약호	표기형태			
		-		+	
원문 보이기	a	-a	원문을 보이지 않음	+a	원문을 보임
문장, 문단 표기	b	-b	문장과 문단을 구분하지 않음	+b	문장과 문단을 구분함
옛 문자 표기	c	-c	옛 문자를 표기함	+c	옛 문자를 표기하지 않음
한자, 한자음 병기	d	-d	한자와 한자음을 병기하지 않음	+d	한자와 한자음을 병기함
현대적인 어휘	e	-e	옛 단어 그대로 나타냄	+e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나타냄
어휘풀이	f	-f	어휘풀이 안 함	+f	어휘풀이 함

< 틀 4, 노래문학의 표기 유형 >

유형	약호	표기형태			
		-		+	
원문 보이기	a	-a	원문을 보이지 않음	+a	원문을 보임
행, 연 나누기	b	-b	행과 연을 나누지 않음	+b	행과 연을 나눔
옛 문자 표기	c	-c	옛 문자를 표기함	+c	옛 문자를 표기하지 않음
한자, 한자음 병기	d	-d	한자와 한자음을 병기하지 않음	+d	한자와 한자음을 병기함
현대적인 어휘	e	-e	옛 단어 그대로 나타냄	+e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나타냄
어휘풀이	f	-f	어휘풀이 안 함	+f	어휘풀이 함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에는 모두 667편의 고전문학 작품(구비문학 작

품 및 국어교과서 수록 작품 포함)이 실려 있었다. 이 중 주요작품이 307편이
고, 보조작품이 360편이었다. 이들 작품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표기 유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은 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자
세한 분석 결과는 따로 부록에 실었다.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III.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양상

III장에서는 II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갈래별 통계 결과를 표기의 특징과 함께 들어 보였다

1. 노래문학

가. 한 시

한시의 교과서 수록 양상은 다음과 같다.

< 틀 5, 한시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22	22	.47	2편	25	.53	2.3편	47	4.3편

이와 같이 모두 22종의 한시가 47수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주요작품으로 실린 것이 22편이고, 보조작품으로 실린 것이 25편이어서, 한 교과서에 4.3편 꼴로 실려 있다. 정지상의 ‘송인’이 8편이 실려 가장 많았다.

그런데 한시는 한자표기로 된 한문학이다. 그렇기에 한글 표기를 살펴보기 위한 별도의 표기 유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자 원문을 따로 들었는가만 살펴보면 된다.

아래의 틀은 한시 중 원문이 실린 작품의 수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 틀 6, 한시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22	0										
	비율	1.00	.										
보	수	21	4										
	비율	.84	.16										
계	수	43	4										
	비율	.91	.09										

위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작품들은 모두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실고 있다. 반면 보조작품 중 네 작품은 따로 원문을 실고 있지 않다. 아래는 한 예이다.

< 글 3-1, ‘푸른 바닷물이’ >

푸른 바닷물이 구슬 바다에 넘노니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이름다운 연꽃 스물 일곱 송이
 붉게 떨어져 달밤 서리에 싸늘하네⁷²⁾

- 『두산(상)』, 56쪽.

이 작품은 ‘교실밖 문학여행’이라는 제목 아래 허난설헌을 소개하면서 참고로 든 노래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문학 감상이나 학습을 위해 제시한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 단원을 마치고 새 단원을 학습하기에 앞서 읽는 가벼운 읽을거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교과서 어디에도 이 노래

72) 이 노래의 원문은 이러하다. “碧海侵瑤海 青鸞倚彩鸞 芙蓉三九染 紅墮月霜寒”
 허경진 역, 『허난설헌 시집』, 평민사, 1999, 194쪽.

가 본래 한시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듯 한시는 수록된 텍스트가 본래 한자문학인 한시임을 보여주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에만 원문을 싣고 있다. 반면 갈래를 나타내려는 목적이 강하지 않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원문을 표기하고 있지 않다.

나. 한역 가요

고대가요와 소악부 등 한자로 표기된 노래들이다. 비록 한자로 표기되었지만, 한역 가요들은 한문학의 한 갈래인 한시에 비해 명백히 우리 국문학의 갈래이다. 본래 우리 문학(구비문학)이었으나, 마땅한 표기 수단이 없었을 때, 한자와 한시의 형식을 빌려 실은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한역가요가 실려 있다.

< 틀 7, 한역가요의 표기 양상 >

()는 소악부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5(1)	11	.37	1	19(2)	.63	1.7편	30(2)	2.7편

한역가요는 모두 30편 실려 있지만, 작품 종수는 그리 많지 않다. 고대가요에서는 ‘구지가’, ‘황조가’, ‘공무도하가’, ‘해가’의 네 편이 전부이고, 소악부에서는 이제현의 ‘사리화’가 유일하게 실렸을 뿐이다. 이 중 ‘공무도하가’가 8편이 실려 가장 많다.

이들 역시 본래 한자로 표기된 작품이기에 우리말에 대한 표기 유형을 따로 나눌 필요가 없다. 한시와 마찬가지로 한자 원문이 실려 있는가만 살펴보면 되었다.

< 틀 8, 한역가요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1	0										
	비율	1.00	.										
보	수	15	4										
	비율	.79	.21										
계	수	26	4										
	비율	.87	.13										

한시처럼 주요작품에서는 모두 한자 원문을 들고 있다. 보조작품들도 대부분 원문을 들고는 있으나 일부 작품에서는 원문이 빠져 있다. 이들 역시 참고작품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볼 때 한역 가요의 표기 유형은 한시와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한역가요인 ‘사리화’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습이다.

< 글 3-2, ‘사리화’ >

黃雀何方來去飛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우느냐,
 一年農事不曾知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鰥翁獨自耕耘了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댔는데,
 耗盡田中禾黍爲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 『금성(하)』, 63쪽.

다. 향 가

우리 국문학상의 여러 갈래 중에서 가장 특별한 표기 유형을 하고 있는 것이 향가이다. 한자로 쓰여진 원문이 있다는 점은 한시나 한역가요와 같으나,

이들처럼 한문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향가의 표기를 한글 표기라고 볼 수도 없다. 표기 자체가 분명히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가 중 많은 작품들이 옛표기로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양주동 및 김완진이 15세기 표기로 추정된 것이다. 이처럼 향가는 본래 표기인 향찰과 옛표기와 현대어 번역 또는 현대적 표기가 섞여 있어 향가의 표기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먼저 교과서에 향가가 수록된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틀 9, 향가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요작품			보조작품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9	15	.58	1.4편	11	.42	1편	26	2.4편

현전하는 25편의 향가 작품 중 9편이 실려 있다.⁷³⁾ 이들 중 주요작품이 15편이고 보조작품이 11편이어서 현전하는 전체 작품 중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작품의 비율이 다른 어느 갈래보다도 높은 편이다. 개별 작품으로는 ‘제망매가’가 가장 많은 10편이 실려 있다.

다음은 향가의 표기 형태를 보인 것이다.

73) 이들 중, 균여의 ‘보현십원가’ 11수는 한 편도 실려 있지 않다.

< 틀 10, 향가의 표기 1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풀이)	
		+	-	+	-	+	-	+	-	+	-	+	-
주	수	13	2	15	0	3	12	12	3	2	13	15	0
	비율	.87	.23	1.00	·	.20	.80	.80	.20	.13	.87	1.00	·
보	수	4	7	11	0	6	5	10	1	3	8	6	5
	비율	.36	.64	1.00	·	.55	.45	.91	.09	.27	.73	.55	.45
계	수	17	9	26	0	9	17	22	4	5	21	21	5
	비율	.65	.35	1.00	·	.37	.63	.85	.15	.19	.81	.81	.19

이 틀에서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a(원문)’ 항과 ‘c(고어)’를 다룬 항이다. ‘a(원문)’ 항은 교과서에 삼국유사의 향찰 원문이 함께 실려 있는가를 따진 것이고, ‘c(고어)’항은 양주동 및 김완진이 추정한 15C 표기를 실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향찰 원문은 주요작품에서 87%, 보조작품에서 36%가 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65%가 실려 있었다. 옛표기는 주요작품에서 80%, 보조작품에서는 45% 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63%의 작품이 옛표기를 하고 있다.

다음은 다양하게 표기된 향가의 모습이다.

< 글 3-3-1, ‘제망매가’ >

生死路隱	生死 길흔
此矣有阿米次盼伊遣	이에 이사매 머뭇그리고,
吾隱去內如辭叱都	나는 가느다 말스도
毛如云遣去內尼叱古	몰다 니르고 가느닛고,
於內秋察早隱風未	어느 ㄱ을 이른 브르매
此矣彼矣浮良落尸棄如	이에 더에 브러덜 님즌,
一等隱枝良出古	흐든 가지라 나고
去奴隱處毛冬乎丁	가는 곧 모드론더.

阿也 彌陁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아야 彌陀刹아 맛보올 나
道 닷가 기드리고다.

- 『디딤(상)』, 137쪽.

이 유형은 원문을 들었고, 김완진이 해독한 옛문자를 그대로 노출하였으며 한자음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경우이다.

< 글 3-3-2, '제망매가' >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떠나잡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잊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닷야 기다리겠노라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棄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陁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 『천재(하)』, 40쪽.

이 유형은 한자 원문을 보이지 않았고, 대신 양주동이 추정된 옛 문자의 표기를 보인 뒤에 이를 다시 현대어로 보여준 경우이다. 양주동의 해독에서는 한자음을 나란히 들어주고 있다.

< 글 3-3-3, '제망매가' >

生死路(생사로)는
에 이샤매 저히고

생사의 길은
여기 있으매 두려워

나는 가느다 말스도
묻다 닐고 가느닛고
어느 그술 이른 브르매
이에 저에 떠딜 님다이
흐든 가재 나고
가는곧 모드온더
아으 彌陁刹(미타찰)애 맛보올 내
道(도)닷가 기드리고다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 저기 떨어질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는
도 닦아 기다리련다.

- 『민중(상) 88쪽』

이 유형은 김완진의 해독을 현대어로 옮기고 그 옆에 다시 한자 원문을 들어준 경우이다. 한자는 한글 뒤에 나란히 쓰고 있다.

이들 유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가를 표기하는 방법은 모두 7가지가 있다. 향찰 원문만을 신는 경우(A), 옛 문자로만 신는 경우(B), 현대어로 풀이한 것만 신는 경우(C)가 있다. 또, < 글 3-3-1 >처럼 향찰과 옛 문자를 함께 신는 경우(A+B), < 글 3-3-2 >처럼 향찰과 현대어역을 함께 신는 경우(A+C)와 < 글 3-3-3 >처럼 옛 문자와 현대어역을 함께 신는 경우(B+C)가 있다. 이 세 유형의 표기를 모두 신는 경우(A+B+C)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실린 경우는 없다.

다음은 이상과 같은 표기 유형의 결과를 따로 분석한 것이다.

< 틀 11, 향가의 표기 2 >

		A (향찰원문)	B (옛문자)	C (현대어)	A+B	A+C	B+C	A+B+C
주	수				10	3	2	
	비율				.67	.20	.13	
보	수		2	3	1	3	2	
	비율		.18	.27	.06	.27	.18	
계	수		2	3	11	6	4	
	비율		.08	.12	.42	.23	.15	

주요문학에서는 향찰 원문과 옛 문자를 함께 든 경우가 전체의 2/3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일반적인 표기임을 보여준다. 보조문학의 경우는 여러 표기 방법이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라. 고려가요(경기체가)

고려가요와 경기체가는 모두 56편이 실려 있다. 주요작품은 24편이고, 보조작품은 32편이어서 한 교과서에 5.1편이 실려 있다. 작품 종수는 모두 12작품이며, 이 중 ‘가시리’는 11편이 실려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었다.

< 틀 12, 고려가요의 수록 양상 >

()는 경기체가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12(1)	24(5)	.43	2.2편	32(3)	.57	2.9편	56(8)	5.1편

이들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표 13, 고려가요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24	0	0	24	23	1	0	24	22	2
	비율			1.00	·	·	1.00	.96	.04	·	1.00	.92	.08
보	수			32	0	4	28	31	1	2	30	6	26
	비율			1.00	·	.13	.87	.97	.03	.06	.94	.19	.81
계	수			56	0	4	52	54	2	2	54	28	28
	비율			1.00	·	.07	.93	.96	.04	.04	.96	.50	.50

모든 작품에서 연행을 나누고 있다. 또 일부 보조작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옛표기를 따르고 있다. 또한 일부⁷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작품에서 한자 나란히 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옛표기를 따르지 않은 예외적인 작품을 든 것이다.

< 글 3-4, '정석가' >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쇠나무 산에 놓으오이다.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만

그 소가 쇠풀을 먹어야만

덕(德) 있는 입과 이별하고 싶사옵니다.

- 『중양(상)』, 92쪽.

74) '상저가'이다. 본래 작품에 한자어가 없기 때문에 한자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경기체가 ‘한림별곡’만이 실려 있다. 그런데 ‘한림별곡’의 한자음의 표기는 다른 갈래들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글 3-5, ‘한림별곡’ >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원순문 인노시 공노스륙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니정언 딴한림 쌍운주필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鏡詩賦
툽기디척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試場入 景 記 엇더니잇고
시당 경

(葉) 琴學士의 玉筍門生 琴學士의 玉筍門生
금혹스 옥순문싱 금혹스 옥순문싱

위 날조차 몇부니잇고.

- 『두산(하)』, 91쪽.

‘한림별곡’의 한자음은 오늘날의 독음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노래의 기록한 당시의 독음으로 적고 있다. 이 노래가 실려 있는 『악장가사』의 본래 표기에 충실한 결과이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위의 경우처럼 한자음을 아래에 두지 않고, “元淳文(원순문) 仁老詩(인노시) 公老四六(공노스륙)”처럼 오른쪽에 ()를 두고 적기도 하였다.

마. 시 조(사설시조)

고전문학 작품 중 가장 많이 실린 갈래가 시조이다. 아래처럼 한 교과서에 15편이 넘는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중 가장 많이 실린 작품으로는 황진이의 ‘동짓달-’로 모두 8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연시조에서는 이황의 ‘도산십이곡’이 7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사설시조로는 ‘두터비-’가 모두 6종의 교과서

에 실려 있다.

< 틀 14, 시조의 수록 양상 >

()는 사실시조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80(13)	68(14)	.40	6.2편	102(15)	.60	9.3편	170(29)	15.5편

이렇게 시조가 많이 실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길이가 짧아 작품을 이해하는데 다른 갈래보다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조는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유형을 살펴보면 매우 쓸모 있는 갈래가 될 수 있다.

< 틀 15, 시조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68	0	3	65	66	2	0	68	68	0
	비율			1.00	·	.04	.96	.97	.03	·	1.00	1.00	·
보	수			102	0	16	86	101	1	0	102	29	73
	비율			1.00	·	.16	.84	.99	.01	·	1.00	.28	.72
계	수			170	0	19	151	167	3	0	170	97	73
	비율			1.00	·	.11	.89	.98	.02	·	1.00	.57	.43

위의 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의 89%가 고어 표기를 하고 있어 대부분 고어 표기 그대로를 따르고 있다. 이 중 주요작품은 거의 대부분이 고어 표기를 하고 있어 고려 속요와 함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조 중에도 일부는 다음과 같이 현대어로 옮겨 표기하기도 하였다.

< 글 3-6-1, 정철(‘재너머-’) >

재너머 성결릉 집에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를타고
아이야 네 권릉 계시냐 정좌수 왔다 하여라.

- 『친재(상)』, 93쪽.

한자음을 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글 3-6-1 >처럼 극히 일부의 작품에서만 한자음을 보이지 않을 뿐 대부분은 한자음을 나란히 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모든 작품에서 한자 표기의 유형이 같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한자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한자음을 한글로 드는 경우와, 한자어를 한글로 먼저 쓰고 그 뒤에 이에 해당하는 한자를 쓰는 경우 등 두 가지의 표기 방법이 있다.

< 글 3-7-1, 황진이(‘동짓달-’) >

동지사들 기나 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 니불 아리 서리 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 구뵈 퍼리라.

- 『청구영언 (진본)』

< 글 3-7-2, 황진이(‘동짓달-’) >

冬至(동지)사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春風(춘풍)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교학(하)』, 138쪽.

< 글 3-7-3, 황진이(‘동짓달-’) >

동지(冬至)사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뿐이다.

< 틀 16, 가사의 수록 양상 >

()는 잡가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16(1)	20	.40	1.8	30(2)	.60	2.7	50(2)	4.5편

가사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표기 유형은 행의 구분 여부이다. 본래 옛 노래문학들의 대부분은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표기되었다. 현재는 대부분 행과 연으로 나누어 표기하는데, 이는 현대시의 표기 관습에 따른 것이다. 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래에는 행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의 독해를 돕기 위해 2음보 혹은 4음보 단위로 끊어 한 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가사의 경우에는 행을 나누지 않는 기존의 표기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있다.

< 틀 17, 가사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4	6	2	18	19	1	0	20	20	0
	비율			.70	.30	.10	.90	.95	.05	·	1.00	1.00	·
보	수			17	13	10	20	26	4	1	29	10	20
	비율			.57	.43	.33	.67	.87	.13	.03	.97	.67	.33
계	수			31	19	12	38	45	5	1	49	30	20
	비율			.62	.38	.24	.76	.90	.10	.02	.98	.60	.40

위의 틀 중 'b(연,행)'에서 '+'로 나타낸 것은 2음보 또는 4음보처럼 일정한

음보를 단위로 행을 나눈 것이고, ‘-’로 나타낸 것은 행을 나누지 않고 이어 적은 것을 나타낸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행의 구분이 이루어진 작품은 전체의 62%로, 이 중 주요작품이 70%이고, 보조작품이 57%이다.

< 보기를 3-8-1, ‘사미인곡’ >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緣分(연분)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더 노여 업다.平生(평생)에 願(원)호요더 혼더 네자 호얏더니, 늣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廣寒殿(광한뎌)의 올낫더니, 그더더 엇디호야 下界(하계)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三年(삼년)이라. 臙脂粉(연지분) 잇느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疊疊(텃텃)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人生(인싱)은 有限(유혼)혼더 시름도 그 지업다. 心(무심)호 歲月(세월)은 물 흐르듯 호는고야. 炎涼(염냥)이 쎄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금성(상)』, 138쪽.

< 글 3-8-2, ‘사미인곡’ >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혼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나 하나 접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더 노여 업다.
 평생(平生)에 원(願)호요더 혼더 네자 호얏더니,
 늣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글이논고.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뎌(廣寒殿)의 올낫더니,
 그 더더 엇디호야 하계(下界)에 느려오니,
 올 적의 비슨 머리 얼키연디 삼년(三年)이라.
 연지분(臙脂粉) 잇느마는 늘 위호야 고이 홀고.
 므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혀 이셔,
 짓느니 한숨이오 디나니 눈물이라.

인생(人生)은 유한(有限)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無心)한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느고야.
 염냉(炎涼)이 때를 아라 가는 듯 고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민중(하)』, 110쪽.

같은 작품이어도 < 글 3-8-1 >은 행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 글 3-8-2 >는 행 구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에는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길이에 따른 것도 아니고, 창작 연대를 따른 것도 아니다. 별 다른 특별한 원칙이 없어 교재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다.

사. 언해(두시언해)와 악장(용비어천가)

언해와 악장은 모두 8종 20편이 실려 있다. 언해류는 ‘두시언해’ 한 종류이고, 악장 역시 ‘용비어천가’ 하나 뿐이다.

< 틀 18, 언해와 악장의 수록 양상 >

()는 용비어천가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8(1)	13(3)	.65	1.2편	7(6)	.35	0.6편	20(9)	1.8편

이들 작품의 표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틀 19, 언해와 악장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0	3	13	0	2	11	12	1	0	13	12	1
	비율	.77	.23	1.00	·	.15	.85	.92	.08	·	1.00	.92	.08
보	수	3	4	7	0	0	7	7	0	0	7	3	4
	비율	.42	.58	1.00	·	·	1.00	1.00	·	·	1.00	.42	.58
계	수	13	7	20	0	2	18	19	1	0	20	15	5
	비율	.65	.35	1.00	·	.10	.90	.95	.05	·	1.00	.75	.25

여기서 ‘a(원문)’은 두시언해의 경우에는 한시를 보이는 것이고, 용비어천가는 4언으로 된 한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원문을 따로 보이지 않은 경우는 모두 7편으로 두시언해가 2편이고, 용비어천가가 5편이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옛표기를 하고 있으나 현대적 표기를 한 경우도 있다.

< 글 3-9-1, ‘강촌’ >

물근 ㄱ류 한 고비 ㅁ술홀 아나 흐르느니 긴 녀류 江村애 일마다 幽深호도
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느닌 집 우희 쯔비오 서르 親호며 서르 갓갓느닌 몫 가온
덧 줄머기로다

淸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 『두시언해 초간본』

< 글 3-9-2, ‘강마을’ >

맑은 강 한 굽이가 마을을 안고 흐르는데
긴 여름날 강촌에 일마다 한가롭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고 서로 가까이 하는 것은 물 위의 갈매기보다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堂上燕 相親相近水中鷗

- 『천재(하)』, 57쪽.

< 글 3-9-2 >은 < 글 3-9-1 >을 현대적인 표기로 바꾼 것이다. 한시 원문만 없다면, 이 작품이 한시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또는 우리 문학의 한 갈래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로 현대적인 표기를 보이고 있다.

아. 창 가

창가는 모두 4종 8편이 실려 있어 교과서 당 0.7편 정도 수록되어 있다. 가장 많이 실린 작품은 이필균의 ‘애국하는 노래’로 모두 3편 실려 있다.

< 틀 20, 창가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4	2	.25	0.2편	6	.35	0.5편	8	0.7편

표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 21, 창가의 표기 >

		a (원문)		b (연,행)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2	0	0	2	2	0	0	2	2	0
	비율			1.00	·	·	1.00	1.00	·	·	1.00	1.00	·
보	수			6	0	3	3	5	1	0	6	1	5
	비율			1.00	·	.50	.50	.83	.17	·	1.00	.17	.83
계	수			8	0	3	5	7	1	0	8	3	5
	비율			1.00	·	.38	.62	.87	.13	·	1.00	.38	.62

주요작품은 모두 옛 문자를 쓰고, 한자와 나란히 들고 있는데 비해, 보조작품에서는 옛표기와 현대적인 표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표기 유형이 다른 같은 작품을 든 것이다.

< 글 3-10-1, '동심가' >

못세 고기 불어 말고
 그물 띠즈 잡아 보세.
 그물 띠기 어려우랴
 동심결(同心結)로 띠즈 보세.

- 『한국(상)』, 21쪽.

< 글 3-10-2, '동심가' >

못의 고기 부러 말고
 그물 맺어 잡아 보세.
 그물 맺기 어려우면
 동심결(同心結)로 맺어 보세.

- 『민중(하)』, 25쪽.

< 글 3-10-1 >은 옛 문자를 쓰고, 옛 낱말을 그대로 사용하여 옛표기에
가깝도록 표기하는데 비해, < 글 3-10-2 >는 현대적인 표기를 하고 있다.

2. 이야기문학

이야기문학은 노래문학처럼 갈래별로 세분화하지 않고, 크게 한문산문, 한글수필, 한글소설, 판소리, 신소설로만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이야기문학에서는 갈래에 따라 표기 유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가. 한문산문(설·소설·설화·비평·전)

한문 산문이라 한 것은 ‘공방전’, ‘국선생전’ 등의 가전체 문학, ‘초조장서’ 등의 격문, ‘열하일기’나 ‘왕오천축국전’과 같은 기행문, ‘조신지몽’과 같은 설화, ‘서포만필’이나 ‘도산십이곡발’과 같은 비평문, ‘슬건설’이나 ‘이옥설’ 등의 설(說), 삼국유사 등에 실린 설화와 신화, 김시습과 박지원의 한문 소설, ‘강감찬전’과 같은 전기 등, 한문으로 이루어진 산문을 모두 아우른 것이다.

작품 총수로는 53편이고 모두 95편이 실려 있어 한 교과서에 8.6 편 꼴로 실려 있다. 작가별로는 이규보의 글이 15편, 김시습의 소설이 12편, 박지원의 글이 11편 실려 있다.

< 표 22, 한문산문류의 수록 양상 >

작품 총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53	50	.54	4.5편	45	.46	4.1편	95	8.6편

이들 작품의 표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 23, 한문 산문류의 표기 >

		a (원문)		b (문단)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0	50										
	비율	·	1.00										
보	수	0	45										
	비율	·	1.00										
계	수	0	95										
	비율	·	1.00										

모든 작품에서 한자 원문을 들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한자 원문을 들었던 한자표기의 노래문학과는 대조적이다.

나. 한글 수필(서간·일기·기행)

한글 수필이라 한 것은 ‘산성일기’, ‘계축일기’와 같은 일기류, ‘조침문’이나 ‘규중칠우쟁론기’와 같은 내방수필 및 여러 서간 등을 포함한 것이다.

작품 종수는 12종이고, 모든 작품은 20편이어서 교과서 당 1.8편이 실려 있다. ‘조침문’, ‘한중록’, ‘산성일기’가 각각 3편씩 실려 있다.

< 표 24, 한글 수필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12	12	.60	1.1편	8	.40	0.7편	20	1.8편

한글 수필의 표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표 25, 한글 수필의 표기 >

		a (원문)		b (문단)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2	0	6	6	6	6	1	11	12	0
	비율			1.00	·	.50	.50	.50	.50	.08	.92	1.00	·
보	수			8	0	4	4	6	2	1	7	3	5
	비율			1.00	·	.50	.50	.75	.25	.13	.87	.37	.63
계	수			20	0	10	10	12	8	2	18	15	5
	비율			1.00	·	.50	.50	.60	.40	.10	.90	.75	.25

모든 글에서 문장과 문단을 나누고 있다.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을 막론하고 절반 정도는 옛 문자로 표기하고 있고, 나머지 반은 현대적 표기를 하고 있다. 한자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여서 주요작품의 반 정도가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글 3-11-1, '한중록' >

니 유시(幼時)의 켈니(闕內)의 드러와 셔찰(書札) 왕복이 묘석(朝夕)의 이시니 니 집의 니 슈적(手蹟)이 만히 이실 거시로디 입켈 후 선인(先人)겨오셔 경계(警戒)호오시디 “외간(外間) 셔찰이 궁뎡(宮中)의 드러가 흘릴 거시 아니오 문후(問候)흔 의외예 스년(辭緣)이 만키가 공경호난 도리의 가티 아니하니 묘석 봉셔(封書) 회답의 쇼식만 알고 그 조희의 뼈 보니라 호시기 선비(先妣)겨오셔 아참 저역 승후(承候)호오시난 봉셔의 선인 경계디로 도희 머리의 썸 보내옵고 집의셔도 또한 선인 경계를 밧즈와 다 모화 세초(洗草)호므로 니 필적이 전호 염족한 거시 업난지라 빅딜(伯姪) 슈영(守榮)이 락양 본집의 마노라 슈적이 머문 거시 업스니 한 번 친히 무순 글을 썸 나리오셔 보장(寶藏)호야 집의 길니던호면 미스(美事)가 되게호엿다호니 그 말이 올히여 썸 쥬고져 호되 틈 업셔

못흐엇더니 올히 니 회갑 희를 당흐니 추모지통(追募之痛)이 빅 빅 더흐고 세월이 더가면 니 정신이 이 씨만도 못할 닷흐기 니 흥감(興感)한 마음과 경력(經歷)한 일을 싱각흐난 디로 기록흐야 쓰나 흐나흘 건디고 빅을 싸디오노라

- 『금성(하)』, 176쪽.

< 글 3-11-2, ‘한중록’ >

젊고 젊도다. 모년(某年), 모월일(某月日)을 내 어찌 말하리오. 친지 함벽(闔關)하고 일월(日月)이 회색(悔塞)하는 변(變)을 만나 내 어찌 차마 일시나 세상에 머물 마음이 있으리요. 칼을 들어 명(命)을 결(決)하려 하더니, 방인(傍人)의 앓음으로 인하여 뜻같이 못하고, 돌아 생각하니, 11세 세손에게 침첩한 지통을 끼치지 못하겠고, 내 없으면 세손 성취(成就)를 어찌 하리오. 참고 참아, 완명(頑命)을 보전하고 하늘만 울부짖으니, 그 때 선인이 엄교(嚴教)를 만나오셔 동교(東郊)에 병복(屏伏)하여 계오시더니, 일이 하릴없는 후 들어오시니, 그 무궁한 지통이야 또 뉘 당하리오.

- 『두산(하)』, 119쪽.

< 글 3-11-1 >과 < 글 3-11-2 >의 표기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옛 문자의 사용 여부만이 다를 뿐이다.

다. 고소설

한글 소설은 작품 종수는 16편이고, 모두 43편이 실려 있어 한 교과서에 3.9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이 중 ‘춘향전’이 모두 7편 실려 있어 가장 많다.

< 툐 26, 고소설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16	17	.40	1.5편	26	.60	2.4편	43	3.9편

고소설의 표기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툐 27, 고소설의 표기 >

		a (원문)		b (문단)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7	0	15	2	16	1	1	16	17	0
	비율			1.00	·	.88	.12	.94	.06	.06	.94	1.00	·
보	수			26	0	24	2	25	1	5	21	13	13
	비율			1.00	·	.92	.08	.04	.96	.20	.80	.50	.50
계	수			43	0	39	4	41	2	6	37	30	13
	비율			1.00	·	.91	.09	.95	.05	.14	.86	.70	.30

전체의 9% 정도만이 옛 문자로 표기를 하고 있어, 수필의 50%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95%의 소설에서 한자를 나란히 들고 있어 수필류의 60%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글 3-12-1, '홍길동전' >

각설(却說) 길동이 부모를 니별호고 문을 나미, 일신이 표박(漂泊)호여 정처 업시 헝호더니 혼 곳의 다다르니, 경기 절승(景概絶勝)호지라 인가를 츠즈 점점 드리가니, 큰 바회 멋히 석문(石門)이 닷쳐거늘 가마니 그 문을 열고 드리가니 평원 광야의 슈빅호 인기(人家) 즐비호고, 여러 스름이 모다 잔치호미 즐기니

이 곳은 도적의 굴혈(掘穴)이라. 문득 길동을 보고 그 위인(爲人)이 녹록(碌碌)지 아니를 반겨 문 왈,

“그대는 옛던 사름이완디 이 곳의 츠즈왓는뇨. 이 곳은 영웅이 모도여시나 아직 괴슈(魁首)를 정치 못 하여시니, 그디 만일 용력(勇力)이 이셔 춤너코져 흘진디 저 돌을 드러보라.”

길동이 이 말을 듯고 다행(多幸)하여 지뵈(再拜) 왈,

“나는 경성(京城) 홍판서(洪判書)의 천첩(賤妾) 쇼싱(所生) 길동이러니 가중 천디를 밋지 아니려 하여 사희팔방(四海八方)으로 정처 업시 단니더니, 우연이 이 곳의 드러와 모든 호걸의 동노되물 니르시니 불승감스(不勝感謝) 하거니와 장뵈(丈夫) 엇지 저만흔 돌 들기를 근심 하리오.”

- 『금성(하)』, 151-152쪽.

< 글 3-12-2, ‘홍길동전’ >

이 때에 울도 왕이 불의에 이름 없는 도적이 칠십여 주를 항복받으매, 향하는 곳마다 당적치 못하고, 도성을 범하매 비록 지혜 있는 신하라도 위하여 피하지 못하더니, 문득 격서를 들이매, 만조 제신이 아무러 할 줄 모르고 장안이 진동하는지라. 제신이 의논 왈

“이제 도적의 기세를 당치 못할지라. 싸우지 말고 도성을 굳게 지키고, 기병을 보내어 그 치중군량 수운하는 길을 막으면 적병이 나아와 싸움을 어찌 못하고, 또 물러갈 길이 없사오면, 수월이 못 되어 적장의 머리를 성문에 달리이다.”

의논이 분분하더니, 수문장이 급고 왈,

“적병이 벌써 도성 십 리 밖에 진을 쳤나이다.”

울도 왕이 대분하여 정병 십만을 조발하여 친히 대장이 되어 삼군을 재촉하여 호수를 막아 진을 치니라.

- 『두산(상)』, 207쪽.

< 글 3-12-3, ‘홍길동전’ >

마침 공(公)이 또한 월색을 구경하다가 길동의 배회함을 보고 즉시 불러 물어 가로되,

“네 무슨 흥이 있어 야심(夜深)토록 잠을 자지 아니하느냐?”

길동이 공경하여 가로되,
“소인이 마침 월색을 사랑함이어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내시매, 오직 사람이 귀하오나, 소인에세 이러러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까.”
공이 그 말을 짐작하나 짐짓 문책하여 가로되,
“네 무슨 말인고.”
길동이 재배하여 가로되,
“소인이 평생 설운 바는 대감(大監) 정기로 당당(堂堂)하운 남자가 되었사오 매 부생모육지은(父生母育之恩)이 깊삽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오리이까.”

- 『중양(上)』, 33쪽.

같은 작품인 ‘홍길동전’이지만 위와 같은 다양한 표기가 나타난다. < 글 3-12-1 >는 한자를 들었지만 옛 문자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이며, < 글 3-12-2 >는 현대어로 표기하였으나 따로 한자를 들지 않은 경우이다. 이 두 경우 작품의 이해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이들을 종합한 것이 < 글 3-12-3 >이다. 여기에서는 현대어로 표기하였고, 한자도 따로 들고 있다.

라. 판소리

판소리는 6종이 실려 현존하는 여섯 마당의 판소리가 모두 실려 있다. 작품의 수는 모두 19편이고, 이중 ‘심청가’와 ‘홍부가(홍보가, 박타령)’가 각각 6회 실려 있어 가장 많다.

< 틀 28, 판소리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6	11	.58	1편	8	.42	0.7편	19	1.7편

판소리의 표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 틀 29, 판소리의 표기 >

		a (원문)		b (문단)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11	0	11	0	11	0	0	11	11	0
	비율			1.00	·	1.00	·	1.00	·	·	1.00	1.00	·
보	수			8	0	8	0	6	2	2	6	6	2
	비율			1.00	·	1.00	·	.75	.25	.25	.75	.75	.25
계	수			19	0	19	0	17	2	2	17	17	2
	비율			1.00	·	1.00	·	.89	.11	.11	.89	.89	.11

판소리는 모두 현대어로 표기하였고, 옛 문자로 표기한 것은 없다. 이는 판소리의 구비문학적인 특성이 표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조작품 두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다.

< 글 3-13, '수궁가' >

토끼가 당돌히 여짜오되, “소퇴의 간인즉, 월륜 정기로 삼겼삽기로, 보름이면 간을 내고 그믐이면 간을 들입내다. 세상의 병객들이 소퇴 곧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들 보채기로, 간을 내어 파춧잎에다 꼭꼭 싸서 칩노로 칭칭 동여, 영주 석상 계수나무 늘어진 상상개비으 끌어리으다 다랑 매 놓고, 도화 유수 옥계변

으 탁족하러 내려왔다가 우연히 수부를 만나 수궁 흥미가 좋다고 허기로 완경 차로 왔나니다.” 용왕이 꾸짖어 왈, “이놈, 네 말이 당췌은 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생이나 일신지 내장은 다를 바가 없는데, 출입지 못하는 가을 어찌 내고 들 이고 임의로 출입헌단 말이냐?”

- 『블랙(상)』, 120쪽.

< 글 3-14, ‘박타령’ >

“아무리 생각하나 되리란 말이 아니 난다. 모진 목숨 아니 죽고 이 고생을 하는구나.”

형의 문전에 당도하니 그 새 성세(聲勢)가 더 늘어서 가사(家舍)가 장(壯)히 웅장하다. 삼십여 간 줄행랑을 일자(一字)로 지었는데 한가운데 솟을대문 표연(飄然)이 날아갈 듯. 대문 안에 중문(中門)이요, 중문 안에 벽문(壁門)이라. 거장(巨壯)한 종놈들이 삼삼오오(三三五五) 짝을 지어 쇠털병거리, 청창(靑淸) 옷에 문문(門門)마다 수직(守直)타가 그 중에 늙은 종은 홍보를 아는구나. 깜짝 놀라 절을 하며, 손을 잡고 낙루(落淚)하며,

“서방님 어디 가서 저 경상(景狀)이 웬일이오. 수직방(守直房)에 들어 앉아 어한(禦寒) 조금 하옵시다.”

- 『금성(하)』, 159-160쪽.

같은 판소리 작품이라도 위와 같이 다른 표기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 글 3-13 >은 한자음을 따로 들지 않았고, 구어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전라도 방언도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판소리의 구비문학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 글 3-14 >는 한자를 들고 있고, 문어체가 쓰여 상대적으로 기록문학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마. 신소설

신소설은 4종이 11회 실려 교과서 당 1편 꼴로 실려 있다. 안국선의 ‘금수 회의록’이 모두 6회 실려 있어 가장 많이 실려 있다.

< 틀 30, 신소설의 수록 양상 >

작품 종수	주			부			계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비율	권당 작품수	작품수	권당 작품수
4	5	.45	0.5편	6	.55	0.5편	11	1편

신소설의 표기유형은 다음과 같다.

< 틀 31, 신소설의 표기 >

		a (원문)		b (문단)		c (고어)		d (한자)		e (단어)		f (폴이)	
		+	-	+	-	+	-	+	-	+	-	+	-
주	수			5	0	3	2	4	1	0	5	4	1
	비율			1.00	·	.60	.40	.80	.20	·	1.00	.80	.20
부	수			6	0	5	1	5	1	2	4	4	2
	비율			1.00	·	.83	.17	.83	.17	.33	.67	.67	.33
계	수			11	0	8	3	9	2	2	9	8	3
	비율			1.00	·	.73	.27	.82	.18	.18	.82	.73	.27

신소설의 경우 옛표기보다는 현대적 표기가 대부분이다. 한자음도 대부분 들고 있다. 다만, 아래에 든 ‘혈의 누’는 일반적인 신소설의 표기 유형과는 다른 표기를 보이고 있다.

< 글 3-15, ‘혈의 누’ >

일청 전장(日淸戰爭)의 총소리는 평양 일경(平壤一境)이 썩어가는 듯하니 그 총소리가 굿치미 사람의 즈취는 쓰너지고 산과 들에 비린 썩쓸뿐이라.

평양성(平壤城) 외(外) 모란봉(牧丹峰)에 썩러지는 저녁 빛은 누엿누엿 너머 가는데, 저 희빛을 붓드러미고 시푼 마음에 붓드러미지는 못히고 숨이 턱에 단

드시 갈팡질팡 흐는 한[一] 부인(婦人)이 나히[年] 삼십이 되락말락하고, 얼굴은 분(粉)을 싸고 년드시 힌 얼굴이느 인정(人情) 업시 쓰겁게 느리 쓰히는 가을 [秋] 벗에 얼굴이 익어서 선 잉도빛이 되고, 거름거리느 허둥지둥흐는디 옷은 흘러 느려서 젖가슴이 다 드러누고 치마쓰락은 싸혜 질질 썰려서 거름을 건는 디로 치마가 밧피니, 그 부인은 아무리 급(急)한 거름거리를 흐더리도 멀리 가지도 못흐고 허둥거리기만 한다.

- 『금성(상)』, 208쪽.

단순하게 표기만을 두고 볼 때에는,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 신소설이라 했지만, 표기만으로 볼 때는 거의 고전소설과 다름없는 외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3.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특징

가. 한자문학에서 원문 보이기

한자문학에서 한자 원문을 드는 비율은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이 다르게 나타난다. 노래문학에서는 한시가 91%, 한역가요는 87%, 악장과 언해는 65%로 대부분 번역문과 함께 원문을 나란히 들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문학에서는 한자 원문을 든 경우가 한 편도 없었다.

같은 노래문학이라도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에서 원문을 들어주는 비율의 차이가 있다. 주요작품에서 한시와 한역가요는 모두 원문을 들었고, 악장과 언해도 77%가 원문을 들고 있다. 반면 보조작품의 경우에는 한시가 84%, 한역가요는 79%, 악장과 언해는 46%만이 원문을 들어 주요작품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향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 주요작품에서는 전체의 87%가 향찰 원문을 보이고 있으나 보조작품의 경우에는 36%만이 원문을 보여 역시 주요작품과 보조작품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한자문학에서는 이야기문학보다는 노래문학에서, 보조문학보다는 주요문학에서 더 많은 한자 원문을 들고 있었다. 이는 분량이 짧은 노래인 경우 따로 한자표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갈래적인 특성이 노래문학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듯하다.

반면 이야기문학에서는 학습할 분량도 많고, 많은 한문 지식의 소양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한자 표기를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보조문학의 경우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자 표기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나. 문장과 문단의 구분하기

모든 이야기문학의 작품이 문장과 문단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어, 현대 작품과 다르지 않은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었다.

다. 연과 행의 구분하기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 행과 연을 구분하고 있었다. 다만, 가사에서는 주요 작품의 30%가, 보조작품의 43%가 행을 나누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달리 표기해도 이들 작품들의 근본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곧 행의 구분은 편저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라. 옛 문자로 표기하기

노래문학에서 옛 문자 표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는 76%, 시조는 89%, 고려가요는 93%, 언해와 악장은 90%, 창가는 62%가 옛 문자로 표기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주요작품 대 보조작품의 옛 문자 표기 비율을 보면 가사는 90 : 67%, 시조는 96 : 84%, 고려가요는 100 : 87%, 창가는 100 : 50%로 나타나 보조작품에서 현대어에 더 가까운 표기를 하고 있다. 다만 악장과 언해에서는 85 : 100%로 보조작품의 고어표기가 더 많다.⁷⁶⁾

이야기문학은 노래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옛 문자의 표기 비율이 낮다. 수필은 50%, 소설은 9%, 신소설은 27%이고, 판소리의 경우에는 아예 고어 표기가 없다. 주요작품과 보조작품 사이에서도 옛 문자 표기의 차이가 크지

76) 이렇게 결과가 거꾸로 나타난 것은 예외적인 표기라기보다는 교과서에 악장과 언해의 실린 작품수가 적어 정확한 통계가 되지 못한 결과 때문으로 보인다.

않다. 수필은 50 : 50%, 소설은 12 : 8%, 창가는 40 : 17%의 비율로 옛 문자로 표기하고 있었다.

다만 향가에서 옛 문자의 표기란 창작 당시의 표기가 아니라 후세 연구자들이 추정한 표기이다. 주요작품은 87%가 옛 문자의 표기 방법을 따르고 있고, 보조작품은 45%가 옛 문자로 표기하고 있었다.

노래문학에서 옛 문자의 표기를 고수하려는 것은 노래문학 고유의 맛을 지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야기문학에서는 학습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옛 문자의 표기를 피하고 있다. 소설보다 수필에서 옛 문자의 표기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의 분량이 더 길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옛 문자로 표기하지 않는데, 이는 판소리의 구비문학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신소설도 옛 문자로 된 표기가 많지 않는데, 이는 현대문학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자어에 한자를 나란히 쓰기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모두 한자어에 대한 한자의 병기는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향가는 85%, 가사는 90%, 시조는 98%, 속요는 96%, 언해와 악장은 95%, 창가는 87%로 거의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다. 이야기문학에서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수필은 60%, 소설 95%, 판소리 89%, 신소설 82%이다. 이는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의 차이도 거의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작품에서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다. 작품에서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한자의 병기는 원문과는 관계없이 ‘漢字(한자)’가 아닌 ‘한자(漢字)’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뒤엿것의 형태가 더 일반적이다.

바. 현대적인 낱말로 바꾸기

노래문학에서 옛 낱말을 현대적인 낱말로 바꾸어 쓰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보조문학에서 조금 발견되는데 가사에서 3%, 고려가요에서 6%가 나타날 뿐이다. 대부분의 주요문학과 가사와 고려가요를 뺀 나머지 노래문학에서는 모두 원전의 낱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문학은 노래문학보다는 현대어로 바꾸어 쓰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여기에서도 보조문학의 비율이 더 높아 수필의 경우 8 : 13%, 소설은 6 : 20%, 판소리는 0 : 25%, 신소설은 0 : 33%의 비율로 주요문학을 앞서고 있다. 결국 대부분의 고전문학 작품은 원전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 단어와 어구의 풀이 보이기

작품의 단어나 어구에 대해 특별한 풀이나 해설을 하는 경우는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의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작품과 보조작품과의 차이만이 발견된다.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에서 풀이를 들어주는 비율은 향가 100 : 55%, 가사 100 : 67%, 시조 100 : 29%, 속요 92 : 19%, 악장과 언해 92 : 42%, 창가 100 : 17%, 수필 100 : 37%, 소설 100 : 50%, 판소리 100 : 75%, 신소설 80 : 67%로 나타난다. 곧 주요문학에서는 대부분 풀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조문학에서는 지면상의 제약 등으로 풀이를 충분히 신지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아예 현대적인 문체로 아예 바꾸어 버리고 있다.

IV.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는 규칙

IV장에서는 III장의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는 규칙을 살펴보려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표기를 언급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하기 때문에 표기에 대한 규칙은 추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1. 표기에 대한 기존의 규칙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고전문학의 표기는 교과서나 작품의 갈래, 성격에 따라 다양하고도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교과서나 교육과정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여러 자료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될 뿐이다.

교육부에서 발간⁷⁷⁾한 여러 자료들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관련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 고전문학

- (2) 국문학이 시대에 따라 변천되어 온 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주석을 통하여 선인의 문학세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4) 원전을 인용할 때에는 원전대로 표기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꼭 필요한 때에는 한글이나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⁷⁸⁾

77) 다음 사이트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관련한 여러 자료들이 실려 있다. <http://library.moe.go.kr>

78) (고등학교 5차) 1984학년도부터 사용할 2종교과서 및 2종지도서 집필상의 유의점.hwp

*** 중학교 3-1, 3-2**

4. 기타 - ④ 학습활동 제재에 나오는 난해 어휘, 사투리나 고어 등은 주로 달고 그 의미를 표준어로 밝힌다.

*** 고등학교 보통교과 국어(하)**

4. 기타 - ■ 표준어 및 표준발음, 한글 맞춤법 등의 학습을 강조하고, 내용 중 사투리나 고어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를 달아 그 말의 표준어 및 표준 발음, 올바른 표기를 밝혀 준다.⁷⁹⁾

*** 문 법**

4. 기타 - ■ 내용 중에 사용된 난해 어휘, 사투리나 고어 등은 주를 달아 표준어로 그 의미를 밝힌다.⁸⁰⁾

*** 문 학**

마. 기타

(1) 인용된 제재(소단원 중)는 작자와 출처를 명기하고, 내용 중에 사용된 사투리나 고어 등은 주를 달아 표준어로 그 의미를 밝힌다.⁸¹⁾

*** 문학(상, 하)**

가. 내용의 선정과 조직

(라) 수록작품은 문학사적으로 문학적, 교육적으로 공인된 평가를 받은 것을 선정하고, 전작을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작품 전체 내용의 요약이나 주석을 부린다.⁸²⁾

79)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1종도서 연구개발 추진계획(교과목별 집필상의 유의점).hwp

80) 이는 화법·독서·작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

81) 제6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수정본).hwp.

82)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고등학교).hwp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에서 제시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원칙이란 다음의 두 가지 뿐이다. 첫째는 원문대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수록한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 주석을 부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는 문제가 많다. II장에서 살펴본 대로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 사이에는 많은 중간 지점이 있다. 쓰는 방향,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유무에서부터 문장과 문단의 구분, 옛 문자의 사용여부까지 다양한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 이 중간 과정 중에서 원문이 놓인 위치가 어디쯤인가를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우리가 원칙을 말할 때는 대개 예외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포함한다. 하지만 위의 규정 어디에서도 그 예외에 대해서 밝혀두지 않았다. 또 주석을 부린다 하였지만, 그 주석의 개념이나 범위도 분명하지 않다. 주석이 단순한 현대어 풀이를 말하는 것인지, 그 이상의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글 전체에 대한 주석인지, 하나의 낱말에 대한 주석인지도 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표기의 원칙을 보여주었지만 워낙 추상적인 진술이어서 더 불분명한 태도가 된 것이다.

2종 교과서인 문학교과서를 심사하는 규정에서도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한 기준은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다음은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의 검정 기준 중 표기와 관련한 부분이다.

15. 어문 규정(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준수하였고, 어법에 맞는 문장으로 기술하였는가.
16. 학습 목표, 학습 안내, 학습 활동의 제시나 설명은 통일성이 있고, 내용과 대상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고 편견이 없으며, 학습 용어 사용에 일관성이 있는가.
19. 국어 어문 규정에 어긋남이 없고, 내용 중에 사용된 사투리나 고어 등은 주를 달아 표준어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가.⁸³⁾

위 검정 기준을 문맥 그대로만 이해한다면,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한 유일한 심사 기준은 ‘충분한 주석’의 유무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문학교과서의 검정 기준에 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의 방법에 대해 전적으로 편저자들의 판단에 일임했다는 반증이 된다. 고전문학 작품이 문학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⁸⁴⁾

한편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원칙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6차 국어교과서의 일러두기⁸⁵⁾에서 한 면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 * 문학 작품은 되도록 원전 또는 발표 당시의 모습을 존중하되,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었다.
- 표기는 현재 한글맞춤법⁸⁶⁾에 따랐다.
- 고전 작품 중 일부는 현대어로 옮긴 것을 실었다.

이처럼 국가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규정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

83) 한국교육과정 평가원(<http://www.kice.re.kr>)

84) 검정 기준 중 이런 것이 있다. “도표나 도식 등의 색상이나 모양은 학습 효과를 고려하고, 문학교과서의 특색을 살려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한다.” 표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도 색상에 대한 기준은 있다. 이를 볼 때 문학교과서의 텍스트는 삽화의 색상보다도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된다.

85) 교육부, 『6차 국어교과서(상)』, 1997, 4쪽.

86)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현행 한글맞춤법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자모’에 관한 것이고, 3장은 ‘소리에 관한 것’이며, 4장은 ‘형태에 관한 것’이며, 5장은 ‘띄어쓰기’이고, 6장은 ‘그 밖의 것’이라 하여, 기타 여러 맞춤법의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2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고전문학을 표기할 때 모두 고민해야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야 하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87)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옛표기에 대해 정리되지 못한 입장이 교과서에 그대로 노출되기도 한다.

이 글(기미독립선언서)은 오래 전에 쓴 것이어서 어휘나 문체가 지금과 많이 달라 읽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 글을 공부하는 까닭은, 난잡한 글을 읽는 능력을 기르기보다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자취를 당시의 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략)…… 오늘날의 문체로 옮긴 것을 부록에 실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읽으면 물 흐르듯 하는 외침을 오늘에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도 현대어 풀이를 중심으로 해 본다.88)

기미독립선언문이 본격적인 고전문학 작품은 아니어도 국정 교과서를 편찬하는 이들이 옛 표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다. 앞 부분에서는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글로 읽어야 한다고 한 반면, 뒷 부분에서는 문제의 쉬운 해결을 위해 현대어 풀이를 읽자고 한다. 앞뒤가 다른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교과서 편저자들의

87) 이는 교육부 담당자의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에 질의한 바, 아래는 이에 대한 담당자의 답변이다.

“교과서의 표기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중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고전문학 작품을 따로 지정하여 표기 지침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정 국어교과서 집필상의 유의점 '나. (6)'에 "어려운 어휘, 사투리, 고어 등은 지면 아래에 주석을 달고, 그 의미를 표준어로 밝힌다."라고 안내하였으며, 검정 교과서인 문학의 경우는 '라. (4)'에 "지면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어, 난해어, 구절 풀이 등을 제시하는 '중요 어구'...란을 둘 수 있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문학작품에서의 표현. 표기는 연구의 대상입니다. 고어나 사투리를 표준어로 대응하여 모두 옮기는 것은 작품성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과서의 성격을 감안하여 어디까지 표준어로 바꿀 것인가는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 교육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후략)" (2002.10.8)

88) 교육부, 『6차 국어교과서(하)』, 26쪽(학습활동 도움말).

고민을 읽을 수도 있다. 곧 역사라든지, 시대 정신 등 텍스트의 외적 요소들을 강조할 때는 옛표기를 더 선호하는 것이고, 학습 활동을 이해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현대어로 풀이된 텍스트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해 특별하게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타나는 표기는 결국 편저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국가 교육 기관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교과서마다 다른 표기 규칙을 가지고 다른 표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함에도 11종의 교과서에서 나타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는 전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또 일부 갈래에서는 표기 방법이 거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표기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서나 편저자가 다른데도 표기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편저자들 사이에 직접적이든, 암묵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문서화되지는 않았어도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방법이 관습화되어 전해지고 있었는데 편저자들이 이를 수용해 따랐다는 것이다. 물론 이 중 첫째 추정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개별적인 연구를 통해 교과서를 편찬하는 편저자들의 표기에 대한 규칙을 합의를 통해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마땅히 조정의 역할 맡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이기에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다만 교과서 편저자들의 전공이 대부분 비슷하기에 학문하는 과정 속에 터득한 고전의 표기 방법이 비슷하게 교과서에 자리잡았을 수는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두 번째 경우, 곧 관습적인 규칙에 더 가까울 것이다.

2. 관습적인 표기 규칙 1 - 시간에 따라

이런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이루어진 고전문학의 표기를 ‘관습적인 규칙’이라고 따로 이른다. 이 관습적인 규칙을 찾아내려는 것이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이다. 하지만 관습적인 규칙을 찾아내는 일이 간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관습적이기 때문에 따로 정해진 원칙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또 많은 편저자들은 상대로 한 조사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규칙을 찾아보기로 한다. 그 단서는 김홍규의 글에서 출발한다. 김홍규는 문학 작품의 수용에 관여하는 지적, 정서적 층위를 다음⁸⁹⁾처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① 텍스트에 관한 서지적 이해 판단
- ② 텍스트 언어의 해독
- ③ 장르적 관습, 장치, 특성의 이해
- ④ 작품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요인, 환경 및 작가에 대한 이해
- ⑤ 작품에 대한 느낌, 심미적 반응의 형성,
- ⑥ 작품 해석
- ⑦ 작품에 대한 소감, 평가

현대문학 작품이라면 ①~④의 과정은 생략되거나 간략하게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 고전문학 작품은 ①~④의 과정에 걸쳐 오늘날의 독자들과 단절되어 있다. ①·②의 단계는 물론이고, 적절한 도움이나 교육이 없이는 ③·④의 단계도 일반 독자 및 학생들이 손쉽게 넘어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①~④의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적, 정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문학 작품에 비해 고전문학 작품의 감상이 더 어

89)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앞의 책, 309쪽.

렵고,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까닭이다.

이 시간의 문제가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 자연적인 시간

고전문학은 작품에 따라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게 나타난다. 곧 한자를 해독하거나 고어를 읽는데 드는 시간적인 노력이 한글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 작품의 길이에 따라 ②의 단계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이야기문학에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노래문학에서는 시간이 적게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과서의 단원은 교육과정에 나타난 단위별 시수에 시간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 교육과정을 따르는 교과서에는 다양한 갈래의 고전문학 작품이 실려 있다. 한자문학도 있고, 한글문학도 있다. 노래문학이 있고, 이야기문학이 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성격과 갈래가 다른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 똑같은 시간상의 자격을 부여한다. 고려가요 한 편도 하나의 소단원이 되고, 고소설도 하나의 소단원이다.⁹⁰⁾ 결국 고려가요 한 편을 감상하는데 주어진 시간과 고소설-일부 발췌한 작품이지만을 감상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같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을 해독하고 이해하는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은 같을 수 없다. 김홍규의 ②의 단계까지 이르는 시간이란 당연히 고소설이 더 길 수밖에 없다. 그만큼 분량이 길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같은 수업 시간 안에 이들 작품들을 학습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 따라서 교과서 편저자는 ②의 단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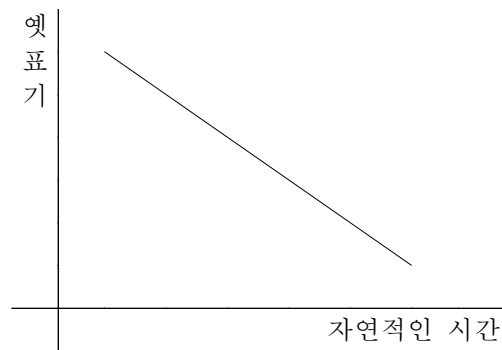
90) 예외가 있다면 시조이다. 시조 한 수가 하나의 소단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개 몇 편이 모여 하나의 소단원을 이룬다.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작품, 특히 이야기문학을 보여줄 때는 학습자들에게 시간상의 배려를 해주려 한다. 그리고 그 배려는 현대어와 가까운 표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짧은 노래문학이라면 이런 배려에서 비교적 자유스럽다. 그렇기에 이 때에는 원전을 충실하게 따르려는 고전문학 작품 표기의 관성이 작용하여 많은 부분에서 옛표기를 고수하게 되는 것이다.

한자로 표기된 이야기문학은 가장 극단적인 시간의 문제를 보여준다. 학습자들이 한문 문장을 해독하는 일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져도 불가능한 일이다. 이럴 경우에는 아예 원전 표기를 포기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추정을 통해 하나의 관습적인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곧 1) 작품의 해독하는데 필요한 자연적인 시간은 옛표기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작품 해독에 드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표기는 현대적인 표기에 가까워지고, 짧으면 짧을수록 원전에 가까운 표기를 하게 된다.

< 틀 32, 관습적인 규칙① - 자연적인 시간 >



나. 인위적인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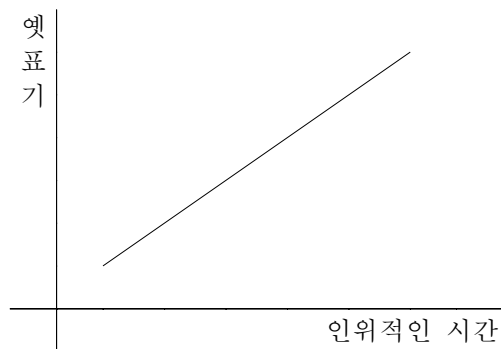
시간의 문제는 주요작품과 보조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주요작품은 단원의

중심이 되는 텍스트로 그 단원의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품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업 시간은 이들 주요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시간 배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편저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주요작품에서 배려하게 되고, 이에 따라 옛표기가 가능하게 된다. 김홍규의 ②의 단계까지 이를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보조작품은 작품의 첫머리에서 도입을 하거나 마무리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든, 말 그대로 보조적인 작품들이다. 그렇기에 주요작품과 견주어 이들 작품에게 충분한 시간적인 배려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학습자가 더 빨리 작품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도에서 보조작품은 현대어 표기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관습적인 규칙을 추정할 수 있다. 교과서 편저자들이 2) 인위적으로 제공한 시간과 옛표기는 비례 관계에 놓인다. 곧 편저자가 더 깊이 학습하고 감상할 것을 요구하여 주요작품으로 실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부여한 작품은 원전에 가까운 표기를 하는 반면, 많지 않은 시간을 부여한 보조작품들은 현대적인 표기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 틀 33, 관습적인 규칙② - 인위적인 시간 >



3. 관습적인 표기 규칙 2 - 갈래에 따라

시간의 문제로 모든 표기 규칙을 설명할 수는 없다. 다만 시간은 표기의 큰 틀을 보여줄 뿐이다. 실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서는 갈래에 따라 다양한 표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각의 갈래들이 갖는 독특한 성격 때문이다. 이런 갈래의 성격에 대해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갈래의 정형성

먼저 생각해 볼 갈래의 성격은 노래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형성이다. 실제로 국문학사상 존재했던 대부분의 노래문학들은 일정한 틀을 갖추고 있었던 정형시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미 사라진 갈래가 되었어도, 노래문학의 정형성은 여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은 당연히 원전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진다. 원전을 버리고 함부로 작품을 현대적으로 표기했을 때에는 정형성이 파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또 이는 운율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원전을 고쳤을 때에는 자칫 작품이 본래 지니고 있던 운율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운율의 상실은 노래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래문학의 표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원전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한 갈래가 자신만의 고유한 틀을 가지며 정형성의 지닌다는 것은 다른 갈래들과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갈래들은 다른 갈래들과의 소통이 적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영역에 갇혀 고립되어 있다는 말과 어느 정도는 통하는 말이 된다. 노래문학은 대부분 개별 갈래로 존재하는 것이고, 인접 갈래와는 단절되어 있다. 이렇게 고립되었고, 단절된 문학 갈래를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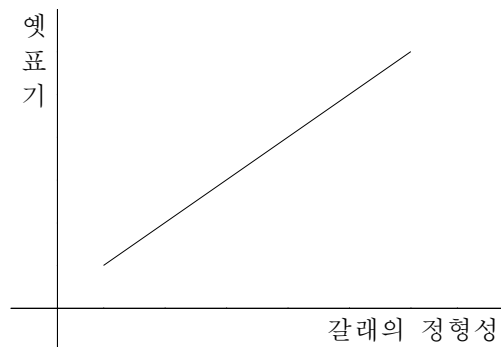
타내기 위해서는 갈래 고유의 정체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실례로 예전의 노래와 오늘의 노래에서 느끼는 차이는 예전의 소설과 오늘의 소설에서 느끼는 차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고소설과 현대소설을 한데 아울러 소설이라 하는 데에는 인식하지 않지만, 시조와 현대시를 묶어서라고 말하는 데에는 어딘지 어색하다. 이처럼 노래문학이 더 정형화되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한시에서 원문을 짐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한자표기 문학이라도 한문 산문류는 관습적인 표기에 따라 현대어로 번역한 표기를 하는 반면에 한시는 고집스럽게 한문 원문을 고집한다. 한시를 뛰어넘을 만한 정형성을 가진 국문학사상의 갈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야기문학에 비해 노래문학의 경우 더 현대적 표기를 꺼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습적인 세 번째 규칙을 찾아낸다. 3) 갈래의 정형성과 옛표기와는 비례하는 것이다.

< 틀 34, 관습적인 규칙③ - 갈래의 정형성 >



나. 갈래의 특수성

이상 살펴본 세 가지 관습만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모두 설명할 수

는 없다. 관습적인 규칙이 분명 표기의 큰 틀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각각의 작은 갈래를 나타낼 때에는 각각의 갈래만이 갖는 특수성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 몇 가지 갈래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시조와 가사와의 관계이다. 관습적인 규칙에 따르면 훨씬 짧고, 더 정형화되어 있는 시조가 가사보다 옛표기에 가까워야 한다. 그런데 살펴본 결과⁹¹⁾를 보면 시조의 고어표기는 96%이고, 가사는 90%여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관습적인 첫째 셋째 규칙에도 불구하고, 시조에서는 또 다른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문학 갈래와의 연속성 때문이다. 시조는 오늘날에도 창작되고 있는데 비해, 가사는 이미 과거로부터 단절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에도 창작되고 있는 시조가 훨씬 더 현대의 표기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가사는 과거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현대적 표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향가의 표기에도 일반적인 관습적인 규칙과는 또 다른 예외가 존재한다. 향가는 그 길이가 짧고, 일정한 정형성을 띠는 갈래이다. 그렇기에 앞서 살펴본 관습적인 규칙을 따르자면 원전 또는 원전과 가까운 형태의 표기를 실어야 한다. 하지만 원전 자체가 쉽게 해독할 수 없는 향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문제가 되었다. 그리하여 양주동 혹은 김완진의 고어 해석을 들게 된 것이다. 곧 향찰 원전의 대치물로 옛표기가 존재하는 것이다.

악장 역시 모든 주요문학이 옛표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악장이라는 갈래가 창작된 당시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음을 의식한 결과이다. 곧 악장은 조선 전기의 특수한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당연히 오늘날의 문학이 아니라 조선시대의 문학으로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에 악장은 옛표기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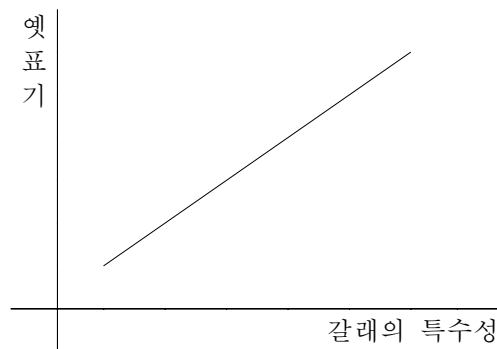
91) 이 통계는 주요문학만을 다룬 것이다.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관습적인 규칙에서 보조문학은 큰 의미가 없다.

두시언해 등의 번역문학의 표기도 갈래의 특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엄밀히 두시언해는 한시 원전에 대한 한문학적인 가치는 있을지언정, 국문학사적인 가치는 적다. 우리의 문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시언해가 필요한 까닭은 초간과 중간을 거쳐 간행된 자료들로부터 옛말의 모습과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시언해에서는 문학적인 관점보다는 당연히 국어학적인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옛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필에서는 흥미 있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산성일기’는 교과서에 실려 있는 세 편 모두가 옛표기를 하는 반면, ‘조침문’은 세 편 모두가 현대적 표기를 하고 있다. ‘산성일기’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수필이고, ‘조침문’은 역사와는 거리가 먼 내방수필이다. 곧 특수한 역사적 사실을 보이는 작품이면 더 옛표기에 가깝게 표기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네 번째의 관습적인 규칙이 있다. 갈래가 시대 · 역사적 상황이나 국어학적인 지식 등 문학외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부각될 때 옛표기에 가까워진다. 곧 4) 갈래의 특수성과 옛표기와의 비례한다.

< 틀 35, 관습적인 규칙④ - 갈래의 특수성 >



V. 바람직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V장에서는 고전문학 작품의 바람직한 표기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IV장에서 현재까지의 관습적인 고전문학 작품의 4가지 표기 방법에 대해 추정해 바 있다. 그리고 일부의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해 다시 말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관습적인 표기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새로운 표기 방법을 제시할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글에서는 새로운 표기 방법에 대해 따로 제시할 수는 없다. 완벽한 옛표기라든지, 혹은 완벽하게 번역되거나 현대어역 된 작품을 신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고전문학 작품은 옛표기와 현대적 표기의 두 양끝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어느 지점에서 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중간쯤의 어느 지점은 관습적인 규칙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 새로운 표기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고, 기존의 관습적인 표기의 규칙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고전문학 작품을 교과서에 신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냥 지나쳐 버렸던지, 혹은 과장하여 지나친 의미를 부여했던지, 잘못 생각하여 그릇되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이들에 대해 되돌아 생각해 보는 일은 가능하다. 지금까지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연구결과도 미미한 고전문학 작품의 바람직한 표기 방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고전문학 교육과 전통성’, ‘국가 수준에서 학교 · 학급

별 표기 유형의 선정’, ‘수용과 소통을 위한 번역과 현대어역’, ‘살아있는 고전문학 텍스트의 지향’의 네 가지 생각을 밝혔다.

1. 고전문학 교육과 전통성

어떻게 고전문학 작품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은 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가 관습적인 규칙을 따르고는 있지만, 교과서나 편저자에 따라 다양하고 다르게 나타난다. 분명히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교육적이고 문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표기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방법은 원칙에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원칙이란 당연히 교육과정에 나타난 것이라야 한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문학이 정규 학제에 따른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기 때문이다,

곧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 고전문학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또는 고전문학 작품의 학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고전문학에 대한 관점이나,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현대문학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면, 고전문학 작품만을 위해 따로 표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반면 고전문학을 위치와 역할이 현대문학과는 다르게 주어져 있다면 고전문학만을 위한 표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교육과정에서 고전문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 이후 고전문학은 문학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고전문학만의 항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래는 ‘문학’ 항목에서 고전문학

에 관련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뽑은 것이다.

- ‘국어’에서

(7)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을 읽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찾는다.

【심화】 ○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토의한다.⁹²⁾

- ‘문학’에서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① 한국 문학의 개념, 성격, 갈래, 특질을 이해한다.

②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읽고,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을 이해한다.⁹³⁾

그리고 위의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국어’에서

(바) 문학 지도에서는 개별 작품을 학습자의 삶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심미적 상상력과 건전한 심성을 개발하고 바람직한 인생관과 세계관 형성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 특히, 문학의 창작 지도에서는 개작, 모작, 생활 서정의 표현 등 작품의 심층적 감상을 돕는 학습 활동을 강조한다.⁹⁴⁾

- ‘문학’에서

차. 고전문학 작품은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92) 교육부,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1997, 67-68쪽.

93) 위의 책, 314쪽.

94) 위의 책, 77쪽.

수 있도록 지도하며, 훈고 주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한다.⁹⁵⁾

이상에서 살펴보면 현대문학과는 다른 고전문학의 특성이란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찾기 위한 것이다. 곧 우리 문학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재로서 고전문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고전문학의 위상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통이라는 특수성 위에 문학 일반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보편성이 덧붙여져 있다. 결국 교육과정 속의 고전문학은 ‘문학의 감상’이라는 보편성과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는 특수성이 더하여진 이중의 역할을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문학 교육의 보편성에 대해서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과연 ‘한국 문학의 전통’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며, 그것과 표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전통’이라는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내용은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민족적 전통성, 즉 언어의 단일성, 문학의 창조자와 수용자의 단일성, 민족 개념과 국가 개념의 동질성과 문학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통성, 민족 문학을 한국 문학의 미래형으로 상정하기 위한 통일을 지향하는 전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야 함을 이해하도록 선정된 항목이다.⁹⁶⁾

문학의 창조자와 수용자가 단일하다는 것은 굳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언어의 단일성’이라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표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95) 위의 책, 325쪽.

96) 위의 책, 68쪽.

때문이다. ‘언어의 단일성’이란 옛 언어가 현대의 언어와 많은 부분에서 다를 지언정, 이것은 단일한 것이고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전통을 찾기 위해 옛 언어를 찾아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족보를 읽으며 몇 백 년 전에 이미 작고하신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언정, 그 분과 진정한 대화는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전문학을 통해 언어적 전통을 찾는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만일 고전문학을 통해 언어적 전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언어 자체의 전통일 뿐이지 문학의 전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고어’도 우리의 훌륭한 전통⁹⁷⁾임에도 분명하다. 하지만 ‘고어’란 우리 전통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가 할아버지들을 만나는데 족보의 어려운 한자들이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족보에 담겨 있는 문자는 이미 우리의 문자와는 이미 다른 문화로 존재한다. 차라리 한 폭은 낡은 초상화가 더 할아버지들과 가깝게 다가서게 할 것이다. 전통이란 과거형이 아니고,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현재형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이나 음악은 예전의 것과 지금의 것에서 많은 합치점이 있지만, 옛 문자는 그렇지 못하다.

단순히 옛 문자를 익히는 행위가 전통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고전을 가르치는 목적이 한 낱말이나 글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⁹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에 쓰인 옛 문자로 전통을 찾아간다는 것은 ‘고어’의 역할을 다소 과장한 것이다. 오히려 고전문학 작품 속에서

97)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날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 또는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연세한국어 사전』, 1600쪽.)”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고전문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다름이 없다. 곧 고전문학이 우리의 전통이라는 데에는 그리 큰 거부감이 없는 것이다.

98) 김형규, 「고전교육의 내용과 교재 내용」, 『교육』 9호, 서울대 사대, 1959, 8쪽.

전통을 찾는다면 그것은 고전문학의 ‘형식’인 표기가 아니라 ‘내용’인 그 속에 담긴 옛사람들의 삶과 정서여야 할 것이다.

만일 과거의 전통 혹은 문화적 유산이 현재의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전통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단지 일방적으로 ‘줄긋기’로 외형상의 동일성⁹⁹⁾만을 따져 이를 전통이라 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면, 진정한 전통의 의미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통이란 말, 특히 ‘전통적’이라는 형용사는 때로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독창성이 없는’, ‘보수적’, ‘반동적’, ‘회고적’ 등등의 나쁜 뜻을 가질 수도 있다”¹⁰⁰⁾는 이상섭의 말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이란 ‘당대의 삶과 정서’ 중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정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전통을 보이기 위한 장치로 옛표기를 하려는 집착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옛표기로 이루어진 고전문학 작품의 감상은 학습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고어를 익히게 한다면, 문학 본래의 역할인 이해와 감상은 뒤로 밀리게 되고, 옛표기에 대한 독해가 앞서게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시간적인 제약이 너무 크고, 학습자의 지적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만일 고어를 통해 전통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면, 다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옛표기를 통한 언어의 동질성을 보여주려는 데 굳이 문학작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때 훈민정음과 같은 글들이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 문학작품이 아닌 이런 글들은 독해와 이해를 위한 텍스트이지, 감상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고전문학은 고어라는

99) 염은열, 『고전교육과 표현교육론』, 열락, 2000, 282쪽.

100) 이상섭, 『문학용어 비평사전』, 민음사, 2001, 304-305쪽.

등식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고전문학 작품이 문학 감상을 위한 텍스트인지, 언어적 전통을 이해하려는 텍스트인지 분명한 구분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7차 국어교과서(하)』에서는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국어가 걸어온 길”이라는 단원에 실린 글들은 보면, 문학의 대상과 언어적 전통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단원에는 ‘서동요’와 ‘세종 어제 훈민정음’, ‘소학언해’, ‘동명일기’, ‘독립신문창간사’가 실려 있다. 이 중 ‘서동요’와 ‘동명일기’는 분명히 문학작품으로 분류할 수는 있지만, 학습 활동에서는 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는 않다.¹⁰¹⁾ 이와 비슷한 경우로 문학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 굳이 국어학적인 접근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덧붙여 언어적 전통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옛 작품들을 시각화하여 영인본으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⁰²⁾ 옛 책의 체제나 옛표기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맛볼 수 있을 뿐더러, 예전과는 다른 오늘날의 표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어학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고, 삼

101) 이들 작품의 학습활동을 들어본다.

(서동요) 1. ‘主’는 다른 방식으로 두 번 쓰였다. 각각 음과 뜻을 어떻게 따온 것인지 말해보자. 2. ‘隱’의 기능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3. ‘隱’의 기능에 비추어보아 이전 시기의 고유명사 표기와 향찰 표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7차국어(하)』, 25쪽]

(동명일기) 1. 이 글에서 중세국어와 달라진 점을 눈에 띄는 대로 찾아보자. 2. 여성들이 한글로 문자 생활을 한 이유를 조사해보고 그 의의를 토론해 보자.[『7차국어(하)』, 39쪽]

102) 현재의 국어교과서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다. 곧 ‘동국신속삼강행실도’가 영인되어 텍스트로 제시되어 있고, 다시 교과서의 아랫부분에 이를 현대어로 풀이하고 있다. 문학 작품을 피해 이러한 글을 든 것도 고어의 이해와 문학의 감상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덜고자 한 의도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화의 차원이 아니라 텍스트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고전문학 작품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고전문학의 문학적 의의에 대해 다음처럼 설명한다.

고전문학 작품을 지도하는 이유는 대체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고전문학은 우리 민족의 언어적, 문화적 유산으로서 그 자체가 알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전문학과 현대 문학 사이에 내용과 형식, 표현면에서 상동성이 있어 오늘날의 문학 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시간의 거리를 두고 대상을 접함으로써 일종의 원근법적 감각을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원근법적 감각이란 대상과의 시간적 거리를 조정하면서 다양한 관점, 방법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¹⁰³⁾

그러나 이런 고전문학에 대한 원근법적인 감각은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지 모른다. 사실 지금까지의 고전문학 교육은 당연히 가르쳐야 할 당위로만 생각하였다. 단 한번도 교육의 대상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달라졌음을 살펴보지 않았고, 이들에게도 여전히 고전문학이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쓸모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공급자가 우위에 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고전문학은 선인들이 물려준 전통 문화유산이고, 그 속에 선인들의 삶의 지혜가 녹아 있으므로, 이를 숙연한 마음을 이해하고 감상하게 하는 것¹⁰⁴⁾이 고전문학 교육의 유일한 방법과 목적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

103) 위의 책, 325쪽.

104) 노진한, 「민족문화의 계승·창조로서의 국문학 교육」, 『국문학과 문학』, 월인, 2001. 331쪽.

단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전문학의 역할이란 문학으로서의 보편성보다는 전통을 전달하는 특수성만이 강조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가치만을 따르려는 관성은 보수적이고 과거 회귀적인 고전문학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주제가 그렇고, 작품을 통한 효용 가치도 그러하며, 이 글에서 말하는 표기 또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2. 국가 수준에서 학교 · 학급별 표기 유형의 선정

이미 살펴본 대로 현재 고전문학 작품은 교과서나 편저자에 따라 표기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표기에 대한 관습적인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습적인 규칙에는 예외가 많다. 또한 교과서를 편찬하는 사람들의 문학관이나 문자관이 다른 탓에 같은 작품, 같은 교과서에서도 다른 표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규원가’를 통해 그런 예를 들어 보인 것이다.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갈래 (큰)	갈래 (작은)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규원가	허난설헌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앙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이 중 두 곳의 표기만 같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달리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까지 고전문학의 표기에 대한 고민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른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모든 교과서의 편저자들이 똑같은 표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다양한 표기로 경직되지 않은 문학을 본질을 나타낼 수 있다. 또 편저자들은 표기의 다름으로 자신이 편찬한 교과서의 성격이나 자신의 교육·문학관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는 너무도 이상적인 생각이 된다.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문학이란 삶의 정서를 일깨워 주는 감상의 대상으

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교과들이 그렇듯이 문학 역시 학교에서의 정규 교과과목이고, 이는 입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감상의 대상이 아닌 학습의 대상으로 문학의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문학의 현실적인 위치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루기 위한 수업 교재가 아니다. 우리의 교육 풍토에서 교과서¹⁰⁵⁾는 단순한 수업의 보조 자료가 아니라 성전(聖典)일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도 없고, 비판할 수도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재이다. 이럴 때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실린 문학 텍스트들은 학습자들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11종의 문학교과서는 그 숫자만큼이나 부담이 된다. 11종에 실려 있는 작품의 다양성이 또한 부담이 되고, 그 작품의 표기가 다른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이런 부담들이 서로 얽히고 엮이면 기하급수적인 작품의 수가 학습자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학습자들에게는 표기가 다르면 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작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우리의 교육현장에서는 모든 교육 현상은 입시로 귀결되고, 입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으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는 당연히 고전문학 작품이 출제되는 되는 것인 바, 특정한 텍스트가 제시되기 마련이다. 여기에서 수능에 출제된 고전문학 작품을 실은 교과서는 크게 성공하는 것이고, 거기에 표기까지 일치하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반면에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교과서-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택한 교과서에서 시험 텍스트가 출제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불만일 수밖에 없다. 또 작품은 같더라도

105) 매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끝나면, 출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한다. 이 기자회견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출제하고....”, “기본에 충실한 학생이면....” 그래서 우리 수업의 기본을 이루는 교과서가 중요한 것이다.

텍스트가 다르다면, 이를테면 교과서는 현대적 표기인데, 수능은 옛표기라면 그 교과서는 있어도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습자들, 특히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교과서 이외에 또 다른 교과서와 텍스트를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현재의 우리의 학교와 입시 풍토에서는 작품의 통합을 요구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표기의 통일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수능능력 시험을 주관하는 국가-교육부나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런 작품이나 표기의 통일을 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는 수능능력 시험의 지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 글 5-1, '사미인곡' >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빅설(白雪)이 혼 비친 제, 사름은쿠니와 놀새도
긋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닐너 므습허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췌 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둑(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 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티 던공후(鈿篋篋)*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츠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셤고.

하르도 열두 쎄 혼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허니, 므
옴의 띠쳐 이셔 골슈(骨髓)의 쎄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엇디
허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
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뜨리라. 님이
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츠려 호노라.

*쇼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옥누(玉樓) : 옥황상제가 있는 곳

*모침(茅簷) : 초가집 처마

*취슈(翠袖) : 푸른 소매

*슈둑(脩竹) : 긴 대나무

*던공후(鈿篋篋)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 글 5-2, '규원가' >

천상(天上)의 견우 직녀(牽牛織女) ㉠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手)* 가렸관데,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숲다.

세상(世上)에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

* 약수(弱手) : 도저히 건널 수 없다는 전설상의 강 이름

이렇게 전혀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통합을 위한 노력은 검인정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출판사들은 교과서를 발행함과 동시에 각종 자습서와 여러 참고서류를 만들어낸다. 이들 책자들은 기왕에 발행된 모든 문학교과서를 종합한 것¹⁰⁶⁾으로 그들 교과서에 실린 모든 작품을 아우른다. 물론 그런 책자에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른 표기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⁰⁷⁾ 이 통일은 관습적

106) 18종의 문학 교과서에서 이 글에서 다룬 것은 11종의 교과서뿐이다. 시중에서 수집이나 구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3년 3월 말경에 문학 18종 전 작품을 수록하였다는 참고서들이 발행되고 있었다. 새로운 교과서가 발행될 때 교사들에게는 2월 말경에나 전달된다. 하지만 이 때에는 이미 여러 출판사에서 새 교과서에 맞춘 참고서나 문제집을 만들어낸 후이다. 교과서의 유통에서 학교나 교사가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현상이다. 문학 교과서도 다르지 않았다.

규칙과 편저자들의 교육적인 또는 윤리적인 관점¹⁰⁸⁾에 따른 개인적 선호가 적절하게 섞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국가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과 표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필요한 것이지만 없었기에, 그 역할은 영리단체인 참고서를 발행하는 출판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들은 상업주의적인 원칙에 따라 작품을 선정하고 수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참고서가 필요한 교과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이 때 상업주의적인 가치 판단이 표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교과서의 내용이 쉬우면 굳이 참고서가 필요하지 않다. 텍스트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전문학교과서의 문학 작품은 옛표기로 더 가깝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교과서를 대신할 수 있는 참고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통일의 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회수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앞서야 함은 물론이다. 그 논의는 당연히 교육적인 의의와 문학적인 의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야 한다. 그 논의의 결과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해 결정하고 이를 교육과정 등의 문서를 통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의 결과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폐지하고, 하나의 국정 교과서만을 남겨둔다거나, 또는 국가가 분명하고 명백한 고전 작품의 표기 유형을 정해두고, 이를 모든 검인정 교과서에 강요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선정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각 학교급별 또는 학년

107) 이 때문에 문학 검인정 교과서의 채택에 있어 각 출판사의 학교에 대한 로비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독서나 작문과 같은 다른 교과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일이다. 문학교과서의 채택으로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이다. 문학교과서의 불충분과 불안정을 깨달은 학생들은 또 다른 보조 교재를 찾기 마련이다.

108) 유종호, 「문학텍스트의 확정」,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20-21쪽.

별로 적절한 표기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용 상용 한자를 정해 학년별로 단계를 두고 익히게 하는 한자 학습과 비슷한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 수준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또 있다. 여러 고전문학 작품 중에서 기준이 될 만한 텍스트도 찾아 제시해야 한다. 역시 교육용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고전문학 특히 고대소설의 경우 수많은 이본이 존재한다. 이본에 따라 내용뿐 아니라 주제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대로 표기의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 어느 시대의 작품이냐에 따라 표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이본 중 교육적인 입장에서 가장 합당한 표준 텍스트를 정하고 이를 표준화된 작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하나의 작품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텍스트를 선정하여 학습목표에 맞는 적당한 작품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텍스트의 형식적인 면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고전문학의 미적인 특성이나, 당대인의 삶과 정서, 그들의 사유방식¹⁰⁹⁾ 등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보는 일도 이에 못지 않은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논의의 최종 단계는 통일된 텍스트를 교과서에 신는, 또는 신도록 유도하는 일이다.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하나의 텍스트만을 강요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고전문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고도, 교육적으로도 가치 있는 자료의 표본을 제시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편저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였다지만, 여전히 교과서의 텍스트들은 ‘고급 문화’일 수밖에 없다.¹¹⁰⁾ 이렇게 이상적인 이유뿐 아니라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학습자들이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9) 박영주, 앞의 글, 7쪽.

110)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417쪽.

3. 수용과 소통을 위한 번역과 현대어역

한자문학의 번역과 옛표기의 현대어 풀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한문학 특히 한시의 경우에서 한문 원문의 표기하는 것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이는 편저자들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과서에서 한문학 작품을 실으면서, 그 원문을 학습하기 위한 아무런 장치도 따로 보이지 않고 있다. 한시를 이해하기 위한 한시 형식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한자에 대한 이해도 없다.¹¹¹⁾

결국 한시의 든 한자 원문이란 삽화와 크게 다르지 않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¹¹²⁾ 그렇다고 문학 과목에서의 한문학 학습이 한문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¹¹³⁾ 그렇기에 한시는 과감하게 한문과로 돌려줄 필요가 있다¹¹⁴⁾.

111) 참고로 한문 교과서(교학사, 2002)에서 ‘송인(送人)’을 익히기 위한 학습의 과정을 살펴본다. 기본학습에 ‘1. 7언 한시의 구성’, ‘2.어구풀이’, ‘3.送인의 형식과 압운’, ‘4.작품의 이해와 감상’이 있고, 보충학습에 ‘1.한자의 활용’, ‘한자어의 활용’, ‘3.문장풀이의 활용’이 있으며, 심화 학습에 ‘1.구조 익히기’와 ‘2.한시 익히기’가 있다. 이들 중에서 한 편의 한시를 익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들라 하더라도 기본학습의 네 항목은 익혀야만 한다. 그러나 문학교과서는 ‘작품의 이해와 감상’만이 나와 있는 형편이다.

112)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다. 즉, 원전이 단순한 구경거리에 불과할지는 모르나,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얻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옛것에 대한 호기심을 지나 때로는 선인들의 문학 유산에 대한 흥미와 문화 유산에 대한 긍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또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오히려 원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성중, 앞의 글, 65쪽.

113)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학은 심화선택 과목이고 한문은 일반선택이고, 한문고전은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선택과 일반선택의 관계는 계층적인 관계가 아니다.

114) 한문과에서도 한시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시는 내용 이해와 감상에 중점을 두고, 형식 평가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교육부, 『한문,

그렇다고 한시를 우리 문학의 영역에서 제외하자는 뜻은 아니다. 한시 역시 훌륭한 우리 문화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다만 한시가 우리의 문화 전통이라면 그것은 한시 안에 담긴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정서가 주가 되는 것이다. 전통에 있어서 한자 표기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우리가 문학교과서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한자 표기일 뿐이다. 현재의 학습자들에게 한자란 낯선 외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¹¹⁵⁾

이것은 한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된다. 한자 원문이 없어도 독립적인 문학 작품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 문학임을 나타내야 한다. 이는 교과서에 수록되는 한시의 번역에 전문가가 참여해 현대시와 다름없는 유연한 번역 작품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습자들이 한문 원문에 대한 전문적인 작업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학을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번역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자문학을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같은 한시 작품이라도 어떤 교과서에서는 번역자를 밝히고 있음에 비해, 다른 교과서는 아예 번역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

< 글 5-3-1, '송인' >

- 정지상 / 정충권 옮김

비 갠 긴 득엔 풀빛이 진한데

임 보낸 남포엔 노랫가락 구슬퍼라.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 건가?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더하거니

- 『교학(하)』, 135쪽.

교련,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교육부, 1988, 39쪽]

115) 김승호, 앞의 책, 54-55쪽.

< 글 5-3-2, '송인' >

- 정지상

비 갠 언덕에는 풀빛이 푸르네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중양(하)』, 70쪽.

< 글 5-3-1 >에 비해 < 글 5-3-2 >는 번역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추정은 가능하다. 실명을 밝힌 < 글 5-3-1 >은 한시를 두고 번역자가 직접 번역한 경우인데 비해, < 글 5-3-2 >는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어떤 번역본을 근거로 하여 편저자가 훈문의 과정을 거쳐 제시한 것이다. 곧 여러 단계를 통해 번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러 단계를 거치는 번역은 특히 이야기문학에서 더 많은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교과서에 제시된 글이란, 대개 한학자들에 의한 초벌 번역이 이루어졌을 텍스트를, 다시 교육적인 이유와 고등학교의 수준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문체와 단어로 바꾼 것이다. 당연히 원전의 본래 의미와 많이 달라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전문적인 한문 번역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번역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번역은 '제2의 창조'일 수도 있지만, 또한 번역은 '반역'이 될 수도 있다.¹¹⁶⁾ 이렇게 어설픈 번역은 그대로 작품의 수준이 낮음을 반증하게 된다. 제대로 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학습자들은 그 원인을 번역에서 찾지 않는다. 그 작품의 갈래가 어설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한문학 자체가 어설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낡고/늪은'¹¹⁷⁾ 것들을 '젊은' 것

116) 이상섭, 앞의 책, 119-121쪽.

들이 범람하는 문화 속에 던져두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낡음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여기는 것이다.¹¹⁸⁾ 곧 서툰 번역은 한문학이 단순하게 낡은 문학이 아니라 질적으로 낮은 문학이라고 여기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표기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문학 특히 한시의 교과서 수록에서 문제삼을 만한 것이 또 있다. 작품의 다양성의 문제이다. 을지문덕의 ‘여수장우증문시’나 최치원의 ‘추야우중’, 정지상의 ‘송인’ 등 너무 유명한, 그리하여 어쩌면 식상해 버린 한시들 이외에 또 우리가 접해본 작품은 거의 없었다. 한국 한문학의 영역을 훈민정음 창제 이전으로 너무 쉽게 한정해 버린 것이다. 심리적인 거리도 먼 데, 거기에 시간적인 거리마저 더 떨어진 작품만을 다루게 될 때, 우리 한문학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¹¹⁹⁾

고전문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그대로 드러난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고전문학 작품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절름발이 표기를 하고 있다. 완전한 옛표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대적인 표기도 아니다. 이렇게 하나의 작품을 두고도 부분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럴 때 작품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여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 어색함이 학습자의 눈에는 그대로 수준 낮음¹²⁰⁾으로 비추어지는 것이다.

117) 서인석, 앞의 글, 34쪽.

118) 주목할 것은 한문이나 한글, 곧 문자의 문제가 작품의 우월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승호, 앞의 책, 23쪽.

119) 이는 현재 제도권에 있는 교과서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내용에 더 가치를 두면 형식에서 자유로워진다.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 만든 『교과서밖의 민족문학』(푸른나무, 1992)과 같은 대안 교과서에서 오히려 한문학을 더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형식보다는 내용을 중시한 결과이다.

그래서 고전문학이란 낯선 것이라는 멍에 위에 수준 낮은 것이라는 멍에를 더 뒤집어쓰는 것이다. 거기에 간간이 나타난 한자까지 더하여져 어렵고도 고리타분한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감상을 위한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 작품은 이미 사라지고, 억지로 공부해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남게 된 것이다. 의무감이 너무 강하여 중압감이 되면 당연히 문학에 대한 거부감과 한국 문화의 전통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 어려운 번역의 과정에 교사나 학습자들에게 떠밀 수도 없다. 국어와 문학교과서에 다양한 형태의 옛표기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곧 고어의 표기와 고어의 문법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¹²¹⁾, 텍스트를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7차 국어교과서에서도 ‘국어(하)가 걸어온 길’이라 하여 고대 국어, 중세 국어, 근대 국어의 예를 잠깐 들어주고 있다. 이 정도만 잠깐 학습하면 고전문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¹²²⁾

여기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극히도 이상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약간의 이상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생

120) 고전문학의 어설픈 번역이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다. 어렸을 때 아동문학 전집으로 읽은 고전문학이 그것이다. 장르불문하고, 시대 불문하고, 그리고 국적불문하고 대개 50여권 이상으로 짜여진 전집 그 가운데에 고전문학이 있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글자보다는 조악하고 화려한 그림이 중심이 된 그런 고전문학이었다. 어른들의 희망이 그대로 담겨 있는 권선징악적인 주제와 순수함을 잃게 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배려가 그대로 녹아 있는 빼고 고친 그런 글들이다. 그래서 춘향전보다는 심청전이나 흥부전이 앞섰고, 구운몽보다는 사씨남정기가 더 한 발 앞에 있었다. 이 때 읽은 작품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의 전부가 아니었을까?

121) 박성중, 앞의 글, 67쪽.

122) 여기서도 모순된 상황이 나타난다. ‘국어(하)가 걸어온 길’은 국어(하)에 들어 있는 단원이다. 그런데 ‘관동별곡’은 국어(상)에 수록되어 있다. 이 둘의 순서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고전문학 텍스트들이 대부분 한문이나 고어로 씌어진 점을 극복¹²³⁾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고전의 원전을 훼손하는 것이 라도 고전문학의 수용과 소통을 위한 방법이라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현대어로 옮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를 다시 교과서에 실는 이들의 생각이 더욱 중요한 것이 된다.¹²⁴⁾

123) 김승호, 앞의 책, 54-55쪽.

124) 여기에서 북한에서는 한문학이나 고전문학 작품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1959년부터 1966년까지 간행된 『조선고전문학선집』 35권에 나타나 있다.

① 한문자나 리두로 표기된 가요들은 다 번역하였다. …… 한자로 번역된 가요나 리두로 표기된 가요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였으며 한자나 리두 그 자체의 해독에는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②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윤색문을 원문앞에 붙여주었다. …… 윤색문에서 주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어깨번호를 달고 원문의 주석을 살펴 보도록 하였다. 한자어에 대한 주석은, 본래의 한자를 적지 아니하고 국어 대응어나 간단한 풀이만을 들었다.

③ 한시 번역은 직역을 피하고 시의 사상성이나 예술성을 살리면서 시를 새로 옮기기에 노력하였다. 해제나 주석이 필요한 한시는 번역 밑에 먼저 해제를 주고 그다음 주석을 주었다. 주석은 번역시에 한하였으며, 원시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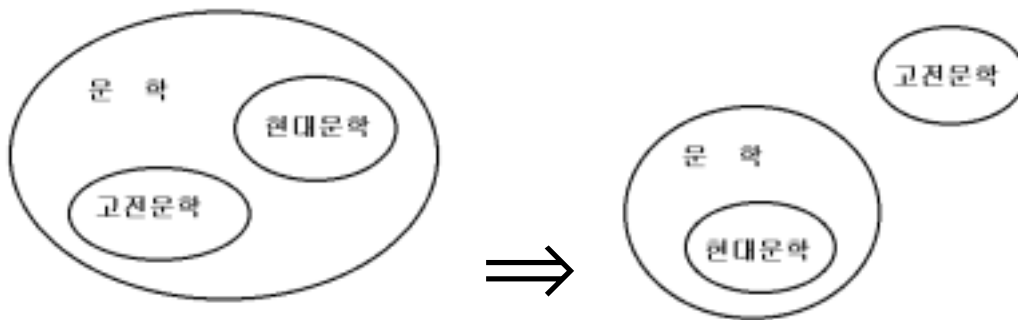
이상을 볼 때 북한에서 한문학이나 고전문학을 표기할 때는 원시 원문을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원시 원문의 내용·사상면만을 전달하려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민족 고전을 참모습대로 보급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심경호, 「북한의 한자·한문 교육」,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90, 213-214쪽.

4. 살아있는 고전문학 텍스트의 지향

우리의 문학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간단하게 양분할 수 없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이런 시각은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다. 문학이라는 커다란 영역이 있고, 그 아래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한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문학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구분하고 있고, 이런 인식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현대문학이다. 고전문학은 일반적인 문학의 보편성보다는 문학 외적인 특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고전문학이라는 패러다임을 부여한 것이다. 결국 문학과 현대문학은 같은 패러다임을 갖고 고전문학은 별도의 패러다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려는데 그 기준을 표기에 두려는 것이다.¹²⁵⁾ 곧 고전문

125) 기준을 갈래에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신체시와 현대시의 차이, 또는 고전소설(고소설)과 신소설, 현대 소설의 차이란 창작 시기 이외에는 거의 없다. 역시 표기와 관련한 문제이다.

학은 고어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현대문학은 현대적 표기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분명한 나뉘이 이루어진다. 향가에서 굳이 고어를 고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표기하는 이유가 원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을 나누는 표지가 단순하게 옛표기 여부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현대문학인가, 고전문학인가? 누구도 진달래꽃을 고전문학이라 하지는 않는다. 현진건의 ‘빈처’는 현대문학인가, 고전문학인가? 당연히 현대문학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담고 아래의 자료를 보면 이 두 작품을 간단하게 현대문학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 글 5-4, ‘진달래꽃(民謠詩)’ >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말업시
고히고히 보내들이우리다.

寧邊엔 藥山

그 진달래꽃을
한아름 짜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길 발겨름마다
뿌려노흔 그꽃을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

- 『개벽』 25호(1922.7)¹²⁶⁾

< 글 5-5, '빈처' >

아즉아모도認定해주지안한 無名作家인나를 다만저하나이 김히김히認定해준다! 그러킬래 그 強한物質의對한本能的欲求도 참아가며 오늘날까지몹시눈사람을써프리지아니하고 나를도아준것이다

「아아 나에 慰安을주고 援助를주는天使여!」

마음속으로이러케부르지즈며 두팔로덱석 안해의허리를잡아 내가슴에바싹안았다 그다음瞬間에는 뜨거운두입술이..... 그의눈에도나의눈에도 그렇그런눈물이 물살뚝넘쳐흐른다.

-(꽃 十二月十七日夜)-

- 『개벽』 7호(1921.1)¹²⁷⁾

원전에 충실하게 표기해야 한다는 논리를 따르면 위와 같이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표기할 수는 없다. 만일 위와 같이 표기한다면 학습자들에게 심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문학적인 통념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로 이렇게 표기하는 문학 작품이란 현대문학이 아니고 고전문학이기 때문이다. 결국 옛표기를 고집하는 까닭은 고전문학임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현대문학이 아님을 보여주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문학상의 시대구분과는 별도로 표기에 따라 시대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아래는 11종 교과서¹²⁸⁾에서 최초로 현대적 표기가 나타나는 주요 작품들을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으로 나누어 들어 보인 것이다.¹²⁹⁾ 이를 보면 현재 문학교과서에서 우리의 문학사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126) 김종욱 편, 『원본소월전집(상)』, 흥성사, 1982. 524쪽에서 재인용.

127) 전광용 편, 『원본 한국근대소설의이해I』, 민음사, 1883, 188쪽에서 재인용.

128) 상문문화사의 교과서는 작품을 통한 시대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29) 여기에서 ‘문학사구분’이라 한 것은 교과서의 단원명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따로 ()를 한 것은 시대 명칭이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지 않은 경우, 교과서에

하는지 알 수 있고, 근대(또는 현대) 문학의 기점을 어디서부터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 표 36, 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적 표기의 기점 >

교과서	노래문학			이야기문학		
	작품(지은이)	발표	문학사구분	작품(지은이)	발표	문학사구분
교학	님의 침묵 (한용운)	1926	일제강점기	금수회의록 (안국선)	1908	근세(조선후기)
금성	당신을 보았습 니다(한용운)	1926	민족수난기	동백꽃 (김유정)	1936	민족수난기
두산	해에게서 소년 에게(최남선)	1908	문화충격기 (개화-일제)	무정 (이광수)	1917	문화충격기
디딤	초혼(김소월)	1925	근대 (개화기-1945)	태평천하 (채만식)	1938	근대 (개화기-1945)
문원	빼앗긴 들에도 봄은...(이상화)	1926	일제강점기	금수회의록 (안국선)	1908	개화기 (1876년 이후)
민중	님의 침묵 (한용운)	1926	개화기 ~일제강점기	만무방 (김유정)	1935	개화기 ~일제강점기
블랙	빼앗긴 들에도 봄은...(이상화)	1926	일제강점기	태평천하 (채만식)	1938	일제강점기
상문	언급없음					
중앙	가요품송 (가사)	1908	근대화시기 (19C말)	은세계 (이해조)	1908	근대화시기 (19C말)
천재	해에게서 소년 에게(최남선)	1908	근대전환기 (19C 말)	혈의 누 (이인직)	1906	근대전환기 (19C말)
한국	봄은 간다 (김 역)	1918	전환기 (19C후-20C초)	무정 (이광수)	1917	전환기 (19C후-20C초)

서 설명하고 있는 시간을 옮긴 것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를 경계로 하여 표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신체시와 신소설이 과도기 문학으로 표기가 섞여 있음¹³⁰⁾도 아울러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름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위의 틀에서 보는 것처럼 교과서에 따라 노래문학의 경우에는 1908년부터 1926년까지, 이야기문학의 경우 1906년부터 1938년까지 현대적 표기가 나타난다. 이는 편저자에 따라 기준이 많이 다를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곧 문학사의 연장선상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정확하게 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표기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가르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그럼에도 나누어 표기하려는 관성은 여전하다. 단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가르겠다는 의지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곧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창훈이 “문학 교육의 목적이 단순한 문학적 감상력과 상상력의 증진을 뛰어 넘어서, ‘삶의 총체적 체험’과 ‘문학적 고양을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전문학 역시 문학이므로 교육에서 이를 충족시켜주어야 한다.”¹³¹⁾라고 한 것처럼 고전문학은 고전이기 전에 문학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일

130) 신체시의 두 가지 다른 표기 양상을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들어 견주어 본다.

터……르썩, 터……르썩, 턱, 썩……아. / 짜린다, 부순다, 문허 바린다. / 태산(泰山) 갓흔 높흔 뵤, 답태 갓흔 바위스돌이야, /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 나의 큰 힘을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까디 하면서 / 짜린다, 부순다, 문허 바린다. / 터……르썩, 터……르썩, 턱, 튜르릉, 콧. / 『문원(하)』, 146쪽.

쳐……르썩, 쳐……르썩, 척, 썩……아. /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 태산(泰山) 같은 높은 뵤,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 나의 큰 힘을 아느냐 모르느냐, 호통까지 하면서 / 때린다, 부순다, 무너 버린다. / 쳐……르썩, 쳐……르썩, 척, 튜르릉, 콧. / 『천재(하)』, 141쪽.

131)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16쪽.

반적인 문학과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예전에 지어진 문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은 문학이라는 보편적인 큰 틀에 먼저 접근해야 한다. 그 다음에 고전문학 안에 담겨 있는 특수한 측면들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표기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전문학 교육은 너무도 이런 특수한 측면¹³²⁾에만 치우쳐 왔던 것이다. 문학교육의 본질인 작품의 이해·감상보다는 작품과 관련한 내용적 사실을 확인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래서 작품을 학습하는 본질을 접어두고, 잡다한 지식만을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학습¹³³⁾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실에서의 고전문학의 위상이었다. 곧 고전문학이라는 틀 안에 텍스트가 고정되어 있었다.

김대행의 ‘문화론적 시각’이 의미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하고 싶은 것은 문학이 특별한 언어 체계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 향유되는 별개의 세계도 아니라는 점이다. 예전에 다정한 애기를 들려주시던 할머니가,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그들의 노래와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또 즐겼던 보통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문학과, 오늘날도 우리가

132) 특수성이라 해도 ‘특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염은열, 앞의 책, 288-289쪽.] 그러나 우리의 고전문학 교육에서는 더 특별한 것만 찾았고, 주변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었다. 아니, 이는 굳이 고전문학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다. 우리의 문학 교육 자체가 그러했다. 작품 이해나 감상은 뒤로하고, 작가의 아호라든지, 등단한 잡지, 참여한 단체, 혹은 기행(奇行)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133) 참고서류의 책들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다. 이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식화이다. 이를테면, 고전소설의 특징이라면 예외 없이 “작자미상이고, 중국을 배경으로 하며, 운문체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권선징악적인 주제이고, 해피엔딩이며,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인물의 성격은 전형적·평면적이고, 일대기적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이다. 개별적인 작품의 특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이런 진술은 고전문학 작품을 학습자들로부터 더욱 멀게 만들뿐이다.

배움을 잡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삶을 표출하는 문학인 것이다.¹³⁴⁾

문학은 문화의 한 양상으로 보아야지 예술가들의 전유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문학은 우리 모든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냈고, 또 그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 양식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대중문학이 어디를 어떻게 향해 가고 있는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¹³⁵⁾

고전문학이 아니더라도 문학을 교육하는데 있어 텍스트는 고정될 수 없다. 문학 감상은 그것을 수용하는 주체와 문학 텍스트 사이의 역동적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그래야만 문학 텍스트는 유기체적 존재가 되어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¹³⁶⁾이다. 이것이 진정한 전통이 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작품은 고정된 전범이 아니라 하급자의 다양한 문학 활동을 위해 변용될 수 있다.”¹³⁷⁾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일정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고 한 자리에서 고정되려는 것은, 권력화의 과정과 다름이 없다. 김수업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 ‘교과서’ 대신에 ‘고전문학’을 바꾼다 해도 이 논리를 크게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교과서를 보는 눈, 곧 교과서관을 우리 모두가 이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국어교육에서 교과서를 일종의 본보기[典範]로 여겼다. 국어

134) 김대행, 「문학의 개념과 문학교육론」,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8, 344쪽.

135) 김대행, 「문학교육의 지표」, 앞의 책, 365쪽.

136) 권오경, 「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 『어문론총』 32호, 경북어문학회, 1998, 2쪽.

137)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②국어』, 322쪽.

교과서는 말글살이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내용이나 형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표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관점은 교과서를 교육 활동 위에 있게 했다. 내용이든 형식이든 교과서는 무시할 수 없는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이 도전하거나 비판할 수 없고 오직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할 신성한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편찬자들은 교과서의 그런 권위를 떨어뜨리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을까 안절부절못하고, 교사와 학생은 그 본보기를 오해하고 훼손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였다. 이러한 교과서관은 지난날 왕조사회의 한문 교육에서 주력하던 이념(ideology) 전달에 뿌리가 박힌 것이고, 일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더욱 강화된 구시대적 그릇된 유산이다. 교과서는 모름지기 교육 활동의 두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만나도록 하고 두 주체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촉매작용을 하는 매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것은 교사와 학생 위에서 군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아래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토론과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¹³⁸⁾

결국 고전문학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고정 불변하기 때문에 죽어 있는 텍스트로서의 고전문학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늘 학습자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전문학 교육도 더 이상 문학적 사실 위주의 교육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는 교육¹³⁹⁾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다.

138) 김수업, 「국어교육반세기」, 『함께여는국어교육』 2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1996, 25-26쪽.

139) 박영주, 앞의 글, 15쪽.

VI. 마 무 리

1. 글의 요약과 정리

이 글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유형을 살펴보고, 교육적으로 가장 알맞은 표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고민한 글이다.

I 장의 1절에서 고전문학의 패러다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많은 연구는 더 이상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의 한국문학으로 보고 있다. 또 이런 연구 결과는 그대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전문학을 독립된 하나의 문학 영역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대문학과는 다른 요소들을 고전문학에서 강조한 탓이다. 이 중에서 차이점을 가장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표기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 표기의 문제를 다루려 한 것이다.

2절에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고전문학 교육은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이루어졌고 많은 성과가 남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려는 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다만 하나의 연구가 있었지만, 이 역시 국어학 쪽의 접근이어서, 문학적이고 교육적으로의 탐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절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밝혀 보았다. 이 글에서 대상으로 한 교과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이고, 표기의 기준으로 삼은 교과서는 4차부터 7차까지의 국어교과서였다. 연구의 방법은 고전문학 작품을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으로 나누고, 여러 표기의 유형과 규칙을 찾아보았다.

Ⅱ장에서는 표기 유형을 찾기 위한 사전 단계로 고전문학 작품을 분류하였다. 1절에서는 글의 갈래와 표기 문자에 따라 한자표기로 된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한글표기로 된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의 네 유형으로 나누었고, 성격에 따라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으로 나누었다.

2절은 표기방법에 따라 일곱 개의 표기의 기준을 세웠다. ‘한자 원문을 함께 들어줄 것인가’, ‘문장과 문단을 나누고 있는가’, ‘행과 연을 나누고 있는가’, ‘옛 문자를 쓰고 있는가’, ‘한자를 나란히 쓰고 있는가’, ‘낱말을 현대어로 바꾸어 쓰고 있는가’, ‘따로 뜻을 풀이를 하고 있는가’가 그것이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분류에 따라 실제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따로 부록에 실었다. 본문에서는 갈래별로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노래문학인 한시, 한역 가요, 향가, 고려가요(경기체가), 시조(사설시조), 가사(잡가), 언해와 악장, 창가를 분석하였고, 2절에서는 이야기문학인 한문산문(설·소설·설화·비평·전), 한글 수필(서간·일기·기행), 고소설, 판소리, 신소설을 분석하였다.

3절에서는 1,2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노래문학에서는 대부분 한자원문을 들었으나, 이야기문학에서는 한자 원문이 없었다. 모든 이야기문학에서 문장과 문단을 나누어 쓰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도 행과 연을 구분하여 쓰고 있었다. 옛 문자는 대부분의 노래문학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야기문학에서는 갈래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많았다. 한자어에 대해 한자를 나란히 쓰는 것은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반면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어 쓰는 것은 노래문학과 이야기문학 모두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낱말과 어구를 풀어 보이는 것은 주요문학과 보조문학에서 차이가 있었다. 주요문학 작품들은 따로 풀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조문학은 그렇지 못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표기 결과를 두고 표기 규칙을 찾고자 했다. 1절에서는

고전문학의 표기에 대한 기존의 원칙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교과서나 교육과정 어디든지 표기에 대한 원칙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표기는 기존의 관행과 교과서 편저자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글에서 이를 관습적인 규칙이라 명명했다.

2절과 3절에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관습적인 표기의 규칙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시간적인 문제에 따른 규칙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으로 작품 해석에 필요한 시간이 옛표기와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인다고 설정하였다. 두 번째 규칙으로 설정한 것은 작품 해석을 위해 편저자들이 인위적으로 제공한 시간과 옛표기와는 서로 비례 관계에 놓인다는 것이다.

3절에는 갈래와 관습적인 규칙과의 관계를 찾아보았다. 세 번째 규칙으로 갈래의 정형성과 옛표기와는 비례 관계를 들었다. 또 문학 외적인 요소들이 강조될 때 문학작품은 옛표기와 가까운 표기를 이룬다는 것을 네 번째 규칙으로 찾았다.

V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바람직한 표기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1절에서는 옛표기와 전통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대개 고전문학 작품에서 옛표기를 고집하는 이유로 언어적 전통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언어적 전통이 아니라, 예로부터 이어져 오는 삶과 정서여야 한다. 하지만 옛표기에 대한 집착은 정작 필요한 전통 찾기를 오히려 더 멀게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한 교육과 학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국어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학 감상이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2절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고전문학 작품 표기의 통일성을 주장하였다. 현재 문학교과서에서는 표기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습자들은 입시 등의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통일된 텍스트로의 학습을 강요받는다. 하지만 국가 수준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 이 통일의 주체는 교과서

를 출판하는 출판사들이 만들어내는 참고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통일의 과정을 국가 수준에서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또 여러 이본 중 어떤 작품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가 수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함을 밝혔다.

3절에서는 한자문학의 번역과 옛표기의 현대어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진정한 우리 문학으로 겨안기 위해서 한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곧, 과감하게 한자 원문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이며, 한문학의 번역에 대해 전문가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글로 된 고전문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옛표기도 아니고, 현대적 표기도 아닌 어설픈 표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고전문학을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텍스트들이 한자나 고어로 쓰여진 것을 극복해야 한다.

4절에서는 고전문학에 대한 우리들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들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시대구분을 살펴 볼 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구분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억지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둘을 가르려는 관성이 여전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관성에 이용되는 것이 표기이다.

고전문학은 고전이기 전에 문학이다. 그렇기에 독자들과 교감을 나누어야 그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전문학 작품은 저만의 특수한 표기로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문학과고,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권위를 가진 고전문학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권력화의 길을 가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고전문학 교육이 더 이상 문학적 사실만 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문학적 진실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려면 고전문학 작품이 살아있는 텍스트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2. 남은 문제 및 전망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살펴보았지만, 모든 작품을 여러 면을 두루 살필 수는 없었던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아쉬움이라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은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들 문제와 아쉬움을 들어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밝힌 대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교과서는 모두 18종이다. 이 중 11종은 이미 발간되었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7종은 지난 겨울에 검정이 통과되어 아직 출간되지 못한 상태여서, 이 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통계 결과를 볼 때, 7종의 교과서 작품을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계 결과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은 감히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서만으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통계를 구한 것도 자료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를 분석해 보았다면, 학교급별로 따라 표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급 또는 학령에서 가장 적절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정도를 추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 표기의 난이도란 하나의 시간에서 수평적으로도 살펴보는 것이지만, 여러 시간을 두고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표기 분석은 사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러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칫 기

초 없이 건물을 세운 것과 다르지 못한 위험을 안고 있다.

난이도라는 측면에서 또 놓친 것이 있다. 이 글에서는 표기의 여러 유형을 6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원문표기의 여부, 문장 문단(행과 연)의 구분 여부, 고어의 사용 여부, 한자음의 표기 여부, 현대적인 언어로 풀이하는 여부, 따로 뜻풀이는 하는가의 여부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 여섯 단계로 표기 유형을 나눈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보다 더 많은 유형이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여섯으로 단순화시킨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너무 세분화시켰을 수도 있다. 또 이 여섯 단계의 표기가 일정한 층위를 이루고 있는지, 혹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 만일 층위를 이루고 있다면 이 글에서 부여한 순서가 층위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층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가설은 실험을 통해 증명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다르지 않다. 곧 이 글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화를 위해 과감하게 한자 및 고어 표기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자칫 헛된 울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이 주장이 힘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이 따로 필요하다. 곧 고전문학 작품의 여러 표기 유형을 학습자들에게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반응 정도를 조사해야 한다. 과연 어느 정도의 표기까지 학생들이 소화할 수 있는가, 또는 어느 정도까지 표기해야 학생들의 문학 감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실험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런 실험이 없었다. 따라서 주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과서 편저자들의 전공 영역이 다름이 표기의 유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고전문학 전공자가 바라보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관점과 현대문학 전공자의 그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의 차

이는 자연 표기로 이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까지 조사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런 한계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표기 결과를 통계로 두고, 거기에서 관습적인 규칙만을 찾았을 뿐이다. 그 다음으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가장 바람직한 표기 수준은 보이지 못했다. 앞서 제기했던 이 글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상을 나열하고, 거기서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글의 처음에서 고전문학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해 말했거니와, 정말 고전문학 교육이 필요한 것이라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고전문학을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가 고전문학의 교과서 표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더욱 많은 연구를 기대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란 한 번의 연구로 한 사람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고전문학 전공자와 교육정책 담당자와 현장에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 문교부, 『고등학교 국어 1·2·3』, 1984, 1985, 1986.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상·하』, 1990.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상·하』, 1996.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 상·하』, 2002.
교육부, 『중학교 국어 2-1』, 2001.
구인환 외, 『문학 상·하』, 교학사, 2002.
박경신 외, 『문학 상·하』, 금성출판사, 2002.
우한용 외, 『문학 상·하』, 두산, 2002.
김윤식 외, 『문학 상·하』, 디딤돌, 2002.
한철우 외, 『문학 상·하』, 문원각, 2002.
김창원 외, 『문학 상·하』, 민중서림, 2002.
한계전 외, 『문학 상·하』, 블랙박스, 2002.
강황구 외, 『문학 상·하』, 상문연구소, 2002.
조남현 외, 『문학 상·하』, 중앙교육 진흥연구소, 2002.
홍신성 외, 『문학 상·하』, 천재교육, 2002.
김병국 외, 『문학 상·하』, 한국교육미디어, 2002.
김윤식 외, 『문학 상·하』, 한샘출판, 1996.
전국국어교사모임, 『교과서밖의 민족문학』, 푸른나무, 1992.
전국국어교사모임, 『우리말 우리글』, 나랏말, 2002.

2. 논 문

- 강현주, 「고등학교 고전문학 교육의 지도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6.
고전문학교육연구회, 「고전문학교육의 연구성과」,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 것인가』, 집문당, 1994.
- 권순궁, 「고전소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함께여는국어교육』 34호, 1997.
- 권오경, 「고전시가문학 텍스트의 교육 패러다임 모색」, 『어문론총』 32호, 경북어문학회, 1998.
- 김동준, 「고전시가교육 이대로 좋은가」, 『교육문제연구』 제3집, 동국대교육문제연구소, 1986.
- 김동환, 「춘향전의 효율적인 학습지도 방안 연구」, 인하대 석사논문, 1998.
- 김문기, 「한국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8.
- 김석희, 「고전시가 연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 김수업, 「교육정책과 국문학교육」,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 김수업, 「국어교육반세기」, 『함께여는 국어교육』 26호, 전국국어교사모임, 1996.
- 김수업, 「<용비어천가> 가락이 지닌 뜻」,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
- 김종철, 「문학교육의 문화론적 관점」,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 김진영, 「국어교육에 있어서의 고전교육의 중요성」, 『이중언어학회지』 8호, 이중언어학회, 1991
- 김형규, 「고전교육의 내용과 교재 내용」, 『교육』 9호, 서울대 사대, 1959,
- 김홍규, 「고전문학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한신문화사, 1992.
- 노진한, 「민족문화의 계승·창조로서의 국문학 교육」, 『국문학과 문화』, 월인, 2001.
- 박기혁, 「고등학교 고전문학 지도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1.
- 박노춘, 「고전 교육의 문제점」, 『어문연구』 18·19호, 일조각, 1978
- 박노춘, 「고전주역 문제」, 『국어국문학』 64호, 국어국문학회, 1974.
- 박삼서, 「문학교육의 도교사상적 배경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3.
- 박성중, 「고전 교육에 대한 국어학적 접근」, 『국어교육』 96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 박영주, 「고전문학 교육의 현실과 방향정립」, 『국어교육연구』 90호, 한국국

- 어교육연구회, 1995.
- 서인석, 「고전산문 연구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107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2.
- 신희숙, 「심청전의 문학교육적 가치분석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0.
- 심경호, 「북한의 한자·한문 교육」,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1990.
- 심혜숙, 「고시조 학습지도의 문학교육론적 접근」,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8.
- 이병주, 「고전수필교육의 문제점」, 『교육문제연구』 3집,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86
- 이상구,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1997.
- 이상익, 「고전문학 교육의 회고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7.68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9.
- 이상익, 「고전해석의 이론」, 『김형규박사송수기념논총』, 일조각, 1971.
- 이우성, 「고려말기 소악부-고려속요와 사대부문학」, 『한국한문학연구』 1집,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
- 이지호, 「고전문학의 자리매김을 위한 시론」, 『함께여는 국어교육』 19호, 전국국어교사모임, 1994.
- 이지호, 「고전소설의 대화유형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 임기중, 「고전시가 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책」, 『교육문제연구』 3집, 동국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86.
- 전병화, 「협동학습을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99.
- 정인관,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수용 제재의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1987.
- 조대현, 「고전문학교과서의 흐름 연구」, 경상대 석사논문, 1989.
- 조문계, 「고등학교, 국어과(고전) 학습지도방안」, 『교육』 제6호, 서울대사대, 1957.
- 최현섭, 「소설 교육의 사적 고찰」, 성균관대 박사논문, 1988.

3. 단행본

-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개발연구원, 2002.

- 고영근, 『표준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7.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6차)』, 1995.
- 교육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7차)』, 1997.
-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6차)』, 1995.
- 교육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7차)』, 1997.
- 교육부, 『한문, 교련,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교육부, 1988.
-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출판부, 1998.
- 김선배, 『시조문학 교육의 통시적 연구』, 박이정, 1998.
- 김수업, 『배달 문학의 갈래와 흐름』, 현암사, 1992.
- 김수업, 『배달 문학의 길잡이』, 금화출판사, 1978.
- 김승호, 『고전의 문학교육적 이해』, 이회, 2000.
- 김윤식 ·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8.
- 김종욱 편, 『원본 소월전집(상)』, 홍성사, 1982.
-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김풍기, 『한국고전시가 교육의 역사적 지평』, 월인, 2002.
- 김홍규, 『한국 고전문학과 비평의 성찰』, 고대출판부, 2002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8.
- 문교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5차)』, 1988.
- 문교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해설(5차)』, 1988.
- 문학교육연구회, 『삶을 위한 문학교육』, 연구사, 1987.
- 문흥구, 『한국고전산문교육론』, 보고사, 1999.
- 설성경 · 유영대, 『북한의 고전문학』, 고려원, 1990.
- 성기조, 『한국문학과 전통논의』, 장학출판사, 1986.
- 염은열, 『고전문학과 표현교육론』, 열락, 2000.
- 우한용,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1999.
-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2.
- 이병주, 『한국한시의 이해』, 민음사, 1987.
- 이상섭, 『문학용어 비평사전』, 민음사, 2001.
- 이중환 외, 『우리출판 100년』, 현암사, 2001.
- 이희승, 『한글 맞춤법 통일안 강의(새로 고친 판)』, 신구문화사, 1983.,

- 임경환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1994.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1987,
 전광용 편, 『원본 한국근대소설의 이해 I』, 민음사, 1883.
 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흥성사, 1979.
 정준섭,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제임스 그리블, 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87.
 조동일 · 김홍규 편, 『판소리의 이해』, 창작과비평사, 1978.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9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5』, 지식산업사, 1988.
 한창훈, 『시가교육의 가치론』, 월인, 2001.
 한창훈, 『시가와 시가교육의 탐구』, 월인, 2000.
 함수곤, 『교육과정과 교과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허경진 역, 『허난설헌 시집』, 평민사, 1999.

4. 사이트

- 21세기 세종기획, <http://www.sejong.or.kr>
 교육과정 서비스, <http://www.kncis.or.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국립국어연구원, <http://www.korean.go.kr>
 국어사자료학회, <http://vod.jeonju.ac.kr/~hiskdt>
 두산백과사전, <http://kr.encycl.yahoo.com>
 연세대 언어정보개발연구원, <http://clid.yonsei.ac.kr>
 전국국어교사 모임, <http://naramal.njoyschool.n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한말연구학회, <http://www.hanmal.or.kr>

* 부 록

부록1. 교육과정별 고전문학(문학) 교과서의 서지 일람

1. 1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가려뽑은 옛글	정지영	1954	정음사	조선후기→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나열)	○		
2	표준 옛글	이병기 정인승	1955	신구문화 사	"	○		
3	가려 뽑은 옛글	정지영	1956	정음사	"	○		
4	고전독본	양주동	1956 1958	탐구당	갑오경장이후→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나열)	○		○
5	옛 글	구자균 김사엽	1956	사조사	"	○		
6	고문 독본	김형규	1956	백영사	이조전기,이조후기,이조말기 신라시대,고려시대	○		
7	표준 옛글	이병기 정인승	1956	신구문화 사	조선후기→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나열)		○	
8	우리 옛글	국어교육 연구회	1959	교과서 주식회사	갑오경장이후→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나열)	○		
9	표준 옛글	이병기 정인승	1960	신구 문화사	조선후기→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나열)		○	

2. 2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바른 옛글	어문학회	1964	청운사	조선후기→삼국시대 (내용별 구분)		○	
2	옛 글	구자균 김사업	1964 1966	사조사	신문예의 싹틔,국말의 문학 ,영정조,전란기,발흥기,국초, 나여문학	○		
3	가려뽑은 옛글	장지영	1965	정음사	조선후기→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 나열)	○		
4	표준옛글	이병기 정인승	1965 (1960	신구 문화사	조선후기→삼국시대 (내용별 구분)		○	
5	고문독본	김형규	1966 1967	백영사	이조전기,이조후기,이조말기 신라시대,고려시대	○		
6	고전독본	양주동	1967	탐구당	갑오경장 이후→삼국시대 (시대구분 없이 작품 나열)	○		○
7	고 전	이재수 서수생	1967	일한도서 출판사	근세(영조~3·1운동),중세(의종 ~숙종),고대(~인종),	○		
8	최신고전	조지훈 위충량	1967 1970	양문사	산고,중고,근고,근세,현대문학	○		
9	고 전	천시권	1968 1970	고려 문화사	신문학,조선후기,조선중기, 조선전기,나여문학	○		
10	고 전	박성의 송민호	1968 69,76	광명 출판사	상고,중고,근고,중세,근세, 신문학	○		○
11	고 전	김기동 정주동외	1968 1971	교학사	조선후기,조선중기,조선전기, 고려시대,신라시대	○		○
12	고 전	이승녕 남광우	1968 1969	동아 출판사	조선후기→삼국시대 (갈래별 연대순)	○		○
13	고 전	김윤경	1968 69,70	문호사	고대조선,삼국시대,고려시대, 조선시대,새시대	○		○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4	모범고전	임헌도	1968	영지 문화사	개화기,조선후기,조선단속기, 조선수난기,조선발전기, 조선전기,고려이전	○		
15	우리고전	박병채	1968	박영사	개화기,조선시대,고려시대, 삼국시대	○		○
16	고 전	박노춘	1968	친우 문화사	상고,통일신라,고려,조선전기, 조선후기	○		○
17	고 전	한원영	1969	삼화 출판사	고대전기,고대후기,중세, 근세전기,근세후기,최근세	○		○
18	표준고전	정병욱 이응백	1969 1970	신구 문화사	고려이전,조선전기,조선후기, 과도기	○		○
19	모범고전	김성재	1969	일지사	신문학,근조후기,근조전기, 고려,고대문학	○		
20	우리고전	한인석 이은정	1970	인학사	상고시대,삼국시대,고려시대, 조선전기,조선후기,개화기	○		○

3. 3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고 전	박성의 송호민	1979	고려서적	상고문학,중고문학,근고문학, 중세문학,근세문학,신문학	○		○
2	고 전	정병욱 이용백	1979	신구 문화사	고려이전문학,조선전기문학, 조선후기문학,과도기문학	○	○	○
3	고 전	김동욱 김태준	1979	민중서관	상대문학,고려시대문학, 조선전기문학,조선후기문학, 근대문학	○	○	○
4	고 전	전광용	1979	동아 출판사	통일신라까지,고려시대, 조선전기,조선후기,개화기	○		○

4. 4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고전 문학	박갑수 이철수	1984	지학사	고대문학,고려문학, 조선전기문학, 조선후기문학,개화기문학	○		○
2	고전 문학	김동욱 김태준	1985	동아 출판사	상대문학,고려시대,조선전기, 조선후기,근대문학	○	○	○
3	고전 문학	김기동 박준규	1985	교학사	상고시대,신라시대,고려시대, ,조선전기,조선후기, 개화기문학	○		○
4	고전 문학	김성배 진태하	1985	문호사	고대문학,고려시대,조선전기, 조선후기,개화기문학	○	○	○
5	고전 문학	이상의 김진영	1985	동아서적 주식회사	상대문학,고려문학,조선전기, 조선후기,개화기문학	○		○

5. 5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문학	박동규, 서대석 송백현, 김태식	1989	금성 교과서	시대 구분 없음			○
2	문학	김윤식 김종철	1989	한 샘	상고시대, 고려시대,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현대문학	○		
3	문학	김동욱, 김열규 김태준	1989	동아 출판사	시대 구분 없음			○
4	문학	구인환	1989	한 샘	시대 구분 없음			○
5	문학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1989	동아 출판사	시대 구분 없음			○
6	문학	김용직 박민수	1989	학습개발	시대 구분 없음			○
7	문학	김홍규	1989	한 샘	시대 구분 없음			○
8	문학	김봉근 한연수	1989	지학사		○		○

6. 6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문학	김봉균 최혜실	1995	지학사	원시·고대, 중세전기, 중세후기, 근대의식성장기, 근·현대문학	○	○	○
2	문학	박갑수, 김진영 이승원	1995	지학사	상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현대	○		○
3	문학	권영민	1995	지학사	고대, 고려, 조선, 현대	○	○	○
4	문학	박인기, 우한용 정병현, 최병우	1995	동아 출판사	고려이전, 조선, 일제강점기, 우 리시대	○		○
5	문학	김열규 신동욱	1995	동아 출판사	상고, 삼국, 고려, 조선전기, 조선 후기, 개화기, 현대	○	○	○
6	문학	고형진, 신재기 장장식, 최동호	1995	대한 교과서	시대 구분 없음		○	○
7	문학	한계전, 김병국 윤여탁	1995	대한 교과서	고대,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일제강점기, 해방후	○	○	○
8	문학	구인환 김흥규	1995	한 샘	고대, 중세, 근세, 개화기, 근대, 현대	○	○	○
9	문학	김윤식 김종철	1995	한 샘	상고,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1910년대, 1920년대이후	○		○
10	문학	김대행 김동환	1995	교학사	상고및신라, 고려, 조선, 전환기, 일제강점기, 해방후	○	○	○
11	문학	김용직 박민수	1995	대일 도서	시대 구분 없음, 양식사 서술		○	○
12	문학	김낙효, 김용숙 남미영, 신희천 조상기	1995	동아 서적	상대, 고려, 조선, 개화기, 민족저항기, 광복이후	○	○	○
13	문학	김태준, 류탁일 이용호, 한성희	1995	민문고	시대 구분 없음		○	○
14	문학	권오만 이문규	1995	선영사	상고,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현대	○	○	○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5	문학	윤병로, 구창완 박동규, 오태현	1995	노벨 문화사	양식사로 서술	○	○	
16	문학	서대석 오세영	1995	천재 교육	원시·고대, 중세전기, 중세후기, 근대여명기, 현대	○	○	○
17	문학	김태식, 박경신 송백현, 양왕용	1995	금성 교과서	고대, 중세, 근세, 개화기, 현대	○		○
18	문학	성기조	1995	학문사	고대, 고려, 조선, 개화기, 현대	○	○	○

7. 7차 교육과정기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	문학	홍신성, 박종성 김강태	2002	천재 교육	원시고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수난기, 광복후, 현대	○ (하)		○ (상)
2	문학	우한용, 박인기 정병현, 최병우 이대욱, 경종록	2002	두산	-통일신라, -고려, -선초, -선말, 개화기-	○ (하)		○ (상)
3	문학	구인환, 구자송 정충권, 임경순 하희정, 왕동원	2002	교학사	고대, 중세, 근대	○ (하)	○ (하)	○ (상)
4	문학	강황구, 권형중 김대용, 박정곤 이준	2002	상문 연구사	시대구분 없음		○ (하)	○ (상 하)
5	문학	한철우, 김명순 김충식, 남상기 박영민, 박진용 염성섭, 오택환	2002	문원각	고대, 고려, 조선,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 (하)		○ (상)
6	문학	김윤식, 김종철 맹요재, 진중섭 허익	2002	디딤돌	원시·통일산리, 고려, 조선, 근대, 현대	○ (하)	○ (상)	○ (상)
7	문학	한계전, 신범순 박윤우, 김종환 노진한	2002	블랙박스	-통일신라, 고려-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	○ (하)	○ (상 하)	○ (상)
8	문학	조남현, 정성배 조세형, 장수익 배성환	2002	중앙교육 진흥연구 소	고대, -통일신라, 고려-조선 전기, -조선후기, 수난기, 광복후	○ (하)	○ (상)	○ (상)
9	문학	박경신, 김성수 이용두, 안학서	2002	금성 출판사	고대-통일신라, 고려, 조선, 개화기, 수난기, 광복후	○ (상 하)	○ (상)	○ (상)

연 번	서명	편저자	간행 연도	출판사	시대구분	작품배열		
						시대	내용	갈래
10	문학	김창원, 권오현 신재홍, 장동찬	2002	민중 서림	고조선-삼국, 통일신라-고 려전기, 고려후기-조선전기, 조선후기, 개화기-일제강점 기, 광복-1960	○ (하)	○ (상)	○ (상)
11	문학	김병국, 윤여탁 김민수, 조용기 최영환	2002	한국교육 미디어	-통일신라, -고려, -조선전 기, -조선후기, 개화기-	○ (하)	○ (상)	○ (상)

부록2. 교과서 고전문학 작품의 표기

1. 시 조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교학	땀은-	위백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교학	방안에-	이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교학	오늘도-	정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교학	오류가	주세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교학	초암이-	김수장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마음이-	서경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말업슨-	성혼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방안에-	이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백설이-	이색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어부사시사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오백년-	길재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이몸이-	정몽주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청산도-	송시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추강에-	월산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한손에-	우탁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금성	훈민가	정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건의요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국화에-	이정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도산십이곡	이황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매암이-	이정신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산은-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이런들-	이방원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이몸이-	성삼문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두산	선인교-	정도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오우가	윤선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이화에-	이조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이화우-	계량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청산리-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청산은-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두산	풍상에-	송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강호사시가	맹사성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노래삼긴-	신흙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도산십이곡	이황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북창이-	임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어이 얼어-	한우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어저-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오우가	윤선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이고진-	정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이화에-	이조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잔들고-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재너머-	정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전원에-	김천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춘산에-	우탁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충신은-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홍망이-	원천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디딤	홍망이-	원천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강호사시가	맹사성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매암이-	이정신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어보사시사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짚방석-	한호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문원	천만리-	왕방연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내언제-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민중	농암가	이현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도산십이곡	이황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동짓달-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마음이-	서경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방안에-	이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산촌에-	신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십년을-	송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어부사시사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어저-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이몸이-	성삼문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이화에-	이조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이화우-	계량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초암이-	김수장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민중	추강에-	월산군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간밤의-	유옹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국화야-	이정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노래삼긴-	신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도산십이곡	이황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두류산-	조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마음이-	서경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십년을-	송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어저-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오백년-	길재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잔들고-	윤선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재너머-	정철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블랙	천만리-	왕방연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상문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상문	두류산-	조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상문	방안에-	이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상문	이화우-	계량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상문	전원예-	김천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상문	이몸이-	성삼문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삭풍은-	김종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선인교-	정도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소의	권섭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십년을-	송순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어리고-	안민영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어부가	이현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어부사시사	윤선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오우가	윤선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이몸이-	성삼문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이화우-	계량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노래삼긴-	신흙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농가구장	위백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눈마자-	원천석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대초불-	황희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도산십이곡	이황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도산십이곡	이황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만홍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뫼버들-	홍량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반밤중-	이정환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청산도-	김인후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청산은-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중양	홍망이-	원천석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강호사시가	맹사성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구름이-	이존오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넙그린-	박효관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동기로-	박인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천재	동짓달-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방안에-	이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서검을-	김천택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선인교-	정도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채너머-	정철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천재	추강에-	월산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강호사시가	맹사성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고산구곡가	이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내언제-	황진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노래삼긴-	신흙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높으락-	안민영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도산십이곡	이황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마음이-	서경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만흥	윤선도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십년을-	송순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어부가	이현보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어저-	황진이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오륜가	주세붕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이화우-	계량	주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지당에-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한국	홍망이-	원천석	보	한글	서정	시조		+	-	+	-	-

2. 사설 시조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한눈멀고-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금성	나모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금성	두터비-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두산	나모도-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두산	댁들에-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두산	두터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디딤	창내고자-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문원	귀도리-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민중	나모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민중	시어마님-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민중	창내고자-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블랙	님이오마-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블랙	댁들에-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블랙	두터비-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블랙	시어마님-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상문	두터비-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상문	바람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개를-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나모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댁들에-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두터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장진주사	정철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중앙	창밖이-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천재	귀도리-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천재	논밭갈아-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천재	댁들에-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천재	시어마님-		주	한글	서정	사설		+	-	+	-	+
천재	창내고자-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한국	두터비-		보	한글	서정	사설		+	-	+	-	-

3. 고려가요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교학	동동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교학	정석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금성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금성	동동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금성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금성	정과정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금성	정과정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두산	가시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두산	서경별곡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두산	정과정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두산	정읍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두산	청산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디딤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디딤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디딤	정과정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디딤	정읍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가시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만전춘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상저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정읍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문원	청산별곡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민중	가시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민중	만전춘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민중	서경별곡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민중	정석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민중	정읍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블랙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상문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가시리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동동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정과정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정석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정읍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중앙	처용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천재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천재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천재	정석가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천재	정읍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한국	가시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한국	동동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한국	서경별곡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한국	정석가		보	한글	서정	속요		+	-	+	-	-
한국	정읍사		주	한글	서정	속요		+	-	+	-	+

4. 경기체가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금성	한림별곡		주	한글	교술	경기		+	-	+	-	+
두산	한림별곡		보	한글	교술	경기		+	-	+	-	+
디딤	한림별곡		주	한글	교술	경기		+	-	+	-	+
문원	한림별곡		주	한글	교술	경기		+	-	+	-	+
민중	한림별곡		보	한글	교술	경기		+	-	+	-	-
중양	한림별곡		주	한글	교술	경기		+	-	+	-	+
천재	한림별곡		주	한글	교술	경기		+	-	+	-	+
한국	한림별곡		보	한글	교술	경기		+	-	+	-	-

5. 가 사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갈래 (큰)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교학	농가월령가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교학	누항사	박인로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교학	면앙정가	송순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교학	상사별곡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교학	속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국어	관동별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금성	사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
두산	누항사	박인로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두산	사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두산	속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규원가	허난설헌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농가월령가	정학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사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상사별곡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속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디딤	연행가	홍순학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문원	사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문원	속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규원가	허난설헌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농가월령가	정학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면앙정가	송순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사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상춘곡	정극인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속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민중	일동장유가	김인겸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블랙	사미인곡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블랙	상춘곡	정극인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블랙	용부가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상문	상춘곡	정극인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가요풍송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관동별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규원가	허난설현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농가월령가	정학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누항사	박인로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사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속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중양	일동장유가	김인겸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천재	사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천재	상춘곡	정극인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천재	속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천재	오라오라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천재	일동장유가	김인겸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규원가	허난설현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면앙정가	송순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사미인곡	정철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선상탄	박인로	보	한글	교술	가사		+	-	+	-	-
한국	속미인곡	정철	주	한글	교술	가사		+	-	+	-	+
상문	유산가		보	한글	교술	잡가		+	+	+	-	-
중양	유산가		보	한글	교술	잡가		+	+	+	-	-

6. 한 시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부벽루	이색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교학	송인	정지상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교학	절명시	황현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금성	송인	정지상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금성	여수장 우중문시	을지문덕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두산	고시8	정약용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두산	봄비	허난설현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두산	잠령민정	임제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두산	대관령을 넘으면서	신사임당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두산	무어별	임제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두산	푸른 바닷물이	허난설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디딤	보리타작	정약용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디딤	부벽루	이색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디딤	무어별	임제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디딤	불일암 일운스님에게	이달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디딤	송인	정지상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디딤	절명시	황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디딤	제가야당 독서당	최치원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문원	송인	정지상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문원	추야우중	최치원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문원	절명시	황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문원	제가야당 독서당	최치원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민중	송인	정지상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민중	절명시	황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민중	추야우중	최치원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민중	탐진어가	정약용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블랙	무제	김삿갓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블랙	삿갓을 읊다	김삿갓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블랙	안락성을 지나며	김삿갓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상문	송인	정지상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상문	여수장 우중문시	을지문덕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송인	정지상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제가야당 독서당	최치원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탐진춘요	정약용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산민	김창협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습수요	이달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여수장 우중문시	을지문덕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원생원	김병연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중앙	추야우중	최치원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천재	송인	정지상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천재	추야우중	최치원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한국	제가야당 독서당	최치원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한국	추야우중	최치원	주	한자	서정	한시	+	+	+	+	+	+
한국	보리타작	정약용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한국	절명시	황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한국	창의시	최익현	보	한자	서정	한시	+	+	+	+	+	+

7. 한역 개요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구지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금성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금성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금성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금성	황조가	유리왕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두산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두산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디딤	공무도하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디딤	황조가	유리왕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문원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문원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문원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민중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민중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민중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블랙	황조가	유리왕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중앙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중앙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중앙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중앙	황조가	유리왕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천재	공무도하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천재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천재	해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천재	황조가	유리왕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한국	공무도하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한국	구지가		주	한자	서정	고가	+	+	+	+	+	+
한국	해가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
한국	황조가	유리왕	보	한자	서정	고가		+	+	+	+	+
금성	사리화	이제현	보	한자	서정	소악	+	+	+	+	+	+
한국	사리화	이제현	보	한자	서정	소악	+	+	+	+	+	+

8. 악장과 연해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금성	용비어천가		주	한글	교술	악장	+	+	-	-	-	+
두산	용비어천가		보	한글	교술	악장	+	+	-	+	-	-
문원	용비어천가		주	한글	교술	악장	+	+	-	+	-	+
민중	용비어천가		보	한글	교술	악장		+	-	+	-	-
블랙	용비어천가		보	한글	교술	악장	*	+	-	+	-	+
중앙	용비어천가		주	한글	교술	악장		+	-	+	-	-
천재	용비어천가		보	한글	교술	악장		+	-	+	-	+
한국	용비어천가		보	한글	교술	악장		+	-	+	-	-
교학	등고(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금성	강촌(두시)	두보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금성	귀안(두시)	두보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금성	춘망(두시)	두보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두산	귀안(두시)		보	한글	기타	연해	+	+	-	+	-	-
두산	춘망(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디딤	강남봉이구년 (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디딤	등악양루 (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디딤	춘망(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
천재	강촌(두시)	두보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천재	추흥(두시)		주	한글	기타	연해		+	+	+	-	+

9. 향 가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서동요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교학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금성	제망매가		주	한글	서정	향가	+	+	-	+	-	+
금성	처용가		주	한글	서정	향가	+	+	-	+	+	+
두산	원왕생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두산	제망매가		보	한글	서정	향가		+	+	+	+	+
두산	현화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디딤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문원	찬기파랑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문원	제망매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민중	도솔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민중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민중	서동요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
민중	원왕생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
블랙	찬기파랑가		주	한글	서정	향가	+	+	+	+	-	+
블랙	제망매가		보	한글	서정	향가		+	-	+	-	+
상문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상문	안민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중앙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중앙	처용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중앙	찬기파랑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
천재	제망매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천재	모죽지랑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
한국	찬기파랑가		주	한자	서정	향가	+	+	-	+	-	+
한국	안민가		보	한자	서정	향가		+	+	+	-	+

10. 창 가

출전	작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금성	애국하는 노래	이필균	주	한글	서정	창가		+	-	+	-	+
디딤	애국하는 노래	이필균	주	한글	서정	창가		+	-	+	-	+
한국	권학가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민중	동심가	이중원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민중	창의가	신태식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한국	동심가	이중원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디딤	애국가	최돈성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블랙	애국하는 노래	이필균	보	한글	서정	창가		+	-	+	-	+

11. 한문 소설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양반전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교학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금성	광문자전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금성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금성	민옹전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금성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두산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두산	양반전	박지원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두산	운영전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두산	이생규장전	김시습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디딤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디딤	허생전	박지원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문원	양반전	박지원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민중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민중	호질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블랙	양반전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블랙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상문	예덕선생전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중앙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보	한자	서사	소설		+	+	+	+	+
중앙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중앙	호질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천재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한국	양반전	박지원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한국	이생규장전	김시습	주	한자	서사	소설		+	+	+	+	+

12. 한글 수필류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금성	서간	남평조 씨조모	보	한글	교술	서간		+	+	+	+	+
금성	한중록		주	한글	교술	수필		+	-	-	-	+
금성	산성일기		보	한글	교술	일기		+	-	+	-	-
금성	병자일기		주	한글	교술	일기		+	-	-	-	+
두산	한중록		보	한글	교술	수필		+	+	+	-	-
디딤	서간	어느 부인	주	한글	교술	서간		+	-	-	-	+
디딤	서간	선조	주	한글	교술	서간		+	-	-	-	+
디딤	서간	명은 옹주	보	한글	교술	서간		+	-	-	-	+
디딤	규중칠우쟁론기		주	한글	교술	수필		+	+	+	-	+
민중	서간	원이모	보	한글	교술	서간		+	+	-	+	-
민중	계축일기		주	한글	교술	일기		+	+	-	-	+
블랙	조침문		주	한글	교술	수필		+	+	+	+	+
상문	산성일기		보	한글	교술	일기		+	-	+	-	+
천재	한중록		주	한글	교술	수필		+	+	+	-	+
천재	조침문		주	한글	교술	수필		+	+	+	-	+
한국	서간	해경궁 홍씨	주	한글	교술	서간		+	-	+	-	+
한국	서간	선조	주	한글	교술	서간		+	-	-	-	+
한국	규중칠우쟁론기		보	한글	교술	수필		+	+	+	-	-
한국	산성일기		보	한글	교술	일기		+	-	+	-	-

13. 소 설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박씨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교학	토생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교학	홍부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국어	춘향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금성	장끼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금성	홍길동전	허균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박씨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사씨남정기	김만중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유충렬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장끼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두산	홍길동전	허균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디딤	구운몽	김만중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디딤	사씨남정기	김만중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디딤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민중	구운몽	김만중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민중	임진록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민중	홍길동전	허균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민중	홍길동전	허균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블랙	박씨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블랙	춘향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상문	박씨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상문	장끼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상문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사씨남정기	김만중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심청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유충렬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임경업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조웅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중앙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토끼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중앙	홍길동전	허균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명주보월빙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박씨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사씨남정기	김만중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서동지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숙영낭자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유충렬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장끼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춘향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천재	홍길동전	허균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한국	심청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한국	유충렬전		주	한글	서사	소설		+	-	+	-	+
한국	춘향전		보	한글	서사	소설		+	+	+	-	-

14. 기타 한문 산문류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조신몽		보	한자	서사	몽유록		+	+	+	+	+
교학	토실을 허문데 대한 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교학	주몽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금성	국선생전	이규보	보	한자	교술	가전		+	+	+	+	+
금성	서포만필	김만중	보	한자	교술	비평		+	+	+	+	+
금성	차마설	이곡	보	한자	교술	설		+	+	+	+	+
금성	도미의 처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금성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두산	공방전	임춘	보	한자	교술	가전		+	+	+	+	+
두산	화왕계	설총	주	한자	교술	가전		+	+	+	+	+
두산	경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두산	슬건설	이규보	보	한자	교술	설		+	+	+	+	+
두산	도미의 처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두산	청성잡기	성대중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두산	청학동(파한집)	이인로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두산	현화가 설화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두산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디딤	초조장서	최치원	보	한자	교술	격문		+	+	+	+	+
디딤	열하일기	박지원	주	한자	교술	기행		+	+	+	+	+
디딤	조신전		주	한자	교술	몽유록		+	+	+	+	+
디딤	이옥설	이규보	보	한자	교술	설		+	+	+	+	+
디딤	구지가설화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디딤	손순매아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디딤	이야기꾼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디딤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문원	국선생전	이규보	주	한자	교술	가전		+	+	+	+	+
문원	연오랑세오녀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민중	뇌설	이규보	보	한자	교술	설		+	+	+	+	-
민중	주뢰설	이규보	보	한자	교술	설		+	+	+	+	-
민중	서동설화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민중	지귀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민중	호원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민중	주몽설화		보	한자	서사	신화		+	+	+	+	-
민중	강감찬전	고려사	보	한자	교술	전		+	+	+	+	-
민중	온달전		주	한자	교술	전		+	+	+	+	+
블랙	조신몽		보	한자	교술	몽유록		+	+	+	+	+
블랙	슬견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블랙	수오재기	정약용	주	한자	교술	수필		+	+	+	+	+
블랙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상문	이옥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상문	오봉산의 물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국선생전	이규보	주	한자	교술	가전		+	+	+	+	+
중앙	조신의꿈		주	한자	교술	몽유록		+	+	+	+	+
중앙	서포만필	김만중	보	한자	교술	비평		+	+	+	+	+
중앙	주옹설	권근	보	한자	교술	설		+	+	+	+	+
중앙	구토지설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어우야담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접몽	성현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청성잡기	성대중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태평한화골계전	서거정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중앙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중앙	동명왕신화		보	한자	서사	신화		+	+	+	+	+
중앙	동명왕편		보	한자	서사	신화		+	+	+	+	+
중앙	해명태자설화		보	한자	서사	신화		+	+	+	+	+
천재	공방전	임춘	보	한자	교술	가전		+	+	+	+	+
천재	화사		보	한자	교술	가전		+	+	+	+	+
천재	왕오천축국전	혜초	주	한자	교술	기행		+	+	+	-	+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천재	도산십이곡발	이황	보	한자	교술	비평		+	+	+	+	+
천재	경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천재	차마설	이곡	보	한자	교술	설		+	+	+	+	+
천재	구지설화		보	한자	서사	설화		+	+	+	+	+
천재	혁거세왕 설화		주	한자	서사	설화		+	+	+	+	+
천재	사복불연 (원효전)	일연	주	한자	교술	전		+	+	+	+	+
한국	공방전	임춘	주	한자	교술	가전		+	+	+	+	+
한국	도산십이곡발	이황	주	한자	교술	비평		+	+	+	+	+
한국	서포만필	김만중	주	한자	교술	비평		+	+	+	+	+
한국	경설	이규보	주	한자	교술	설		+	+	+	+	+
한국	이옥설	이규보	보	한자	교술	설		+	+	+	+	+
한국	단군신화		주	한자	서사	신화		+	+	+	+	+
한국	주몽신화		보	한자	서사	신화		+	+	+	+	+
한국	용부전	성간	보	한자	서사	전		+	+	+	+	+

15. 판소리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교학	적벽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교학	토별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교학	홍보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금성	박타령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두산	홍보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디딤	심청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디딤	적벽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문원	홍보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민중	심청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민중	토별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블랙	박타령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블랙	수궁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상문	심청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중양	수궁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중양	심청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천재	박타령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천재	심청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한국	적벽가		보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한국	홍보가		주	한글	서사	판소리		+	+	+	-	+

16. 신소설

출전	작 품	지은이	수록 형태	본래 표기	큰 갈래	작은 갈래	a	b	c	d	e	f
							원문	문장	고어	한자	단어	풀이
금성	혈의 누	이인직	주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디딤	금수회의록	안국선	주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문원	금수회의록	안국선	주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민중	금수회의록	안국선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민중	자유종	이해조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민중	혈의 누	이인직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블랙	금수회의록	안국선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상문	은세계	이해조	주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중앙	금수회의록	안국선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중앙	은세계	이해조	보	한글	서사	신소설		+	+	+	+	+

ABSTRACT

A Study of Writing Types of Classical Works in 7th High School Literature Texts

SHIN YOUNG-SAN

Major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Our Classical works, which were written in Korean or Chinese, are very important and necessary to hand down to our coming ages.

So, there are many classical works in High school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xts, but they are not welcomed by students. Becaus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for students and teachers to access to classical works.

For example, students have a lot of emotional and mental difficulties to understand classical works and teachers have to role of translators, sometimes not of two other languages but of two same languages.

These are considerably caused by the unfamiliarity of writing types in texts. So, the study of writing types in classical works is important, because it is necessary to teach them efficiently and easily.

To suggest how to teach the classical works efficiently and easily, we inspected closely on the texts of all the classical works in 7th high school

Literature texts, and from 4th to 7th Korean language texts, and then, the writing types of them all.

In consequence of this research, the classical works seem to be written in next types.

In poetry, they were written with the original chinese text, but in fiction, they were not. All fictional works were written in some separated parts by paragraphs, and most poetry were too. Most poetry were written in the archaic words, but in fiction, they were used by choice of each genre. Both of poetry and fiction were written with the chinese pronunciation, and were not written in contemporary expression. Some of them were explained in details with interpretations of the phrases and words, but most of them were not.

In view of the results, so far it seems to be, there are no fundamental rules in writing the classical works.

But there exist some rules or types according to the custom and usage which accepted by the editors or the writers of the texts.

They are as follows.

- i) The transcription of the work gets away from the original, when it needs more times to interpret.
- ii) The transcription of the work comes nearer to the original, when it is presented more times and efforts to understand by the editors or the writers.
- iii) The transcription of the work comes nearer to the original, when the genre of the work is more fixed type.
- iv) The transcription of the work comes nearer to the original, when the

work or the genre has non-literary specialities.

Most of the classical works were written by these four types. But the types are not conferred and they are not based on a principle by any consent.

Now we need more unified and standard rules in writing the classical works. So, we have to consider about the attitudes to deal with the problems of approaching to the Classical Literature.

First, we have to clarify the object of teaching the classical works in texts. Why do we teach the classical works to the students? As literary works or as linguistic materials? Second, we need to unify the writing types in a national level and to standardize the works. Third, we have to get over the persistence to the original spelling. Fourth, we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that the classical literature is the thing of the past.

So, we can access to the classical literature as a living one and renew our impression of it.